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연기군 발전 계획] 수립 위한

세 미 나

일시 : 2005. 10. 6(목) 14:00~16:30

장소 : 연기군청 대강당

주최 : 충남발전연구원



행사 안내

- 명 칭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연기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
- 목 적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연기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기군의 미래상, 도시계획, 경제·산업 분야의 발표 및 토론
- 일 시 : 2005. 10. 6(목), 14:00 ~ 16:30
- 장 소 : 연기군청 대강당
- 주 최 : 충남발전연구원
- 참석대상 : 150명(도·군의원, 평가위원, 군 관계 공무원 등)
- 시간계획
 - 14 : 00 ~ 14 : 05 개회 및 국민의례
 - 14 : 05 ~ 14 : 10 군수 인사
 - 14 : 10 ~ 14 : 40 기조 발표
주 제 : 건강도시의 개념과 전략 및 현황: 연기군의 적응을 위한 제안
(조무성 고려대학교 교수)
 - 14 : 40 ~ 14 : 45 자리 정돈
 - 14 : 45 ~ 15 : 35 주제 발표
제1주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연기군의 변화 전망과 과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
제2주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연기군의 변화 전망과 과제:
경제·산업 분야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 15 : 35 ~ 15 : 40 휴식
 - 15 : 40 ~ 16 : 30 지정 및 자유 토론
 - 16 : 30 폐회
- 토 론
 - 좌 장 : 정일주 홍익대학교 교수
 - 토론자
 - 남해성 충남대학교 교수
 - 이명훈 고려대학교 교수
 - 이왕건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황우성 연기군의회 의원
 - 임상전 충청남도의회 의원

목 차

기조 발표 :

건강도시의 개념과 전략 및 현황 : 연기군의 적용을 위한 제안

-----001

- I. 문제제기
- II. 건강도시의 개념
- III. 건강도시의 전략
- IV. 건강도시의 현황
- V. 연기군 적용을 위한 제안

제1주제 발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연기군의 변화 전망과 과제 :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

-----039

-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 II. 여건변화 전망
- III. 도시계획 기본방향

제2주제 발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연기군의 변화 전망과 과제 : 경제·산업 분야

-----079

- I. 서론
- II. 연기군 산업 입지적 특성과 입지 현황
- III.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충청권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 IV.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대응 방향과 발전 전략 모색
- V.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시책과 사업 모색

VI. 결론과 제언

기조 발표

건강도시의 개념과 전략 및 현황: 연기군의 적용을 위한 제안

조 무성 (고려대학교 교수)

건강도시의 개념과 전략 및 현황: 연기군의 적용을 위한 제안

조 무성 (고려대학교 교수)

[목 차]

- I. 문제제기
- II. 건강도시의 개념
 - 1. 삶의 질과 건강의 개념
 - 2. 건강도시의 역사와 개념
- III. 건강도시의 전략
 - 1. 건강도시프로젝트의 특징
 - 2. 건강도시프로젝트의 단계
- IV. 건강도시의 현황
 - 1. 유럽의 건강도시
 - 2.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도시
 - 3. 타이페이 건강도시 사례
 - 4. 우리나라의 건강도시
- V. 연기군 적용을 위한 제안

I. 문제제기

모든 조직은 생존을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와 내부갈등을 조정하는 문제이다(Bennis, 1968). 정부조직이나 그 하위단위도 마찬가지다. 연기군이 당면한 문제도 크게 보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와 내부갈등을 조정하는 문제이다.

20세기를 지나 21세기로 계속되는 환경변화의 중요한 특징은 세계화, 지구환경의 위기, 국제화, 정보화, 지역화, 유전공학기술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국가간에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호작용의 강화를 의미하는 세계화는 확산되고 있다(Jong S. Jun 1996:6). 국가간의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의존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구환경의 위기는 열대우림의 파괴와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기후의 변동, 자연재해의 증가, 생물다양성의 감소, 대기, 수질 오염, 토양오염 등을 의미한다(정선양, 1999:286-292). 이러한 위기는 세계의 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간의 교류확대로 재화와 서비스의 소통이 원활해지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의 생활화가 진행되고 지방화를 통한 지역중심의 생활권이 강화되고 있다. 유전공학기술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기여하지만 여러 가지 윤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서 오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웰빙의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연기군은 이러한 세계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시) 건설이라는 변화의 태풍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군전체면적의 18.8%(남면, 금남면, 동면)가 예정지역에, 주변지역까지 합치면 51.7%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이 되어 48.3%가 연기군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연기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또한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은 가중될 것이다. 그동안 연기군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위의 천안시, 공주시, 대전시에 교육이나 문화의 면에서 훨씬 뒤떨어 진데서 오는 박탈감이 컸고 그리고 오송단지과 함께 개발되고 있는 청원군의 발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연기군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가장 인접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기회이다. 인접해 있다는 것은 박탈감을 줄여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어떻게 없애고 주어진 기회를 살릴 수 있는가? 연기군의 모든 구성원 특히 연기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의회의원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시)는 축약한 말 그대로 행복시를 향해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다. 품격 높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행복시 홍보책자, 2005).

연기군이 인접한 지역의 기회를 살리고 환경에 적응하기위한 방향으로 건강도시, 연기라는 비전에 초점을 가지고 행복시와 연계한 발전계획안을 수립하는 출발을 내딛고 있다.

행정의 본질은 어원(public+ad=to+ministration<ministrare= to serve)적으로나 헌법의 규정으로 볼 때 국민에 대한 봉사이다.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심화되는 수많은 문제속에서 행정의 서비스는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권은 개혁을 부르짖어 왔지만 국민들은 개혁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6년 이후 발전된 건강도시는 이론과 전략 뿐 아니라 가시화된 결과에 있어서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왔다(Adams, 2000). 건강도시는 국민 생활의 고통을 감싸는 민생행정 곧 생활행정의 원천이며 건강도시운동이야말로 그동안 실패한 개혁의 방향을 바로 잡고 개혁의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조무성, 2002; 1999; 1998). 따라서 건강도시는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꼭 심어야 할 이론과 제도이며 건강도시가 연기군에 도입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행정학의 현실적합성을 높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외국에서 발생한 건강도시의 이론과 제도를 우리 한국의 도시 특히 연기군에 접목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울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올해에 가입된 도시가 6 군데나 되는데 우리의 전시적 행정문화속에서 가입으로 끝나지 않

고 어떻게 내실을 다질 것인가? 이것은 행정학자로 갖고 있는 건강도시의 우리나라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답은 간단하지 않고 매우 어려운 것이다. 다른 나라와 문화의 차이가 있고 한국에서 건강도시에 관한 연구는 손꼽을 정도이고 우리나라에서 몇몇 도시에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건강도시의 배경역사와 함께 개념 및 특질을 다루고 프로젝트로서의 전략을 다루며 건강도시의 외국과 국내의 현황을 토대로 연기군에 적용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연구주제에 대한 방법은 참고문헌과 보고서 분석 그리고 전화인터뷰 등이다.

II. 건강도시의 개념

1. 삶의 질과 건강의 개념

1) 삶의 질과 전인건강의 개념

삶의 질은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삶의 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어왔지만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 연구는 주관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 및 통합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진다(조명한·차경호, 1998:15-25; 전인철, 1998:4-10; 하혜수: 1996:82-84; 김영섭, 1996: 587-596). 주관적인 관점의 삶의 질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만족감으로 규범적인 가치와 삶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인간의 행복과 비슷한 개념이다. 객관적인 관점의 삶의 질은 인간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조건을 의미하며 객관적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데 특색이 있다(전인철, 1998:12-18; 김광웅외,1991:72). 통합적 관점은 내면적인 심리와 객관적인 조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을 함께 고려한다(조명한·차경호, 1998; 김상균, 1996:217-241). 통합적인 관점 중에서도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학자도 있다(이달곤, 1990:289-320). 주관적인 관점은 자신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존재가 자신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전인철,

1998:18-25). 그러나 가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객관적인 관점은 서로의 조건들을 비교하여 일반적 기준을 만들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인격적인 존재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기계적인 지표를 만들기 쉬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관점이 보다 합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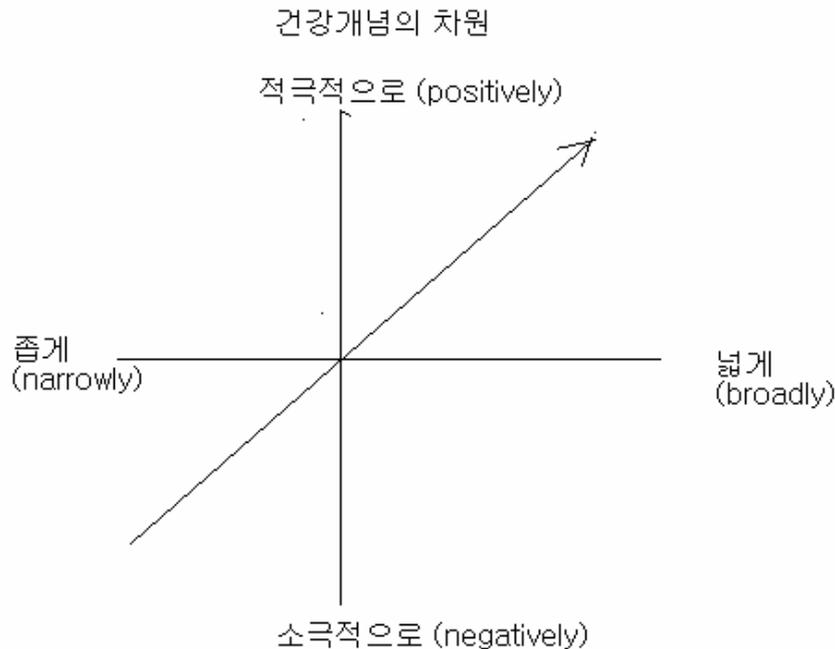
삶의 질을 보는 관점은 건강의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WHO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상태(wellbeing)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인 건강개념을 갖고 있다(Phillips &Verhasselt, 1994:3).¹⁾ 건강개념은 다음과 같이 다차원의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삶의 질은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건강의 소극적 차원에서 적극적 차원으로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더욱 확장되고 발전하고 있다. 즉 건강의 범위가 단순히 몸이나 정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 사회적 건강, 환경건강도 포함되며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영적 건강도 포함 한다. 건강이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손상이 없는 것 뿐 아니라 적극적 차원의 생활의 향상된 질이나 생활의 활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포함한다. 환경의 건강은 사회의 건강과 문화의 건강 및 자연의 건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전인건강(holistic health) 또는 총체적 건강(total health)으로 파악 된다²⁾. 이러한 전인건강개념은 인간의 다차원성(multidimesionality)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Lyng,1990:66). 생활행정학에서 삶의 질의 추구는 국민의 총체적 건강의 추구를 의미한다. 이것은 국민의 마음과 몸의 건강 및 사회와 자연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와 조건의 개선

1) WHO의 건강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wellbeing)로 정의한다. 안녕상태는 영어로 적역하면 잘(well) 있는 것(being)이다. 우리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편지 서두에 "안녕하십니까?" 또는 "잘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신체, 정신, 사회가 잘 있는 것이 건강이다. 잘 있지 못하면 건강하지 않는 것이다. 질병을 disease라고 하는 것도 '편하지 않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에는 영적인 차원의 건강개념을 현장에 넣으려고 상정했다가 부결된 적이 있다. WHO의 정의에서 보면 신체의 병 외에 정신과 사회의 병도 병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치유는 이러한 병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며 치료는 건강회복을 위해 병을 다루고 의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국민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국민 각각의 인격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이 건강하면 건강한 나라며 건강한 국민은 마음과 몸 및 인간관계가 건강하며 자연환경과의 관계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인건강과 관련해서는 holistic health, wholistic health, whole person health, total health 등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을 접할 수 있다. 그 중 holistic health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마음과 몸의 건강 외에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나 환경의 건강을 포함한다. 즉 총체적 건강(total health)을 의미한다. wholistic health는 마음과 몸의 통일체인 인격체의 건강에 보다 초점을 두는 개념이며, 전 인격체의 건강(whole person health)의 의미와 유사하다. 전인 건강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며, 그에 따라 어떤 명칭이 더 나올지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인격체와 인격체를 둘러싼 사회와 자연 환경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wholistic health나 whole person health도 사회나 자연 환경을 포함하여 넓게 정의할 수 있다. 전인 건강과 관련된 영어 명칭으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계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자료: Longst, health policy in U.S.A p. 2 재구성

<그림 1> 건강개념의 발전

삶의 질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든다는 것은 중요하며 타당성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삶의 질에 대한 관점이나 측정 지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하고 그 측정지표가 보다 친근한 것으로 건강의 개념과 지표를 연결하는 것이다. 몸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와 사회적 건강의 문항을 포함한 포괄적 건강상태의 지표 및 정신건강상태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개발되어 왔다(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1999:215-269). 그러나 이곳에서 에서 개발되는 지표는 인격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을 놓고 볼 때 인격체의 건강 중 몸에 편중되거나 마음과 몸을 연결시키지 않고 별도로 다루고 있어서 관련된 지표도 이 쪽으로 개발되어 있다.3) 만약에 인격체와

3) 이러한 건강측정 도구로 주요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질병 영향 지표 (Sickness Impact Profiles: SIP), 노팅엄 건강지표(Nottingham Health Profile :NHP), 맥매스터 건강지표 문항(McMaster Health Index Questionnaire:MHIQ), 신체건강지표(Physical Health Battery): PHB, 자기평가 우울 척도 (Self Rating Depression Scale: SDC), 사회적지지 행동의 지표(Inventory of Socially Supportive Behaviors:ISSB)이다. 질병영향지표는 1982년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보건 의료 평가를 위하여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다. 12분

그를 둘러싼 환경의 항목을 골고루 다루고 유기체와 환경과의 불가분성을 고려해서 인간과 환경의 건강에 대한 지표를 만든다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행복과 전인건강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무엇이 행복(happiness)인가? 아주 간단한 사전적 정의로서 행복은 안녕과 만족의 상태(state of wellbeing and contentment)이다(Webster's New College Dictionary, 1981). 봉사로서 행복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만족도나 객관적 조건의 향상을 의미한다. 행복의 의미로 안녕상태는 영어적역의 잘(well) 있는 것(being)이다. 잘있는 것은 잘 살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행복은 잘사는 있는 모습인 것이다. 무엇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인가? 잘 산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경제적 조건이 풍성한 것을 말한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고, 즐기고 하는 조건을 갖추면 잘 산다고 한다. 호화스러운 옷, 음식, 집, 자동차, 별장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잘 산다고 한다. 백만장자가 사는 모습에서 이러한 호화스러움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돈이 많다, 부자다” 라는 말로 요약된다. 경제적 조건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욕구 충족 수단을 돈으로 살 수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욕구 충족 수단은 그 범위가 엄청나게 크다. 먹고 자고 배설하기 위한 수단인 음식이나 집뿐만 아니라 육체적 안전을 위한 약이나 의료 그리고 사고를 위한 접대나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모두 돈으로 살 수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야말로 자신을 생존시키고 욕구 충족 수준을 높이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 사실 잘 산다는 것은 돈과 밀접한 관

아(직장, 여가, 감정, 정서, 집안생활, 수면, 휴식, 먹는 것, 보행, 기동성,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13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분이나 질병자체보다는 질병과 관련된 환자의 생활속의 기능성 장애에 대한 것이 문항을 이루고 있다. 노팅햄 건강지표는 1986년 영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강 개념에 기초하여 만든 것으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여섯가지 분야(이동성, 통증, 에너지, 수면, 정서적 반응, 사회적 고립)에서 38개의 단순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7가지 분야(직장, 집안돌보기, 사회생활, 가정 생활, 성생활, 관심, 취미와 휴가)에서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맥매스터 건강지표 문항은 1976년 캐나다에서 개발된 것으로 신체, 사회 및 정서적 기능성의 측정도구로 24개의 신체기능문항과 25개의 사회기능 문항 및 25개의 정서기능문항으로 이루어 진다. 문항수가 59개인데 그 이유는 어떤 문항은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체건강지표는 197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건강보험연구에서 신체적 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6가지 분야(자기간호, 이동성, 신체적 활동, 직업활동, 가사활동, 여가활동)의 기능상태의 측정에 초점을 둔 것이다. 자기평가우울척도 1965년 개발된 것으로 우울성질환을 규정하는 임상진단을 위해 사용되며 감정이입, 생리적 동반증상, 심리적 동반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사회적지지 행동지표는 1981년 개발된 것으로 4가지 분야(감정적지지, 수단적지지, 정보제공, 사회화)에서 4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 진다.

계가 있다. 돈을 통해 남을 행복하게 하는 분들도 있다. 김밥 장사를 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나 샴바느질을 해서 한 평생 모은 돈을 장학 사업을 위해 회사하는 사람도 있고, 모범적인 기업 운영을 통해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남을 돕고자 하는 기업가도 있다.

그러나 잘 산다는 것과 돈이 많다는 것을 동일한 위치에 놓을 수는 없다. 돈이 많은 사람도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경우이다. 자기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욕구충족을 위해 이웃을 해치거나 더 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돈에 얽힌 각종 비리 사건들이 그런 경우다. 이런 일로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갔던 것이다. 잘 산다는 것과 돈이 많다는 것은 동일한 차원이 아니다. 단지 돈은 잘 살기 위한 수단이다. 돈이 생명을 보장한다고 착각하며 살기 쉽다. 탐심을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이것이 행복의 첩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행복은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며 사람나고 돈났다는 정신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행복은 마음건강과 함께 한다.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안녕하십니까 평안한지요. 몸 건강히 잘 있는지요” 이렇게 서두를 꺼낼 때가 많다. 마음이 편하고 몸이 아프지 않으면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편지 서두에 “그 동안 돈 많이 벌고 있느냐” 이렇게 쓰지 않는다. 돈보다 “잘 지내느냐. 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말한대로 영어로 복지나 안녕을 나타내는 ‘wellbeing’의 직역은 ‘잘(well) 있음(being)’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복한지요?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로 의미이다. 돈이 좀 없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돈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뜻에서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전인 건강한 삶이다. 전인 건강(holistic health)은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나아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나 자연과의 관계가 건강한 것이다.

연기군민의 행복은 연기군민이 잘살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은 마음건강과 몸건강 사회건강 및 자연건강을 의미한다. 연기군 주민 구성원 대부분이 마음과 몸이 건강하며 주위사람의 관계가 좋으며 둘러싼 자연환경이 좋으면 연기군의 주민은 대부분 행복하며 이것이 바로 행복군이며 앞으로 시가 된다면 행복시가 된다. 행복시는 전인건강시인 것이다.

행정의 궁극목적은 국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전인건강하도록 돕는데 있다. 연기군 행정은 연기군민을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이다. 이런 궁극목적이 현실적인 여러 장애가 있을지라도 험한 현실적인 높은 파도를 슬기롭게 넘어가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등대를 발견하지 못하면 현실적 파도를 더욱 심하게 느낀다.

2. 건강도시의 역사와 개념

1) 역사

개인의 건강은 질병의 치료나 생활양식의 변화에 국한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만인을 위한 건강(Health for All, 1977), 알마아타 선언(Declaration of Alma-Ata, 1978), 오타와 헌장(Ottawa Charter, 1986)의 정신에 잘 나타나 있다, 만인을 위한 건강은 건강을 위한 자원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며 중요한 건강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건강은 가정, 학교, 직장 등 여러 생활현장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마아타 선언은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한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온전한 안녕상태(wellbeing)이며 이것은 기본권이라는 점과 건강의 가능한 높은 수준이 건강의 영역 외에 다른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천명했다. 오타와 헌장은 건강증진의 개념을 치료를 넘어서 모든 영역과 모든 수준에서 정책의제로 놓으며 정책 결정자가 그들의 결정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결과를 인식하고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드리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도시의 아이디어는 1984년 캐나다 Trevor Hancock에 의해 조직된 “건강의료를 넘어 (Beyond Health Care)”라는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이 회의동안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Leonard Duhl 교수가 도시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요인들에 대한 작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건강도시(healthy Cities)라는 강의를 했고 코펜하겐에 있는 유럽지역 사무실의 건강증진담당관인 Ilona Kickbusch 이러한 아이디어에 공감했고 이것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2 년후인 1986년에 건강도시가 출범하게 되었다(Duhl, 1999). 미국은 1987년 WHO의 건강도시 개념을 주창한 지도자

들에 자극받아 후 미국의 건강부서 공무원들은 미국에서도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촉진 하는 데 노력하기로 결정했고 캘리포포니아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콜로라도 프로젝트도 시작하게 되었다(Twiss, 2000; Adams, 2000).

WHO가 건강과 적극적인 건강정책(positive health policy)을 촉진하기 위해서 좋은 실제모범사례를 개발하기 위해서 유럽도시들을 위해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지원했다. 그 아이디어는 한시적인 것((1987-1992한정) 이었다. 시범사업을 11개 도시에 시작한 후에 WHO는 그것이 운동을 일으켜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럽에서는 처음 5년간 35개 건강시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 개국에서 국가적 연결망이 발전되었고 특별한 주제나 관심에 근거하여 12개 그룹의 시가 다중시 행동 계획(multi-city action plan) 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들은 그 시들이 일정한 수준의 건강에도달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프로젝트 대상의 시는 아니었다. 그 시들은 시들을 보다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이해했다. 그 프로젝트를 시행한 시들은 특정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왔다. 즉 시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정치적 결단의 수행, 시의 건강쟁점에 대한 가시적인 자료 제시, 조직부서간의 일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의 실행, 건강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단계적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만인을 위한 건강의 전략의 효과를 위한 WHO의 주요한 수단인 하나이다. 그것은 정치적· 전문적· 기술적 연합을 도출해내고 지역수준의 활동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나타내 주었다. WHO 건강도시프로젝트는 4기에 걸쳐 진행해 오고 있다.

제 1기(1987-1992)는 WHO 프로젝트 시의 네트워크에 있는 35개시를 포함했다. 강조점은 변화역군으로 행동하고 건강시를 위해 일하는 새로운 방법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조직과 부서들 그리고 지역사회 간에 협동적 노력을 허용하기 위해서 시내의 구조와 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강조했다. 참여하는 도시는 어떤 범위의 집단이 시 수준에서 만인을 위한 건강을 개발하는데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준 안을 개발해 왔다. 많은 시들은 처음으로 지방의 기획과정에 있어 건강을 반영하는 진정

한 통합적인 접근법을 개발해왔다.

제 2기 (1993-1998)는 제 1 기에 포함하지 않은 13개시를 포함하여 39시를 포함했다. 이 단계는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ic policy)과 종합적인 도시 건강계획에 대한 강한 강조와 함께 보다 활동 지향적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만인을 위한 건강을 목표로 하는 시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편 공평성,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쟁점에 대처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종합적인 시 건강 계획(comprehensive city health plans)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제 3기(1998-2002)는 50개시를 포함하였다. 중요한 목적은 건강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기획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형평성,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발전이었다. 시들은 감시와 평가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서 체계적이어야 할 것이 요구되었다.

제4기(2003-2007)는 두 가지 요소를 강조했다. 하나는 종합적인 방법으로 건강개발에 대처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파트너십과 건강결정요인과 및 거버넌스에 강조점을 두었다. 다른 하나는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와 건강도시기획(healthy urban planning)의 주요 주제와 및 건강한 노령화(healthy ageing)의 보조주제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WHO와 작업파트너가 될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2000-2005년에 보다 강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3기에 비해서 4기에서 WHO 건강도시네트워크에 들어가고 건강도시로 지정받는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16년이 지나면서 건강시는 노하우(know-how)의 크고 실질적인 체제를 확립했다. WHO와 함께 참여하는 도시와 국가적인 네트워크는 상호부문간의 협동, 지역사회 개발 발상, 취약집단의 욕구에 대한 대처, 생활방식과 환경건강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프로그램과 성과를 개발하고 실행해왔다.

2) 개념

건강도시(healthy cities)는 도시건강(urban health)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역동적 개념이다. 도시건강은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의 활동이 보다 증가되는 적실성있고 도전적인 분야이다. 많은 연구들과 보고들이 빈곤, 폭력, 사회적 소외, 공해, 낙후된 주거, 노년과 젊은 층의 불만, 노숙자, 잘못된 국토

계획, 참여와 불평등요구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결핍과 같은 증대되는 건강 도전을 강조한다. 유럽지역의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가치를 보여주어 왔다. 건강도시프로젝트는 분명한 정치적 결단을 포함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수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에 기초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메커니즘이다.

건강도시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계속적으로 조성하고 개선하며 도시민이 삶의 모든 기능수행과 최대한의 잠재력 개발에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이다. 4) 건강도시는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갖는다(<http://www.euro.who.int/document/E56270.pdf>).

<표 1>건강도시의 특질

| 특 질 |
|---|
| 1. 주거환경을 포함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
| 2. 현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체제 |
| 3. 강한 상부상조적이며 비차취적인 지역사회 |
| 4. 시민의 삶과 건강 및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시민이 높은 수준의 참여와 통제 |
| 5.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전과 직업)의 충족노력 |
| 6. 다양하고 폭넓은 접촉의 기회와 교류 및 의사소통을 통해 넓고 다양한 경험과 자원의 접근 |
| 7. 다양하고 활력있으며 혁신적인 시의 경제 |
| 8. 그 시의 과거와 시 거주자의 문화적 생물학적 유산과 함께 다른 집단과 개인들의 연결을 격려 |
| 9. 이전의 특성과 양립하고 고양할 수 있는 형태 |
| 10.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국민건강 및 질병치료 서비스 |
| 11. 고도의 건강상태(높은 수준이 적극적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 |

4) " A healthy city is one that is continually creating and improving thos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and expanding those community resources which enable people to mutually support each other in performing all the functions of life and in developing to their maximum potential."

자료: Twenty steps for developing a Healthy Cities project p.9.

Ⅲ. 건강도시의 전략

건강도시는 도시자체를 의미하지만 건강도시는 하나의 새로운 관점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건강도시 접근법(healthy cities approaches)을 의미한다. 이 접근법은 국민건강문제에 대한 일차원적이고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접근법이 아니다. 이것은 건강의 다양한 결정요인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이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총체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동하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건강자원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형평성문제와 도시빈곤, 취약계층, 나쁜 건강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근본원인, 경제 회생과 도시 개발노력에 있어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건강도시프로젝트는 도시건강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정책과 기획 및 해결책을 제공한다. 특히 정치적 결단과 제도변화 및 역량형성 그리고 파트너십에 기초한 계획과 구체적 행동을 통하여 건강발전에 지방정부를 관여하게 한다.

1. 건강도시의 프로젝트의 특징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국민건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옹호하여 시정부가 지역의 건강정책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http://www.euro.who.int/document/E56270.pdf>).

1) 건강에 대한 결단 (Commitment to health)

건강도시프로젝트는 건강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인식하여 건강의 총체적 성격을 확신한다.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에 우선권을 둔다. 건강은 도시 내에 개인과 집단의 협동적 노력에 의해 창조될 수 있다.

2) 정치적 의사결정(Political decision-making)

이 프로젝트는 국민 건강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주택, 환경, 교육, 시정부의 사회봉사와 다른 프로그램은 도시 안의 건강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프로젝트는 시의회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의 기여를 강화한다.

3) 부문상호간 활동(Intersectoral action)

이 프로젝트는 부문 상호간의 활동을 만들어 준다. 부문 상호간의 활동(intersectoral action)은 건강부문 외부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이 건강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그들의 활동을 변화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휴식을 위한 충분한 녹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물리적 적합성을 지지하는 도시계획은 부서상호부문간의 활동의 예이다. 건강도시프로젝트는 시조직부서와 다른 기관들이 그러한 행동에 그들의 공헌을 함께 협상하게 하는 조직적 메커니즘을 만든다.

4) 지역사회 참여 (Community participation)

사람들은 삶의 양식의 선택, 건강서비스의 사용, 건강이슈에 관한 관점, 지역사회집단의 일을 통해서 건강에 참여한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한다. 프로젝트 결정과 시의 부서나 다른 조직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단을 제공한다.

5) 혁신(innovation)

이 프로젝트는 혁신과정을 통하여 일한다. 상호부문간의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에 대한 일정한 탐색을 요구한다.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은 변화를 지지하는 분위기내에서 혁신의 기회를 만드는 능력에 달려 있다.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방법에 관한 지식을 확산하고 혁신에 대한 유인을 만들어 주고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험하는 사람들의 업적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혁신을 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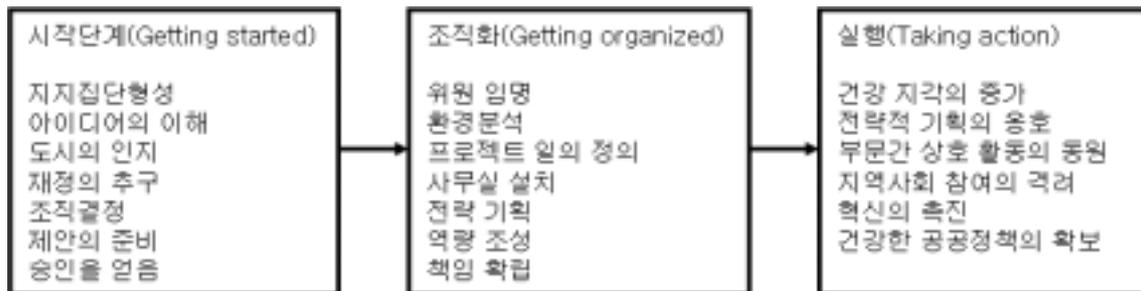
6)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결과는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이다. 건강도시프로젝트의 성공은 건강을 위한 구체적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시 행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반영이 된다. 프로젝트는 가정, 학교, 직장, 도시환경의 다른 영역이 더 건강한 생활환경이 될 때 그 목적이

성취된다. 이 프로젝트로 통해 촉진된 정치적 결정, 부문상호간의 활동, 지역 사회 참여, 혁신은 건강한 공공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한다.

2.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단계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은 다음 단계로 구성된다.



자료 : Twenty steps for developing a Healthy Cities project p. 50.

< 그림 2>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개발의 단계

시작단계는 도시프로젝트 개발의 비공식적 단계이다. 그것은 일곱 하위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한 두 명의 사람이 그들이 속한 시가 건강도시프로젝트를 통해서 육성될 수 있는 국민건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점을 결정한다. 이러한 지지집단의 형성은 프로젝트 개발을 함께 할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으로 출발점이 된다.

즉, 둘째, 아이디어의 이해는 건강도시운동의 부분이 되는 원리와 전략 및 실재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지집단이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셋째, 도시를 잘 알아야 한다. 즉, 그 시의 중요한 건강문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지지집단,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외회의 정치적 맥락, 지방정부의 행정적 맥락, 공급자의 건강 의료체계의 관심, 시민집단의 위치와 영향, 프로젝트개발에 발견될 수 있는 정보원, 기존의 정부나 지역의 프로그램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기업과 산업 및 노동조합의 프로젝트에 대한 태도들이 그 내용이다.

넷째, 재정의 탐색이 중요하다. 지지집단은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비용을 준비해야 하고 초기 재정의 가능한 원천을 정해야 한다.

다섯째, 그 시의 조직의 계층 내에서 프로젝트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선택이다. 그것이 그 프로젝트의 조직구조와 행정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섯째, 공식적 프로젝트 제안의 준비는 지지집단이 건강도시 전략의 그 시의 적용과 함의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잘 이해했을 때 시작되어야 한다.

일곱째, 시작단계의 중요한 역할은 프로젝트제안의 승인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의 지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제안을 시의회에서 승인함으로써 그 단계가 마무리된다. 이러한 단계는 프로젝트 아이디어의 이해와 수용, 아이디어를 도시생활의 현실에 대처하고 정치적 인정을 얻는 현실적 안으로의 전환을 포함한다. 건강도시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조직화 단계는 시의회가 프로젝트 제안을 승인한 후에 시작되어 그 프로젝트가 효과적인 국민건강 창도자가 될 능력을 가질 때까지 계속된다. 이 단계는 일곱 하위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프로젝트가 승인된 후 가능한 빨리 지도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임명되어야 한다. 모든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지도위원회를 가져야 하며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효과적인 위원회는 잘 정해진 책임, 구성원의 대표성, 효율적인 작업구조, 효과적인 조직, 간소한 절차를 가져야 한다. 우선 지도위원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과 활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그 프로젝트의 철학과 전략의 형성, 프로젝트 제안의 수용에 대한 시의회의 설득, 시민집단의 프로젝트 참여 옹호,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의 확보, 지역사회 집단의 건강쟁점에 참여유도, 소위원회 운영과 프로젝트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지도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시의회와의 효과적인 정치적 관계와 잠재적인 파트너의 대표성을 위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규모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15명과 25명 사이이다. 그 다음 조직적으로 지도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와 작업집단을 두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초점이 되는 지도위원회는 궁극적으로 리더십의 조정과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다. 이 위원회를 돕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소위원회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인사, 재정, 기획과 구매 결정을 포함하는 관리와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본다. 다른 하나는 그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특별한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보고서를 만든다.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며 지도위원회에 건의한다. 끝으로 지도위원회는 일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간단하고 분명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둘째, 지도위원회는 프로젝트의 전략개발의 기초가 되는 환경의 분석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환경을 분석하는 목적은 그 프로젝트가 의회 시정부 기업 지역사회, 의료시스템 등의 네트워크 내의 조직의 명령과 체제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작동하도록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지도위원회는 그 프로젝트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의 분명한 진술을 준비하여 채택해야 한다. 그들의 유일한 역할은 개인과 집단들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증진에 대한 오타와 현장에 잘 나타나 있다. 건강에 대한 창도(advocate)를 통해서 건강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고 형평성의 확보를 통해 건강상태와 기회 및 자원의 차이를 감소하는 것을 가능케 하며(enable), 건강부문 외에 정부 사회경제부문, 공익시민단체, 산업체나 언론매체등과 조정된 활동을 통해서(mediate) 건강증진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넷째, 모든 성공하는 프로젝트는 인사와 재정이 확보된 별도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프로젝트 사무소는 지도위원회의 일을 지지하고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무기가 된다. 사무실 구성원 수는 도시 인구 25만 명당 최소한 5명은 되어야 한다. 이 숫자는 프로젝트 일의 다른 면을 다루고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유지하는데 본질적이다. 코디네이트는 그 프로젝트를 잘 가동케 하는 큰 자산이다. 그는 프로젝트의 계속성과 활력을 주고 시정부내에서 지역사회에 걸쳐 중요한 지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건강, 환경, 도시개발과 전략적 사고에 강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프로젝트는 분명한 전략을 준비해야하고 지도위원회와 시의회와 그리고 프로젝트 파트너와 함께 토론되어야 한다. 프로젝트는 분명한 전략을 준비해야하고 지도위원회와 시의회와 그리고 프로젝트 파트너와 함께 토론되어야 한다. 프로젝트는 자신의 일의 본보기를 통해 시정부내에 전략적 기획을 촉진할 수 있다.

여섯째, 지도위원회는 그 프로젝트가 숙련된 인사와 충분한 재정 및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역량 조성은 코디네이트와 함께 일하는 지도위원회의 지속적인 책임이다.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존

의 자원을 평가해야 하고 예산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3-5년에 걸쳐 재정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곱째, 이 프로젝트는 책임을 촉진할 분명한 전략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영역에 효과적인 주창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책임성은 지도위원회에 의해 특히 검토되어야 할 건강도시 프로젝트 리더십을 위한 중요한 영역이다. 요컨대 조직화 단계동안 조직구조와 행정메커니즘이 리더십의 기초와 조직부서간의 활동, 지역사회 참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다.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람, 돈, 정보가 이 때에 발견된다.

실행단계는 프로젝트가 지속되는 한 그 프로젝트가 효과적인 국민건강 옹호자가 될 충분한 리더십과 조직역량을 가질 때 시작된다. 그것은 각기 자신의 결과를 가져오는 여섯가지 영역의 활동을 포함한다.

첫째, 건강인지 증가의 노력과 건강이슈의 이해는 포괄적이고 거시적이며 일관되고 계속적이어야 한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만인을 위한 건강의 원리에 대한 보다 큰 지각과 그것의 실제에 적용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작동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둘째, 프로젝트가 시정부로 하여금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에 대한 야심적이고 진취적인 접근을 격려하는 전략적 건강기획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평가와 프로젝트 계획안, 건강영향연구, 도시기획의 영향이 사용될 수 있다.

셋째, 건강도시의 중요한 책임은 상호부문 활동을 동원하는 조직구조와 행정체제를 창설하는 것이며 이것을 우선순위 범주에 넣어야 한다.

넷째, 사람들은 삶의 양식의 선택이나 건강의료의 사용을 통해 건강에 참여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관리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자발적 조직을 통해서 자조집단이나 이웃의 단체 등을 통해서 참여한다.

다섯째, 건강한 공공정책을 위한 기본 작업을 함에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은 여러 영역에 있어 혁신을 이루는 능력에 의존한다.

여섯째, 건강인지, 부문간의 활동, 지역사회 참여, 전략적 기회, 혁신은 건강한 공공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 모두 기여한다. 즉 나머지 다섯 가지 영역의 활동이나 결과 모두가 건강도시 프로젝트로 하여금 건강한 공공정책의 효과적인 주창자가 되도록 하는 조정된 방식으로 함께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건강도시프로젝트는 국민건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지지를 형성하고 시 전반에 걸쳐 있는 조직을 건강의 능동적인 파트너가 되게 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시행정 전반에 걸쳐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다른 파트너에 의해 수반되는 건강한 공공정책이다. 건강도시 프로젝트들은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실험적이며 시행착오에 의해 성장한다. 때때로 그것들은 빠르게 발전하고 조건이 복잡하고 모순될 때는 때때로 느리게 성장한다. 각각의 건강도시프로젝트는 그것이 작동하는 변화하는 환경의 미로를 통해 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다른 것들에서 성공해온 방법들의 이해에 기초하여 주의 깊은 판단을 요구한다. 프로젝트 발전의 단계들은 문제의 가능한 원천과 다른 문제들을 위해 작동해온 해결책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시정부에서 유일한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국민건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주창하면서 지역 건강정책에서 혁신과 변화를 촉진한다. 그것은 유럽의 만인을 위한 건강 (Health for All :HFA) 전략을 도시 상황에 실천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탐구한다. 그것들은 지역사회와 다른 집단의 관심을 인식하고 중재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리더십을 제공한다.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결과는 건강한 공공정책이다. 즉 건강한 도시 프로젝트는 건강을 위한 삶의 현장(settings)을 창조하는 정책이 시 행정 전반에 영향력이 있는 정도로 반영이 된다. 그 프로젝트는 가정, 학교, 직장, 도시 환경의 다른 지역이 더 건강한 생활 터전이 될 때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정치적 결단, 상호부문간의 활동, 지역사회 참여와 혁신은 건강한 공공정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일한다. 도시건강 프로젝트는 건강이 모든 정책의 영역에 반영이 되는 건강한 공공정책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건강도시프로젝트의 결과는 위의 <그림 3>과 같다.



자료: <http://www.euro.who.int/document/E56270.pdf>

<그림 3>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6섯가지 결과 영역

IV. 건강도시의 현황

1. 유럽의 건강도시

건강도시운동은 지금 세계전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지역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역사와 경험 및 사례들이 가장 풍부하다.

유럽의 국가 건강도시네트워크(national Health Cities Network)은 건강도시의 참여에 대한 시의 강한 요구의 자발적 반작용으로 발전했다. 1987년 WHO가 11개 시범도시와 함께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그것은 급격히 팽창했고 크게 가시화 되었다. 오늘날 국가 건강도시네트워크는 WHO 유럽 지역에서 29개 나라에서 1300 시와 마을 및 조직이 참여했다.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블란서와 독일의 경우를 소개하려 한다 (<http://www.euro.who.int/document/e82653.pdf>).

1) 블란서

인구 6천 20만, 도시인구 75%인데 회원도시 45개로 국가건강도시네트워크에 9%가 가입했으며 1987년에 시작이 되어 1990년 법적인정을 받았고 조직형태는 협회(association)이다.

건강도시네트워크는 1987년에 창설되었고 그 당시 8개 도시가 가입하였다. 이들 도시 중 4개는 각 지역에 건강도시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중계도시의 역할을 떠맡았다. 1990년 이 네트워크는 14 회원시로 구성된 법적 협회(association)로 창설되었다.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WHO의 만인을 위한 건강 정책을 지역적으로 실행하는데 시들을 돕는 것이고 도시들 간에 상호교류를 위한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특히 건강의 불평등의 감소와 건강의 사회적 환경적인 결정요인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것의 특징은 정치가들의 직접적인 리더십이다. 각 시는 네트워크의 총회에서 그 시를 대표하기 위한 2사람의 의원을 지명한다. 이 정치가들은 마찬가지로 건강도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역적으로 진다. 지역적인 정치가들을 포함하는 13 회원시로 구성되는 지도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네트워크의 전략적 리더

심을 제공한다.

그 협의체는 2002년 12월 건강부(Ministry of Health)와 3년의 계약을 했다. 그 기간동안 그 협의체는 국민건강 우선순위에 대한 지역적 대응을 하기 위해 건강부서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한다.

시의 지도위원회는 그 프로젝트의 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건강부 위원회와 일한다. 즉 암과 영양에 대한 국가적 프로그램의 지역적 실행, 건강의 사회결정요인에 관련된 건강프로필이 개발,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다. 그 협의체는 지방 지역 국가적 조직과 새로운 파트너십의 개발을 위한 시험적 근거로 기여할 것이다. 그 계약은 협의체로 하여금 모든 수준에서 합법적인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보여질 수 있게 한다. 건강부는 분권화된 재정체제에서 이러한 일을 위해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2) 독일

인구 8천 2백 만 도시인구 88%, 회원시 58개시로 국가건강네트워크 27% 차지하며 1989년에 국가건강도시 네트워크를 창설했으며 조직형태는 협의회(association)이다.

11개 도시가 1989년 독일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프랑크푸르트에서 창립했다. 오늘 날 약 2천 2백 만이 살고 있는 58개의 회원도시를 갖고 있다. 베를린 함부르크, 무니, 콜로네, 드레스덴과 두셀도르프를 포함한 주요한 도시들이 네트워크의 일부이다. 네트워크의 중요한 목적은 건강도시에 정치적 결단을 강화시키고 회원도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또 다른 목적은 건강도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즉 일년 3,4 차례 발행하는 뉴스레트, 건강도시웹사이트, 상호부문 협력의 우수성을 위한 모범사례로 건강도시 수상(1999년), 좋은 모델의 모범사례의 기록, 직장의 건강증진과 같은 쟁점에 대한 작업집단, 건강평가나 시민참여와 같은 쟁점에 대한 워킹샵, 국제건강도시심포지움, WHO 4가지 지역 네트워크의 일, 워킹샵, 회의에서 좋은 실제모델의 배포는 경험을 나누는 구체적 방법이다.

구성원의 조건은 공식적인 회의 결정을 통해 네트워크는 9가지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구성원인 도시의 경험과 변화는 조건을 반영하여 계속 업데이트 되어왔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회의 결의에 의해 협의체에 가입, 건강도시 사무실을 공식적으로 설치, 상호부문

간의 건강정책을 개발, 건강영향평가의 실시, 지역사회의 포함, 건강에 대한 보고서, 협의체활동의 참여, 정보교환, 4년마다 협의체에 대한 경험과 성공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 네트워크 사무국은 함부르크의 건강당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 총회는 5명의 정치적 대표와 도시내의 자조집단의 5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로 구성된다.

협의체의 회원 도시들은 건강증진학교, 건강증진병원, 건강증진 회사와의 연계 21 활동들과 협력한다. 그 협의체는 또한 시민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에 높은 가치를 둔다. 예를 들면 지역 자조집단과 시민활동위원회들은 네트워크의 총회에 대표되어 왔다. 협의체와 건강사회쟁점에 대한 시와 마을의 연합은 동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1999년 콜로그니 선언을 만들어 냈다. 국제적 수준에서 그 네트워크는 1996년 이후 오스트리아 건강도시네트워크와 협력해왔고 슬로베니아 건강도시 네트워크와 협력 해왔다. 네트워크는 현재 독일의 진보된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 되어 왔다.

2.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도시

건강도시 연맹은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도시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기초해 만들어진 네트워크이다. 회원들은 도시정부, 국가, NGO, 사부문, 학술단체, 국제기관이 대상이 된다. 건강도시 연맹은 2003년 10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의 서태평양지역 WHO 사무소에서 개최된 첫 번째 모임에서 창설되었다. 첫 모임의 참여자들은 시, 국가 코디네이트, NGO,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학술연구소들이었다. 2004년 10월 12-14일 말레이시아 사라와 쿠칭시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그 시의 시장, 도지사, 시공무원, 국민건강과 도시계획 전문가, NGOs, 학술기관, 국내외 지도자들이 건강도시 연맹을 창설을 축하하기 모였다. 이 연맹은 건강도시 접근법을 지지하며 건강도시 연맹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 구성도시나 조직들이 건강도시 접근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고무되기를 원한다. 한 시나 한 사람에 의한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성원들이 그러한 경험을 쌓으면 시나 마을의 도시거주자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큰 도구가 된다.

그 연맹은 짧은 역사와 대조적으로 서태평양지역의 건강도시 활동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태평양지역 시와 다른 집단들이 건강도시프

로그램(healtht cities program)을 시작해왔다. 그 지역에서 건강도시 프로그램을 가진 시들과 집단은 100곳 이상이 되었다.

<표 2>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의 현황과 홈페이지

그 연맹은 시와 도시 NGO, 대학, 국가기관, 사기업 부문 등으로부터 원서를 받는다. 보다 많은 시들과 조직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는 정회원으로 그 외 단체는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 29개국 중에 9개국에서 < 표 5> 와 같이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한 시들을 갖고 있다.

중요전략을 결정하는 지도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 구성이 되는 도시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지도위원회에 준회원도 포함이 된다.

우리나라는 서울시가 실행위원회(working committee)에 소속되어 있다.

<표 3> 지도위원회 구성원

| 국가 | 도시 및 관련 조직 | 회원구분 |
|-------|---|------|
| 일본 | Hirara | 정회원 |
| 말레이시아 | Kuching(Chair) | 정회원 |
| 필리핀 | Marikina | 정회원 |
| 중국 | Suzhou | 정회원 |
| 몽고 | Ulaanbaatar | 정회원 |
| 호주 | Healthy Cities Noarlung(NGO/NPO) | 준회원 |
| 말레이시아 | National Coordinator of Healthy Cities | 준회원 |
| 중국 | The Health Promotion Department of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학술기관) | 준회원 |

3. 건강도시 타이베이

| 국가 | 시 | 홈페이지 |
|-------|--|---|
| 호주 | Townsville City | http://www.townsville.qld.gov.au |
| 캄보디아 | Phnom Penh Municipal Government | http://www.phnompenh.gov.kh/ |
| 중국 | Kwai Tsing District, Hong Kong SAR | http://www.kwaitingshsa.org.hk |
| | Macao SAR | www.ssm.gov.mo |
| | Sai Kung District, Hong Kong SAR | http://www.tko-hc.org |
| | The City of Suzhou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Convener and Chair City, 2006) | http://www.healthycity.com.cn |
| | Zhangjiagang City, Jinagsu Province | |
| 일본 | Fukuroi City | |
| | Hirara City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 http://www.city.hirara.okinawa.jp/ |
| | Ichikawa City | http://www.city.ichikawa.chiba.jp |
| | Owariasahi City | http://www.city.owariasahi.aichi.jp |
| | Tajimi City | http://www.city.tajimi.gifu.jp |
| 한국 | Busanjin-gu, Busan Metropolitan City | http://www.bsjin.go.kr |
| | Dobongu-Seoul | http://www.dobong.go.kr |
| | Gangnamgu-Seoul | http://www.healthpia.gangnam.go.kr |
| | Geumsan County | http://www.geumsan.go.kr |
| | Changwon City | http://www.changwon.go.kr |
| | Jeju-do | http://www.jeju.go.kr |
| | Namhae-gun Gyeosangnam-Do | http://www.english.namhae.go.kr |
|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http://english.seoul.go.kr/ |
| | Seoungdong-gu Seoul | http://www.seoungdonggu.seoul.go.kr |
| | Wonju City | http://www.wonju.go.kr |
| 말레이시아 | Kuching, Sarawak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The First Convener and Chair City) | http://www.healthycity.sarawak.gov.my/ |
| 몽고 | Ulaanbaatar City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 |
| 필리핀 | Marikina City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 http://www.marikina.gov.ph/ |
| | San Fernando, La Union | http://www.sanfernandocity.gov.ph/ |
| | Tagaytay City | |
| | Tagaytay City | http://www.valencia.gov.ph |
| 베트남 | Hue City | |

건강도시 타이페이는 건강도시연맹에 공식적으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건강

도시를 표방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타이완의 수도인 도시이다. 타이완의 건강도시는 10가지 특성으로 요약된다.

<표 4> 건강도시 타이베이의 특성과 내용

| 건강도시의 특성 | 내용 |
|--------------------|---|
| 안전함(Safe) | 폭력범 30%감소 정도와 강도 율 22.3% 감소,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복도, 안전과 화재 방지 지진계보급, 세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 |
| 청결함(Clean) | 쓰레기봉지 수거정책 쓰레기 감축 생활쓰레기 감축, 재활용품 증가, 수질정화 감시, 세계수준을 맞추기 위한 정수기 물,하수체계의 확장 |
| 현대적(Modern) | 세계수준의 기업가와 기술자들에게 매력을 줌, 아시아의 테크노밸리의 잠재력을 가시화 노력(Neihu의 기술단지과 Nangang의 소프트웨어 단지) |
| 친근함(Friendly) | 빈자 봉사 데스크(Indigenous Peoples Service Desk) 설치,빈자연어 등지(Indigenous Peoples Language Nest),빈자문화주제공원(Indigenous Peoples Cultural Theme Parks), 해외노동자들을 위한 건강센터, 외국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센터, 외국거주민 봉사센터와 함께 이중언어 환경조성 |
| 행복함(Happy) | 취약계층의 복지보호 노력, 독거노인을 긴급전화체계 (Emergency Call System for Elders Living Alone), 가정안전시찰팀 (Household Safety Inspection Teams), 아이보는 사람을 위한 지지 및 탐색 체계(Support and Monitor System for Babysitters), 출산시 남편대동 격려, 여성을 위한 화장실수 증가, 중하위 계층을 위한 무이자 대여 |
| 문화적(Cultural) | 사적지를 복원(타이베이 역사관,타이베이 주거지, 붉은 극장 등), 타이페이 축제, 전통예술축제, 어린이 예술축제, 타이베이 국제시 축제, 레미제라블 등 세계적인 오페라 개최, 타이베이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 |
| 편리성(Convenient) | 지하철의 성공, 연착률 아주 낮음(세계에서 두 번째), 자전거 도로(100마일 연말 준공), 무전선도시(내년 1월 준공), 지하철 역에서 인터넷 사용 |
| 활력있는(Vital) | 의료를 혁신하기 위해 호텔식 서비스형태로 10개의 시립병원 운영(인터넷 접속, 음식제공, 패키지 서비스, 운동시설 등),의료서비스의 재조정(4000병상의 타이베이 연합시 병원으로 통합 추진),만성질환을 위한 40개의 약국 지정, |
| 발랄한(Lively) | 육체적으로 활기찬 도시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 행사의 참여, 2개 지역(Zhongshan and Beito) 운동센터를 인정 2년안에 8 개추가, 46개의 학교수영장의 건설 또는 수리, 세계의 국제마라톤 대회 개최 |
| 지속가능한(Sustainable) | 타이완의 1 %(272평방킬로미터)의 땅에 12% (263만명)의 삶. 인구밀도와 자연자원의 유지가 어렵지만 자연환경(Datan Mountain and Yangmingshan)을 잘 보존 . 신선한 과일 차를 따고 보우트 놀이를 즐기고 야생 새 공원에서 새 감상 , 1000 개의 공원, 녹지 공간 비율 증가 |

자료: Seoul World Mayors Forum, "Taipei Building Healthy City"(2006)

4. 우리나라의 건강도시

우리나라는 국가건강도시 네트워크(national healthy cities network)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⁵⁾

과천이 건강도시로 처음 시작하여 사업을 진행했고 서울시, 창원시, 원주시, 부산진구가 WHO 서유럽지역 건강도시 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1) 과천시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건강도시프로젝트를 맨 먼저 추진했던 도시가 과천이다. 과천시에서 내건 건강도시 사업추진의 목적은 건강을 해치지 않고 건강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즉 단순히 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소를 발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건강이 유지되고 증진되며 건강을 찾게 되는 일정한 장소 및 영역(settings)을 조성하여 시민에 대한 과거의 사후치료,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복지화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건강수명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객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96년 「건강도시(Healthy City)를 위한 건강증진 실현방안 - 과천시를 대상으로 -」라는 연구를 통해 건강도시구축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과천시 건강도시사업 시행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 연구는 과천시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건강증진센터의 설립 및 운영, 건강 취약대상인구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에 관한 것이었다. 1997년에는 과천시 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통하여 과천 시민의 환경 및 보건문제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여 과천 건강도시 21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건강도시 과천 21계획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 세미나에는 이성환 과천시장, 오대규 보건복지부 보건국장 외에도 한상태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총장과 Steve Tamplin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담당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WHO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세미나 연세대 보건대학원과 예방의학과 교수들이 발제를 했다.⁶⁾ 앞서 시행된 기초조사와 세미

5) 국가건강도시 네트워크를 위해 비공식적인 준비모임 한 차례 있었고 6월 23일 공식적 준비모임이 출발하며 앞으로 10월 공식적인 창립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6) 이 세미나를 통하여 김일순 교수의 과천시 건강도시 계획 추진 배경과 의의, 채영문 교수의 과천시 건강도시 기초조사 분석결과 발표, 서일 교수의 과천시 건강도시 계획 추진방향등의 발제가 있었다.

나의 결과를 토대로 건강도시 과천 21 프로젝트의 중장기 계획이 최종적으로 수립되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건강도시 사업이 다음표에서처럼 추진되었다.

<표 5> 과천시 건강도시프로젝트의 내용

| 사업년도 | 사업내용 | 비고 |
|-------|---|------------|
| 1998년 | ‘건강생활정보지 사업-건강도시과천’, 금연교실 사업, 영양 및 비만관리교실 사업, 라마즈, 여성건강교실 사업, 청소년 건강수준측정 사업, 정보체계개발 사업,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정보통신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 | |
| 1999년 | 건강생활정보지 사업- ‘건강도시과천’,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보건소 정보체계 개발 및 방문간호사업, 흡연, 음주,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영양관리사업, 여성건강교실 사업, 과천시민 운동프로그램 사업, 과천주민의 건강수준 평가사업 . WHO 건강도시 워크샵 참석(말레이시아의 말라카) | 새로운 사업의 추가 |
| 2000년 | 상동의 사업 . 과천 건강축제 | 동일사업에 추가 |
| 2001년 | 상동의 사업. | 동일사업 |
| 2002년 | 상동의 사업 | 동일사업 |

2) 서태평양 지역 정회원의 도시

서울시, 창원시, 원주시, 부산진구는 연맹에 가입한지 1년 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진행되어온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기는 시기 상조다. 오히려 그동안 추진한 사업과 함께 앞으로 사업추진방향이나 담당부수 및 연맹가입일자를 중심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표 6> 4개 건강도시의 사업의 특성

| 정회원도 시 | 각도시의 추진내용과 방향 | 담당부서 | 연맹가입 |
|------------|--|---|------------|
| 서울시 |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 1차 건강도시 자문회의, 건강도시 전문요원 채용(외국인 포함), 건강도시 2차 자문회의, 하이서울 건강 엑스포 개최, 건강도시 연맹 가입. 환경:청계천 복원 뉴타운 개발, 서울 숲 가꾸기, 한강 가꾸기, 서울그린트러스트운동, 폐기물 재활용운동, 학교공원화. 주거: 시민 주거 복지 수준 향상, 노후 불량주택 안전관리, 서울의 야간 경관개선,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교통: 버스노선, 운영체계 개선, 승용차 자율요일제 시행, 지하철의 안정성 패적성, 도심자전거 도로 연계체계, 도심주택가의 주차수요관리. 경제: 서울형 신산업 인적 자원개발, 세계일류 패선도시 육성, 창업촉진 활성화, 기업부자 환경개선, 소비자활동 강화, 안전: 안전도시만들기 추진,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 도시 안전취약 구조 개선,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 보건복지: 서울여성센터 건립, 장애인 이동권보장,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부정 불량식품 관리 강화, 생활영역별 건강증진프로그램. 문화: 서울 국제 축제 개최, 도심 시민광장 조성, 역사와 전통문화 보호, 시민체육시설 확충. 건강도시 시범사업으로 성동구, 도봉구, 성북구, 강남구 선정, 안전도시시범사업 마포구 송파구 선정 | 서울시 복지건강국 보건과장, 건강도시추진반장, 건강증진담당, 건강안전담당, 건강도시담당자 | 2004.6.15. |
| 창원시 | 건강도시 프로젝트 심포지움 개최, 창원 건강 계획 2020 용역의뢰, 건강도시프로젝트 추진반 해외연수, 건강도시 연맹가입, 가입기념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물리적 환경의 개선, 깨끗한 음용수 공급, 운송체계의 개선, 주거정책, 감염성 질환, 식중독 그리고 예방접종, 음주습관의 개선, 금연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증진, 젊은 이들의 건강 증진, 건강도시 창원 실행계획 작성, 건강도시 창원 대 시민 보고회, 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건강도시 홍보, 교육자료 개발 | 창원시 보건소 건강도시팀 | 2004.6.25 |
| 원주시 | 건강도시 연맹 가입, 건강도시프로젝트 개발, 첨단의료산업 특구선정, 시민건강의 날 행사, 시민건강증진행사, 원주국제걷기 대회, 시민건강체험행사, 웰빙체험행사, 건강도시 국제세미나 개최, 건강도시 CI 제작, 시민의 생활습관개선, 음주흡연을 감소시켜,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취약자 의료시설 확충, 깨끗하고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 운송체계의 개선, 주거정책의 개선, 안전사고 예방, 도시공원가꾸기사업, 환경친화형 환경정비, 하수처리 시설 확충, 한방 생명과학, IT 중심 보건사업 육성, | 기획예산과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2004.6.24 |
| 부산진구 | 건강도시 프로젝트 학술용역사업, 건강도시 선언문 제정 및 선포, 건강도시 프로젝트토론회, 건강도시시연맹 가입,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 건립 및 운영,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위한 시범사업 운영, 건강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구민 테마 건강걷기, 부산진구 건강체험 전시회 개최, 건강도시 심포지움 개최, | 부산진구 보건소 건강도시관리담당 | 2004.10.12 |
| 금산군 | 57회 충남제전 건강도시 이미지(33-30) | | 05.7.12 |
| 제주도 | 선포식과 건강과 음식 테마로 한 국제 이틀간 계속 예정(10.15-16) | | 05.7.12. |
| 서울시 도봉구 | 영역별 건강도시사업 (시범 자치구) | | 05.7.12. |

V. 연기군의 적용을 제안

1. 건강도시방향의 합리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1) 합리성 근거

(1) 건강도시는 역사적 산물

첫째, 건강도시는 유럽과 미국에서 일찍이 건강도시 프로젝트와 그 운동을 통해서 많은 도시에 적용하여 도시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과를 나타내어 왔다는 점이다.

(2) 건강도시는 행복의 핵심개념

건강도시가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핵심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3) 기존 행정서비스의 최대화와 계승.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최대화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의 궁극목적인 주민의 행복 즉 전인건강과 부합한다는 사실이다. 건강도시의 관점은 연기군은 물론 다른 모든 도시에서 지향할 방향이다. 표에서 전인건강의 시각에서 연기군의 업무성과의 분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연기군, 2005).

<표 7>전인건강시각의 조직업무성과 분석의 예

| 조직차원 | 업무성과(2004) | 건강차원 |
|--------|---|-----------------|
| 기획감사실 |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확립평가, 장학사업확대방안강구 | 사회건강, 마음건강 |
| 종합민원실 |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기반 조성, 쾌적한 민원실 | 사회건강, 환경건강 |
| 자치행정과 | 선행주민 발굴시상, 공무원 국내외 교육 한마음 체육대회 지역주민 무료정보화 교육, 재난 대비 생활민방위 시범훈련 | 사회건강, 환경건강 |
| 문화공보실 | 도원문화제(군민노래자랑), 군립공원내 조각작품 설치, | 마음건강,사회건강, 환경건강 |
| 재무과 | 지방세 수입와 세외수입정수, 쾌적한 청사(서면 조치원 준공) | 사회건강 환경건강 |
| 주민지원과 | 인정이 넘치는 도의사회 건설(출출예),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군민체육대회,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 몸건강 사회건강 |
| 사회복지과 | 저소득 지원사업 강화, 저득인 경로연금, 여성복지, 성희롱 예방교육, 유해식품근절, 식품접객업소 지도와 점검 | 사회건강, 몸건강 |
| 환경보호과 | 국토대청결 자연보호운동, 대기배출업소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 배출가스 ·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아름다운 화장실조성, 노장친, 오염하천 정화, 음식쓰레기 재활용,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조치원 하수처리장 고도시설 설치사업, 쓰레기 감량 재활용 | 환경건강 |
| 산업과 | 농업발전기금조성, 으뜸살 생산기반, 복숭아 축제 소득사업,대도시연결 직관사업, 환경친화적 축산사업, 산림보존자원화 | 사회건강 |
| 지역경제과 | 재래시장활성화,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육성 경쟁력, 우수기업인상,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 사회건강 |
| 건설과 | 골재적영사업으로 군세입증대, 폭설피해 조기 응급복구, 재해 재난 대비기반구축사업, 하천정비수해복구사업, 농업용수개발, 살기좋은 농촌환경조성, 군도 농어촌 도로 교량사업 | 환경건강 |
| 도시과 |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가로망 정비, 조치원시가지 환경조성, 산업단지 조성, 개발제한 구역 효율적 관리 | 환경건강 |
| 보건소 | 건강중점사업(성인병 운동지도교실, 건강마라톤대회, 암검진사업, 골다공증 검진),방문보건사업추진(노인회관 순회의료봉사, 거동불능자 이동목욕사업, 장애인거동불능자 방문진료), 체계적인 건강관리사업(임산부 영유아관리, 어린이집 아동관리, 학교보건사업), 방역사업추진(전염병 감시구축, 전염병예방접종, 위생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보건검사), 보건의료시설개선(서면보건소 신축,의료장비현대화 등) | 몸건강, 환경건강 |
|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 육성 전문교육, 농업인학습단지 육성, 전통테마 마을 육성, 농작업실시, 전통테마 마을 육성 (지도개발과),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기술 중점보급, 소득작목 명품화 생산, 가족사육환경의 개선, 신속한 농업정보제공(기술보급과) | 사회건강 환경건강 |
| 환경사업소 |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맑은 물 방류, 위생쓰레기매립장의 안정적 관리, 하수처리장 친환경 공원 조성, 푸른 환경 교실 운영, 에너지 절약 추진 | 환경건강 |
| 조치원읍면 | 각조직부서의 행정구역 현장, 극히 한정된 사업 | |

(4) 행복도시의 영향의 합리적 흡수와 관련 자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영향을 보다 잘 흡수할 수 있는 환경적응의 방향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특성 있는 자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고대, 홍대 등의 교육기관 및 의회와 행정 및 지역주민 사이에 원만한 관계로 내부통합성이 강하며 특산물인 복숭아와 환경친화적인 쌀,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보건소와 협력단체의 역량, 비교적 깨끗한 자연환경 등은 건강도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5) 현재 10개시군 WHO 건강도시 가입이 큰 흐름과 행복시의 방향과 일치 우리나라에도 10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으며 행정의 큰 흐름으로 예상되며 건설될 행복시의 방향과 부합한다는 점이다.

2. 건강도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축제

건강도시의 전략의 첫 단추로서 전인건강과 건강도시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적절한 이벤트 건강도시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하며 홍보를 하고 복숭아 축제와 같은 시점에서 건강도시 승인을 하는 축제를 한다.

3. 각 조직부서 상호간과 주민간의 상호간 및 양자간 협력

건강도시의 전략으로 조직간 상호부문의 협력과 지역단체 참여를 위해 상호이해하고 장점을 찾기 위해 힘쓴다.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는 전인건강과 관련된 각부서간의 협력이나 지역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정에는 정치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는 공익중심의 사회단체를 선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4. 혁신적 아이디어와 유인 제공

건강도시의 전략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격려하고 유인을 주고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도시의 전략은 기존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연기군의 결산보고와 시책구상보고서에서 기존시책의 보완과 발전 외에 새로발굴한 시책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것이다.

5. 공무원과 주민지도자의 역량 육성

건강한 공공정책 모든 사업에 건강의 개념이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공무원과 여론지도자의 가치관과 능력 배양 곧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6. 건강도시 지도자 역량 프로그램 운영

건강도시프로젝트를 구심점 형성을 위해 건강도시 지도자 역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건강도시의 핵심은 사람이다. 전인건강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건강한 도시를 형성하기 때문에 공직자와 각 현장의 민간지도자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건강도시공직자 프로그램은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와 행정대학원과 협력이 가능하다.

기업인과 관련해서는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홍대 산업대학원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7. 체계적인 홍보활동 계속

건강도시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홍대는 광고홍보학부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연기군이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한 시기를 갖점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8. 좋은 고등학교 유치를 지속적인 타스크 포스 가동

건강도시프로젝트의 핵심전략은 연기군의 경주 좋은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TASKPOOLS를 가동해야 한다. 이곳에 공무원이나 기업인이 자리를 잡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이것이 선도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공무원과 기업인이 인근에 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더욱 절실하다.

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TASK POOLS 가동

건강한 도시를 위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TASKPOOLS를 가동해야 한다. 복숭아, 환경친화적 쌀, 특히 인근도시의 첨단산업과 대학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번에 고려대학교 바이오 시스템 공학부에서 농축산식품누리산업에 선정되었는데 .오송단지의 산업과 깊이 연계되어 있고 지역농축산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10. 행복시의 광역화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등에 적절한 대응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적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및 인근도시의 전략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건강한 공공정책이 되도록 노력한다.

11. 충분한 학제적 연구와 선도적 연구전략에 유의

건강도시의 연구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 관련 학문분야의 장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분야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충분한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과제간에 선도적 연구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발연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골고루 팀을 이루어 훌륭한 연구결과가 기대된다. 건강도시 연기를 위해 충분한 학제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복지과 문화, 시민과의 관계를 다루는 NGO의 분야, 건강증진 및 의료분야 연구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며 교육과 경제와 같은 선도적 전략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2. 청계천 복원사업의 관련 자료의 참조와 관찰 및 학습

청계천 복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건강도시의 일부분이지만 그 파급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한 여러 자료와 관찰은 건강도시 연기군의 사업을 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사업과 관련된 서울시 추진본부와 시민위원회 및 시정개발연구원의 긴밀한 유대나 복원사업에서 추구하는 여러가지 목표와 효과는 여러가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그곳에서 발견되는 장점 외에 약점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도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협동하고 좋은 시민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가진 스웨덴에서 자살률이 높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20-30대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강도시는 사회건강이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택.(1998). 「일상생활의 페러다임:현대 사회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 과천시(2005). 파일 자료.
- 김현구.(2000). '한국행정학의 위기'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행정학회 학제학술대회 발표논문」, 9-12.
- 김호섭.(1990). 행정문화의 비판적 수용을 통해본 행정윤리의 방향. 「한국행정학보」, 24권. 1호.
- 박재환외.(1994). 「일상생활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부산진구. (2004). 건강도시 심포지움
- 부산진구. (2004). 부산진구 건강프로필 요약서
- 부산진구. (2005). 2005 년도 건강도시 사업안
- 서울특별시. (2005) 건강도시 Healthy Cities: Wellbeing Seoul.
- 서울 특별시. (2005) 국제건강도시 심포지움
- 연기군.(2005). 2004년도 업무 결산과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
- 원주시.(2004). 건강도시 원주 지역사회진단 및 건강프로젝트 개발
- 전인철.(1998) . 「삶의 질의 개념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4-25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정선양.(1999). 「환경정책론」, 286-292 , 398-425. 서울 :박영사 .
- 조무성.(2002). 한국행정인은 누구인가?: 삶의 질, 인간형, 행정문화, 모범사례. 고려대학교출판부.
- 조명한·차경효.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 집문당.
- 조무성.(2000). NGO의 진단과 개혁 : 압퇴치 NGO의 사례분석.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조무성.(2000). 「암과 싸우는 열가지 방법」. 서울 :에영커뮤니케이션.
- 조무성의. (2000). 한국 NGO의 진단과 개혁: 정치 윤리 사회 청소년 교육 복지 인권 건강 NGO. 고려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조무성.(1999). 생활행정학으로서의 행정학:21세기페러다임.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조무성.(1998). 생활행정학으로서의 한국행정학:문제해결역동모형의 탐색.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99-332.
- 조무성.(1988). 「한국행정인연구 : 인간형, 형성환경, 태도의 분석」.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조무성.(1980) . 「문제해결인으로서의 행정인상의 모색과 한국현실의 조명」.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창원시(2005). CD 자료 .
- 통계청(2002). 「사망원인통계연보」
- 통계청(2003). 「사망원인통계연보」
-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1999). 「삶의 질 측정의 이론과 실제」, 215-269, 서울: 고려의학.
- 한국한의학연구원(2002). 동서의학의 상호보완에 관한 연구. 「한의학연구원 학술세미나 및 연구지」
- 행복시 홍보자 책자 (2005)

- Adams, Christopher Freeman ,(2000). Healthy Communities and Public Policy: Four Success Stories. Public Health Rep 2000.
- Alderfer, Clayton. (1969). An Empirical Test of a New Theory of Human Need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Vol.4, 145-147.
- Bennis, Warren G. and Philip E. Slater.(1968). The Temporary Society. Vol. 4 A. New York : Harper & Row
- Bennis Warren G. (1981).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The Fate of Bureaucracy. In Fred A. Kramer. Perspectives on Public Bureaucracy, 5-17. Boston: Little, Brown and Co.
- Duhl, Len. (2000).A Short History and Some Acknowledgement.
- Eulau, Heintz. (1967). The Behavioral Persuasion in Politics. 39-46. N. Y. :

Random House.

Gortner, H.F.(1997). *Administration in the Public Sector* , 1-40. N.Y.: Harcourt Brace.

Green, Andrew & Ann Matthias. (1997).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Health in Developing Countries*. N.Y.: St.Marin's Press.

Jun, Jong S.(1996):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Domestic Policymaking and Administration*. 6.

Lewin Kurt(1952).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London: Tavistock Publication Ltd

Lewin, Kurt.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Translated by Donal Karl E. Zener.N.Y.:MacGraw-Hill 1935. pp. 70-75

Lewis.Eugene(1981). " Bureacracy in Everyday," in Fred A. Kramer, *Perspectives on Public Bureaucracy*. Boston: Little Brown and Co. pp. 1

Maslow, A. H. *Motivation and Personality*(New York: Harper and Row, 1970), pp.35-37.

Seoul World Mayors Forum(2006). "Taipei Building Healthy City"

Simon, H. A.(1997). *Administrative Behavior*.N.Y. : The Free Press. P.x

Simon, H. A.(1976). *Administrative Behavior*.N.Y. : The Free Press. p.IV, p.VI, p.VIII. p.xxvii.

TWISS, JOAN M. et al (2000). *Twelve Years and Counting: California's Experience with a Statewide Healthy Cities and Communities Program*. Public Health Rep 2000.

WHO/Europe.(1998). *Athens Declaration for Healthy Cities*,

Available at http://www.euro.who.int/AboutWHO/Policy /20010917_1

WHO/Europe.(2003).*Belfast Declaration for Healthy Cities*, Available at

http://www.euro.who.int/healthy-cities/CitiesAndNetworks /20040227_3

<http://www.who.dk/document/E56270.pdf>

<http://www.euro.who.int/document/e82653.pdf>

<http://www.euro.who.int/document/E56270.pdf>

제1주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연기군의 변화 전망과 과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이 상호 (한밭대학교 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연기군의 변화 전망과 과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이 상호 (한밭대학교 교수)

【목 차】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여건변화 전망

1. 국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분산·분권정책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여건변화 전망

III. 도시계획 기본방향

1. 계획 개념
2. 기능 예측
3. 인구 예측

【 요약 】

가.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연구의 목적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라 충청권 지역구조 변화와 연기군의 변화 전망과 연기군 도시계획기본방향, 기능 변화 그리고 인구 변화를 예측하였다.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친환경/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목표로, 2010년 경 인구 10만, 2020년 30만, 2030년 50만의 자족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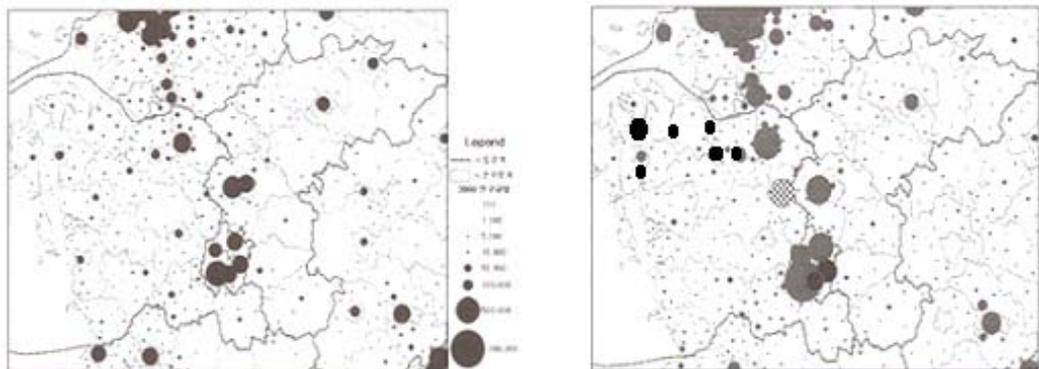
□ 연구의 범위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204km² 이며, 계획 시점은 2020년이다.
- 연구 내용은 연기군의 여건변화 전망, 기능변화 예측, 인구 예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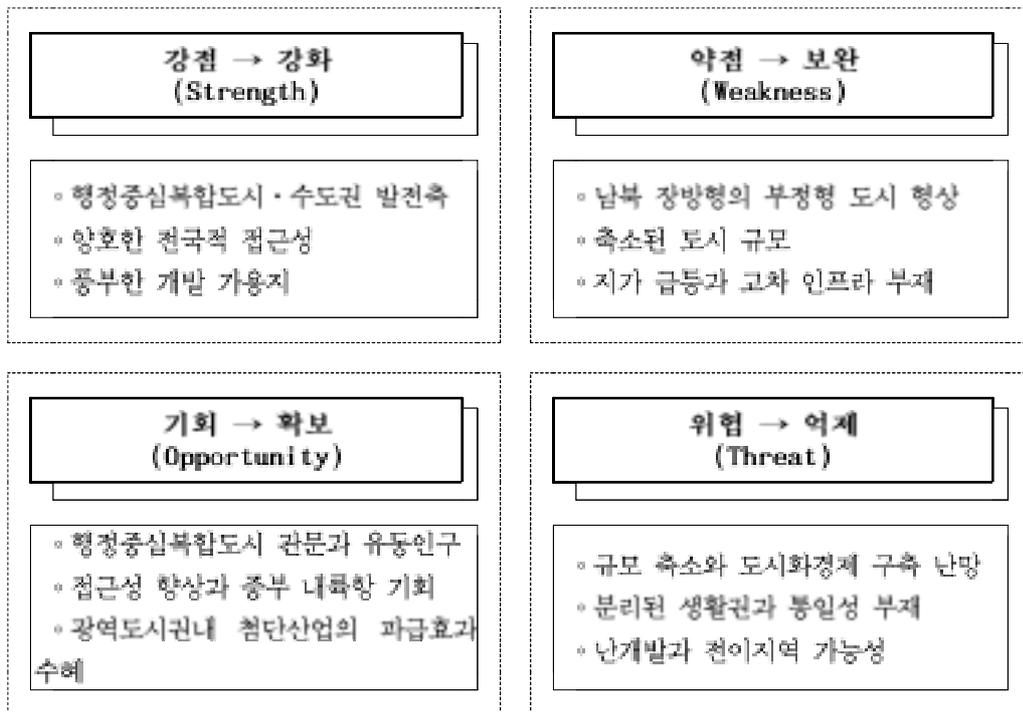
나. 연기군 여건변화 전망

□ 지역간 경쟁과 연대, 경부축 집중 그리고 ㄱ자형 지역구조

- 천안(디스플레이), 청주(바이오), 공주(역사와 문화), 대전(연구단지, 정부청사, 계룡대) 등 특화를 통한 경쟁과 공간적 연대 강화가 예상되며, 경부축 집중과 ㄱ자형 도시 성장 축이 강화될 전망이다.



□ 연기군의 여건변화와 SWOT 분석



다. 연기군 도시계획 기본 방향

- 생활권별 차별화와 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주변 도시 기능과의 상충 배제와 기능 연계를 고려한 생활권별 Theme 특화 전략과; 기능 種(Type)과 기능 질(Quality)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 시장의 원리 존중과 시장의 실패 조절
 - 국도 1호선 통로형(Corridor) 개발 압력의 수용과 난개발조절,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도시 잠재력 강화를 위한 개발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라. 연기군 기능 변화 전망과 가능성

- 관련계획/ 해외사례/ 설문조사(향후 실시) 등을 통하여 설정
 - 관련계획에서는 중부내륙물류기지; 친환경전원주거 및 식음료단지; 벤처 집적지와 전원형 연구학원 도시 등이 제시되었다.
 - 해외사례를 보면 IT, BT, CT , 비즈니스지원 서비스, 건축 및 엔지니어

링서비스 등이 제시되었고, 주변 도시에 휴양, 레저, 스포츠, 여가시설이 배치되었다.

□ 도입 가능 기능 설정

- SWOT 분석에 근거, 행정업무 비즈니스 보조 지원 기능을 건강 기능과 연계한 골프장, 전원 레저, 웰빙 등을 주제로 한 저밀형 개발과 주변 도시의 IT·BT·CT기술을 응용한 복합형 파일럿 실험단지 개발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 전국 단위의 이벤트를 수용하기 위한 중·저가 숙박, 시대와 8도 5대양을 대표하는 식·음료서비스 그리고 한국적 놀이 기능이 수용될 수 있다.
- 시장의 원리에 근거, 산업 물류와 식음료 물류, 그리고 농수산 물류를 포괄하는 중부내륙 물류기지의 도입이 가능하다.

마. 연기군 인구변화 전망

- 2020년 연기군의 정주 인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연기군 인구가 편입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10만명 내외로 전망되며, 유동 인구는 1만명/일 정도로 전망되었다.

| 정주인구예측 | | 모형식 | 2020년 추정인구 |
|----------------|--------|--------------------------------|-------------------|
| 성장모형 | 선형모형 | $P_t = P_0 + r \cdot n$ | 98,677 |
| | 등차급수모형 | $P_t = P_0 (1 + rn)$ | 102,434 |
| | 등비급수모형 | $P_t = P_0 (1 + r)^n$ | 101,113 |
| | 지수함수모형 | $P_t = P_0 e^{rn}$ | 101,967 |
| 성장한계모형 | 로지스틱모형 | $P_t = \frac{k}{1 + e^{a+br}}$ | 98,895/ 98,677 |
| | 수정지수모형 | $P_n = K - [(K - P_0)(M)^n]$ | 100,964/ 101,133 |
| | 수정지수모형 | $P_n = K - [(K - P_0)(M)^n]$ | 99,315/ 99,222 |
| 토지이용을 고려한 회귀모형 | | $P_t = 49832 + 13.4LU$ | 112,670/ 148,5237 |
| 유동인구예측 | | 총동행량변화 예측 고려 | 10,695/ 일 |

【 본 내 용 】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인구 30~50만명 수준의 신도시로 건설된다.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이 이전하며, 다기능복합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대 2,210만평이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약 6,800만평이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규제된다.
- 지구 동측을 경부고속철도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서측으로 당진-상주간 고속도로가 건설중이며 1번 국도가 지구내를 통과한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충청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 분산·분권 정책과 지역구조의 변화

□ 지역구조의 변화

- 지방분산정책(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지역혁신정책(지역혁신체계구축, 혁신클러스터조성, 지역전략산업육성, 지방대학육성), 지역자립발전정책(낙후지역활성화, 기업도시), 지방분권 정책(재정의 분권화, 사무 및 인력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국토구조가 급속히 변화될 전망이다.
- 지역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라 특성이 뚜렷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 청주, 공주, 천안·아산의 네트워크형 지역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 또한 충남·경기 상생발전 협약, 대덕 R&D특구지정, 청주·청원 통합논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 등 연기군을 둘러싼 지역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1) 연기군 도시계획 기본방향

□ 연기군의 여건변화 예측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지역구조의 변화 그리고 연기군의 여건변화를 예측하였다. 지역구조의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 청주, 공주, 천안·아산의 발전방향을 토대로 전망되었다.
- 연기군의 여건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지역구조의 변화를 기초로 전망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본계획과 광역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여건변화를 제시하였다.

□ 연기군의 기능 변화 예측

- 지역구조의 변화 반영한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가정하여 연기군에서 도입 가능한 기능을 제시하였다.
- 도입기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상충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되었으며, 토지이용 규모계획을 제시하였다.

□ 연기군의 인구 변화 예측

- 개발 가능지와 개발 추세를 감안하여 연기군에서 수용 가능한 인구를 예측하였다. 성장한계를 설정하고, 개발 호재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증가 패턴을 가정한다.
- 인구예측은 정주인구와 유동인구의 예측으로 분류하여 예측하였다. 특히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최단거리에 위치하여, 판문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어 유동인구의 예측은 도시계획 기본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시·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 계획의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한다. 1단계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전인 2012년이며, 2단계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 종합계획 등과 연계한 2020년으로 한다.

공간적 범위

- 현재 연기군 행정구역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을 제외한 361km²이다. 연구 대상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도시에 편입되는 면적 156km²을 제외한 204km²이다.

(2) 내용적 범위

연기군의 여건 변화 예측

- 국토 및 지역구조의 패러다임 변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충청권의 지역구조에 주는 영향과 여건 변화를 예측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연기군에 주는 여건변화를 SWOT분석을 중심으로 예측한다.

연기군의 기능 변화 예측

- 연기군의 도시계획 수립 원칙과 도입 가능한 기능을 예측한다.

연기군의 인구 변화 예측

- 연기군의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를 예측한다.

2) 연구 방법

(1) 연기군 여건변화 전망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구조 변화

- 문헌고찰 통하여 천안, 청주, 공주, 대전, 그리고 그 외 충청권의 지역구조의 변화를 예측한다.

□ 연기군 여건변화 예측

- 관련계획 검토, 국내외 행정도시 주변의 다양한 도시 개발 사례를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기군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2) 연기군 도시계획 기본방향

□ 계획 개념

- 생활권별 특화 및 차별화 전략과 다양성과 선택성을 높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하였다.
-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지역구조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토대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 연기군 인구 변화 예측

- 정주민구는 성장한계모형에 입각하여 예측한다.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성장 한계를 예측하고, 개발 패턴 예측에 따라 성장한계모형을 설정한 후, 정주민구를 예측한다.
- 유동인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교통에 주는 영향에 관한 문헌을 비교 검토·정리한다.

□ 연기군 기능 변화와 규모 예측

- 관련계획, 문헌고찰,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도입 가능한 기능을 열거(List Up)한다.
- SWOT 분석과 시장경제의 원리, 설문조사에 입각하여 도입 가능한 기능을 스크리닝(Screening)한 후 주요 도입기능을 예측·확정한다.

II. 여건변화 전망

1. 국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분산분권 정책

1) 국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

□ 경쟁력 개념의 확대

- 세계화의 확대와 지방의 역할 증대 그리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도시는 인구와 자본 유치를 위한 비교우위와 유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 따라서 각 도시들은 경제 및 산업 경쟁력, 경제 및 산업지원 경쟁력, 삶의 질과 시민의식 경쟁력, 인재, 기업, 생활환경,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끊임없이 변신하고 있다.

(2) 시장경제의 원리 확대와 협력과 통합 지향

□ 일극중심에서 다극중심체제의 변화

-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정책에서 다극중심체제로 변화하여,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집적 불경제의 증대 등 시장경제의 실패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 정책의 직접적 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효율과 특화 그리고 협력과 통합을 통한 클러스터 혁신체계의 구축

- 형평성, 규범성, 당위성을 전제로 한 국토정책에서, 효율과 특화 그리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지역특화 및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지역의 특화와 함께 지역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상호보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정책간 패키지 운영과, 지역간 거버넌스의 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운영방법도 통치에서 협치(Governance)로,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소외에서 참여로 바뀌고 있다.

2) 분산·분권정책

(1) 분산정책

□ 지방분산정책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추행정기능 및 국제연구기관 등을 이전하고 국제 교류기능 및 산업기능을 유치하여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를 연기·공주지역에 건설하려는 정책이다
-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정부투자기관,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하고 미래형 첨단 도시로 혁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정책이다

□ 지역혁신정책

-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정부, 지방대학, 기업, NGO, 지방언론, 연구소 등 지역 내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이다.
- 지역전략산업육성·지방대학육성·혁신클러스터 조성: 기업집적형 산업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혁신 클러스터화 추진하여 지역산업의 특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이다

□ 지역자립발전정책

- 낙후지역 활성화: 지역간 발전격차를 고려하여 낙후지역을 선정한 후, SOC, 환경, 물류, 정보통신 등 물리적 인프라 및 주택,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정책이다.
- 기업도시: 기업이 자발적인 산업투자계획을 가지고, 상대적인 낙후지역에 독자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려는 정책이다.

(2) 분권정책

- 재정의 분권화: 행정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의 인력·재정 확충을 위한 자치조직권 및 재정분권을 확대하려는 정책이다.
- 사무 및 인력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유사·중복 기능,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지성 업무는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인력과 예산을 Package로 이양하려는 정책이다.

<표 1> 분산·분권 정책 및 주요 내용

| 구분 | 정책 | 주요내용 |
|----------------------|------------------------|--|
| 지방 분산 정책 | 행정중심 복합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현재 추진 ◦ 중추행정기능 및 국제연구기관 등을 이전하고 국제교류기능 및 산업기능을 유치하여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 |
| |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투자기관,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 이전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지역특화발전을 선도하는 미래형 첨단도시로 혁신도시 건설 |
| 지역 혁신 정책 | 지역혁신체 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지방대학, 기업, NGO, 지방언론, 연구소 등 지역 내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 |
| | 혁신클러스 터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의 기업집적형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업·연구소·대학·기업지원시설의 클러스터화 추진 ◦ 지식 및 신기술의 전파와 공유를 촉진하여 클러스터내에서의 혁신역량 제고 |
| | 지역전략산 업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과 지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을 추진함 ◦ 지역수준에서 지역 전략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성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의 기획능력 및 자율성을 배양함 |
| | 지방대학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혁신 기반을 확충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FI)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등 지역의 우수인력을 양성 |
| 지역 자립 발전 정책 | 낙후지역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 지방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동일한 권역 내에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발전격차를 고려하여 낙후지역을 선정함 ◦ 전국 최소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기초하여 SOC, 환경, 물류, 정보통신 등 물리적 인프라 및 주택,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의 확충 |
| | 기업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자발적인 산업투자계획을 가지고, 상대적인 낙후지역에 독자적인 도시개발을 추진 |
| 지방 분권 정책 | 재정의 분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권한 이양에 따른 인력·재원 이관 등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의 인력·재정 확충을 위한 자치조직권 및 재정분권을 확대함 |
| | 사무 및 인력의 지방이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행정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유사·중복 기능,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지성 업무는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인력과 예산을 Package로 이양함 |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여건변화

1)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요

(1) 도시의 입지

□ 편입지역

-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대 2,21만명이 예정지역으로, 약 6,800만평이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중심부에 전월산(260m)이 있고, 미호천과 금강의 합류지점으로 대전과 청주에서 10km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광역교통

- 지구 동측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고, 서측으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당진-상주간 고속도로가 건설중이다.
- 국도 1호선이 지구내를 통과하고, 인접지역인 조치원에는 충북선이 출발한다.

(2) 도시 개발 방향

□ 도시기본방향과 효과

- 상생과 도약을 구현하는 선도도시의 개발과 품격 높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 기본방향은 복합 자족적 도시기능을 확보하고, 미래 지향적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품격 높은 친환경적 도시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이다.
- 건설의 기대효과는 수도권인구 분산 효과, 수도권 환경 개선효과, 국가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발전, 그리고 신페러다임으로 국가 재도약이다.

□ 도시기능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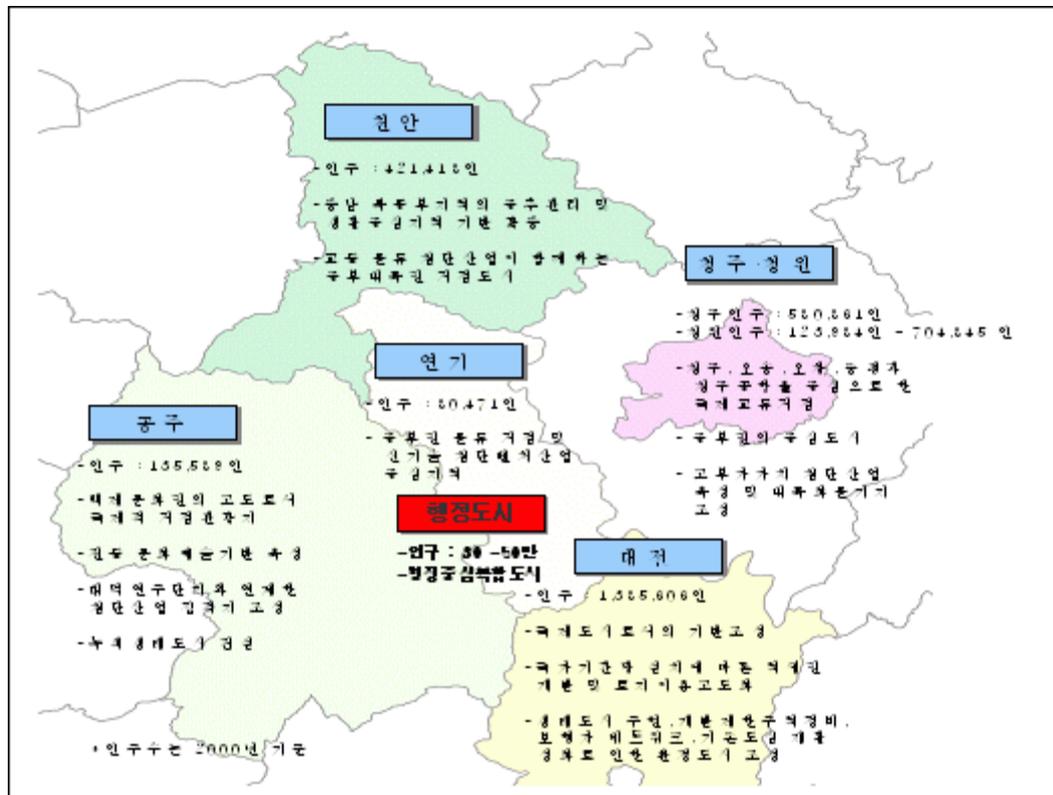
-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이 이전하고, 업무 연관이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추가로 이전할 계획이다.
- 컨벤션, 전시장 등 국제·문화·교육기능을 유치하고, 무공해 첨단기업의 입주를 유도한다.
- 적정 인구 규모는 30~50만명이며, 도시의 기본 시설을 고려하면, 6,60~8,300만(2000~2500만평) 내외의 토지가 소요된다.

2) 충청권 지역구조의 변화 전망

(1) 지역별 특화, 네트워크도시체계, 그리고 도시간 경쟁 심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권 도시들의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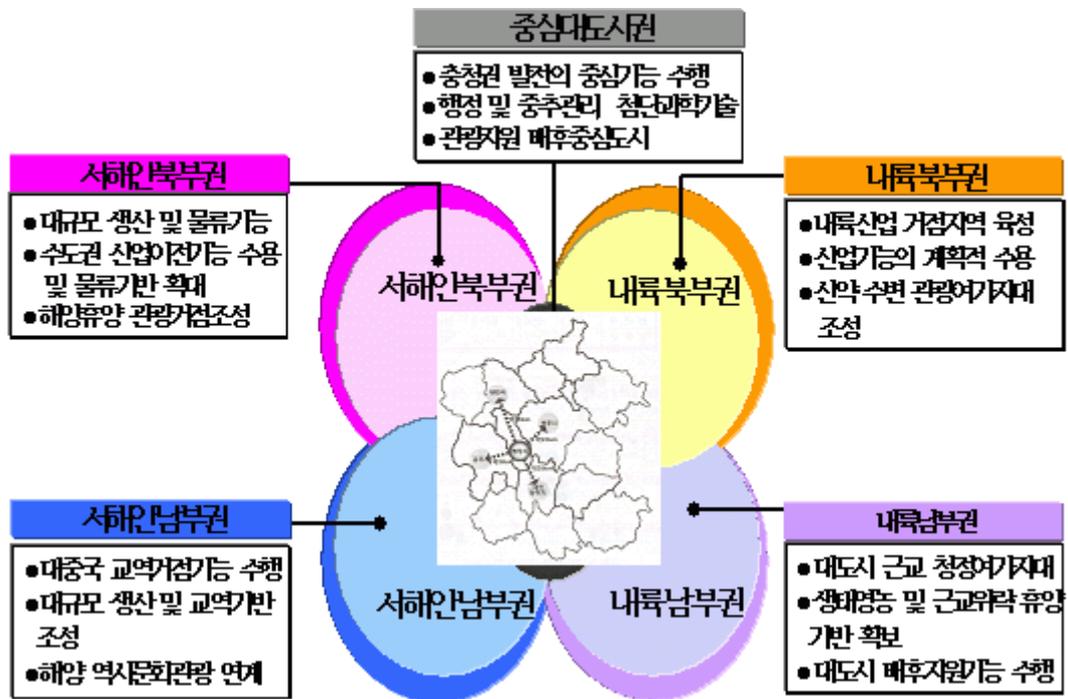
- 대전은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을 연결하는 중심도시로, 대덕연구단지, 대덕 R&D특구, 정부제3청사, 계룡대 등이 입지하고 있다. 행정과 연구 벤처, 국방산업, 유성관광특구 및 웰빙산업의 특화를 시도할 것이다.
- 청주시는 충북의 수위도시로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주국제공항 등이 입지하고 있다. 오송의 바이오산업 메카와 오창의 IT 혁신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 천안 아산지역은 IT산업의 생산 거점화 되고 있다. 천안은 PC중심의 5세대 LCD메카로, 아산은 탕정클리스탈밸리 213만평의 7세대 TV중심의 S-LCD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 공주는 백제 고도로서, 전통문화예술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등의 걸걸 지역으로 산업, 물류, 유통이 입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1> 연기군 주변 도시의 특화

□ 네트워크 도시체계와 경쟁관계 심화

- 충청권의 각 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심대도시권(대전, 청주, 청원, 연기·공주·논산 일부); 서해안 북부 및 남부권, 내륙북부 및 남부권 등 5대 통합개발권을 설정하여 특화 발전시키고, 이들 도시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국토연구원, 2000)
- 또한 지역간 잠재력과 강점을 보완 연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북부산업개발축, 서해안신산업 및 해양휴양관광축, 동부산악수변관광축, 내륙침단산업 및 역사 문화벨트, 산업생산 및 생태 영농벨트등 5개 개발축의 기능을 확대 발전시킬 것이다(국토연구원, 2000).
- 반면에 중심대도시권의 대전, 청주·청원, 공주·연기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파급효과를 내재화 시키기 위하여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천안·아산·당진 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업의 집적지로 수도권과 연담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 국토연구원, 2000

<그림 2> 충청권 공동 발전 구상

(2) T자형 성장축에서 ㄱ자형 성장축으로 집중

□ 현재의 T자형 도시 성장 축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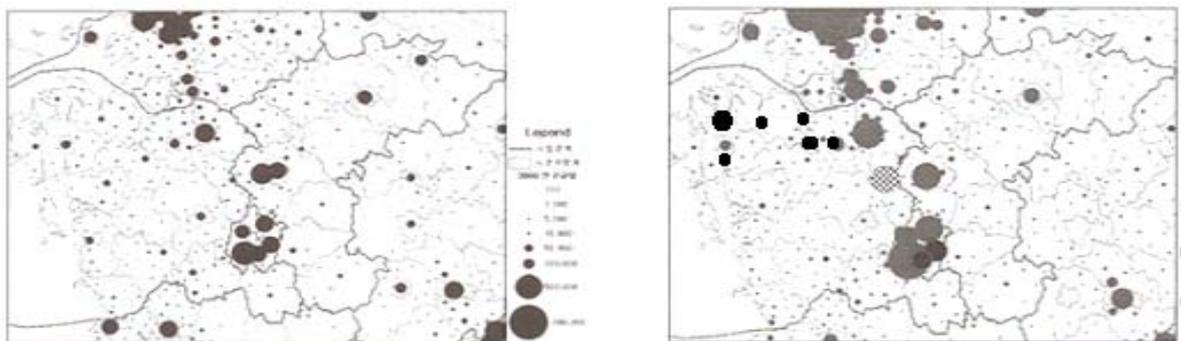
- 현재의 충청권은 천안-청주-대전의 남북축과 서산-아산-천안-충주-제천을 잇는 동서축이 천안을 중심으로 T자형 도시발전 축을 형성하고 있다. 남북축은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서축의 외곽은 아직 낮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향후 경부축 집중과 ㄱ자형 도시 성장 축 강화

- 현재 T자형 성장 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함께 천안-청주-대전-공주 등 경부축(남북축)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천안-아산-당진 지역은 수도권의 Spill-Over Effect의 수혜지역으로서, 충청권의 또다른 성장 축을 형성하며 수도권과 연담화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적으로는 ㄱ자형 도시 성장 축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천안-청주-행정중심복합도시-대전-공주의 남북축은 인구와 산업의 일부가 집중되면서, 충청권 동북부와 동남부 지역의 상대적 쇠퇴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표 2> 충청권 행정중심복합 광역권 도시 인구전망, 2000-2030

| 지 역 | 인구 (단위 : 천인) | | | | 인구변화(천인) | | 비중(%) | | | |
|-------|--------------|---------|---------|---------|----------|-------|-------|-------|-------|-------|
| | 2000 | 2010 | 2020 | 2030 | 00-20 | 00-30 | 2000 | 2010 | 2020 | 2030 |
| 충 청 권 | 4,678.4 | 5,110.9 | 5,280.2 | 5,285.7 | 601.9 | 607.3 | 100.0 | 100.0 | 100.0 | 100.0 |
| 충청북도 | 1,466.1 | 1,562.0 | 1,583.5 | 1,563.0 | 117.4 | 97.0 | 31.34 | 30.56 | 29.99 | 29.57 |
| 충청남도 | 1,844.8 | 1,944.4 | 1,938.8 | 1,882.5 | 93.9 | 37.7 | 39.43 | 38.04 | 36.72 | 35.62 |
| 대전광역시 | 1,367.4 | 1,604.6 | 1,758.0 | 1,840.1 | 390.5 | 472.7 | 29.23 | 31.40 | 33.29 | 34.81 |
| 청 주 시 | 578.1 | 711.4 | 773.9 | 792.7 | 186.8 | 205.6 | 12.55 | 13.92 | 14.66 | 15.00 |
| 천 안 시 | 418.1 | 556.3 | 641.8 | 683.8 | 223.7 | 265.8 | 8.94 | 10.88 | 12.15 | 12.94 |
| 공 주 시 | 130.5 | 127.5 | 118.2 | 107.3 | -12.3 | -23.1 | 2.79 | 2.49 | 2.24 | 2.03 |



자료: 권용우, 2004를 수정함

<그림 3> 충청권 지역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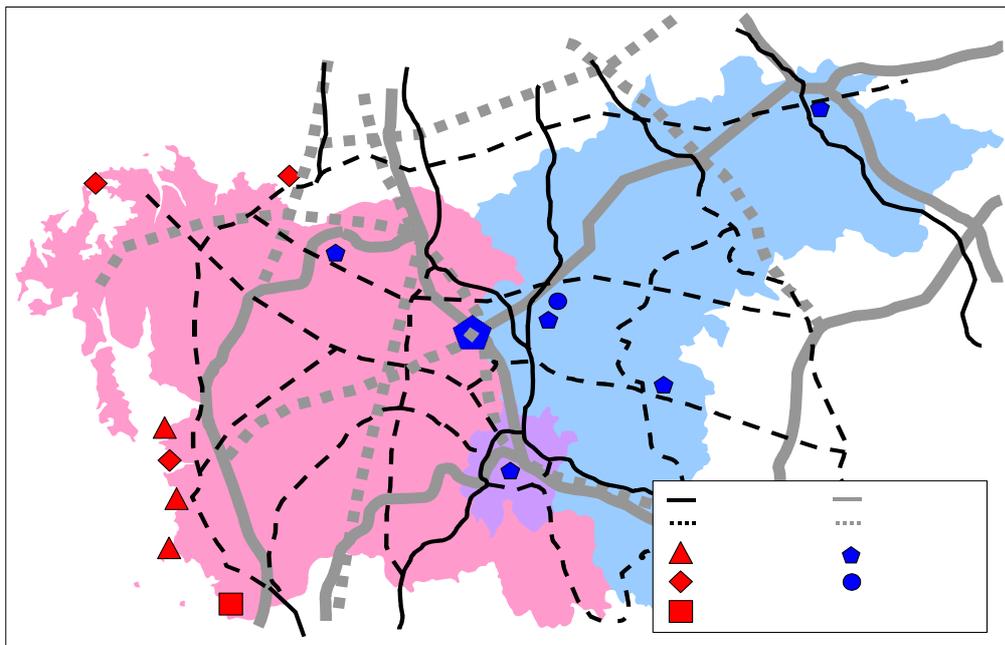
(3) 인프라 구축 전망

□ 교통체계 전망

- 충청권은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충북선, 중앙선과 화물전용의 강경선과 남포선 등 총 7개 노선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향후 호남고속철도가 추진됨에 따라 전국적인 차원의 주요 철도거점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보령(신항)~조치원으로 이어지는 충청선을 신설하여 충북선과 연계하여 해안과 내륙의 산업, 관광기능을 연계 육성하도록 하고, 태안~당진~천안간 동서산업철도를 조기 건설하여 서해안 산업지대와 국내 중심 산업지대와의 접근성 개선을 촉진할 구상이다.

<표 3> 충청권 철도 개발 전망

| 구 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
| 고속철도 | 경부고속철도 | ·천안~대전구간 (60km) |
| | 호남고속철도 | - |
| 일반철도 | 충청선 신설 | ·보령신항~청양~공주~조치원(충북선 연결, 85km) |
| 산업철도 | 동서산업철도 (서해안산업철도) | ·안흥항~태안~서산~당진~성황(경부선연결, 120km) |



자료: 국토연구원, 2000

□ 물류체계 전망

- 충청권의 내륙부의 항만기능 부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항항, 아산항, 보령항 등 국제항만과 청주공항과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육·해·공 물류산업의 선도기지화를 공동 추진 구상이 필요하다.
- 중부내륙물류기지는 충청권의 중심물류거점의 역할과 함께 수도권과 동남권, 서남권, 그리고 인천항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국토중심 물류거점시설로서의 시설과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중부내륙물류기지가 국토중앙부의 거점물류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경부선 철도, 호남·전라선 철도 및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과의 원활한 연계와 물류시스템과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고속도로 접속도로, 철도인입선, 철도화물 적재 및 처리시설 등의 건설이 요구된다.

<표 4> 물류단지 개발 전망

| 구 분 | 내 용 |
|------------|---|
| 위 치 | ◦ 충남 연기군 및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원 |
| 규 모 | ◦ ICD 내륙컨테이너기지: 11만평, 연간처리능력 54만 TEU ◦ 복합화물터미널: 10만평, 연간처리능력 470만톤 |
| 교통접근성 | ◦ 경부, 중부고속도로의 결절점이며,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철도의 인접통과로 접근성 양호 |
| 주요지점과의 거 리 | ◦ 교통지점: 경부고속도로 청원IC와 6.0km, 청주공항 35.0km 아산항 68.0km, 보령항 77.0km, 군장항 84.0km ◦ 배후도시: 대전 24.6km, 청주 15.9km, 공주 23.2km, 천안 29.0km ◦ 과학 및 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35.0km,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25.0km, 대덕연구단지 27.0km |

3) 연기군 여건변화 전망

(1) 강점(Strength)

□ 행정중심복합도시·수도권의 발전 축 선상 최단거리

-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축 선상에 위치한 첫 번째 도시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하여 개발된다면 거리상으로 마찰계수가 적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장이나 제조업의 입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 전국적 접근성 양호

- 연기군은 동측 경부고속도로, 서측에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남측에 호남고속도로가 있어 전국적으로 접근하기에 양호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충북선과 경부선 등에 인접해 있어 양호한 교통 접근도를 가지고 있다.

□ 풍부한 개발 가능지

- 연기군은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평야나 구릉지가 많아 타 지역에 비해 개발가능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연기군의 농업적 토지이용은 101.75km²로 개발 이용 가능성이 높다.

<표 5> 연기군 토지이용 전망 (단위:km²)

| 구 분 | 총 계 | 임 야 | 농업토지이용 | 도시토지이용 | 기 타 |
|---------|----------|---------|---------|---------|---------|
| 전 국 | 99460.74 | 65138.8 | 21043.8 | 4280.52 | 8997.63 |
| 충 남 | 8586.44 | 4519.08 | 2750.09 | 487.96 | 829.32 |
| 연기군 | 361.53 | 198.52 | 101.75 | 22.2 | 39.07 |
| 행정시 편입 | 156.68 | 75.03 | 49.96 | 10.53 | 21.16 |
| 행정시 편입외 | 204.86 | 123.40 | 51.79 | 11.66 | 17.92 |

주 : 농업적 토지이용:전, 답, 과수원; 도시 토지이용: 대지, 도로,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을 말함.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0, 연기군, 통계연보, 2001.

(2) 약점(Weakness)

□ 남북 장방형의 부정형의 토지 형상

- 연기군은 북쪽의 일부 구릉지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북고남저의 지형으로, 국도 1호선을 중심으로 선형적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어 계획적인 한계를 유지하고 있다.

□ 연기군의 면적 축소

- 군 전체 면적의 18.8%(남면, 금남면, 동면)가 예정지역,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면 51.7%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되어, 군 면적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 지가 급등과 기반 인프라 시설 미비

- 정보통신·금융, 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와 무역, 국제업무, 대기업본사 등 경제적 중추관리기능과 교육·문화·서비스시설의 입지 경쟁력이 약하다. 또한 신행정수도건설 발표 이후 지가가 급등하여 이러한 시설의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 6>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권내 도시특성

| 구 분 | 행정수도와의 거리(km) | 면적(km ²) | 인구(명) | 가구(세대) | |
|-----|---------------|----------------------|--------|-----------|---------|
| 충북권 | 청주시 | 22.4 | 153,40 | 623,178 | 216,212 |
| | 청원군 | 22.4 | 814.40 | 123,934 | 42,273 |
| 충남권 | 대전광역시 | 24.9 | 539.64 | 1,438,778 | 479,916 |
| | 천안시 | 34.3 | 636.38 | 445,485 | 151,536 |
| | 아산시 | 39.6 | 542.26 | 191,123 | 69,932 |
| | 공주시 | 18.3 | 940.72 | 130,957 | 46,378 |
| | 계룡시 | 22.9 | 60.68 | 31,340 | 10,165 |
| | 연기군 | 7.5 | 361.53 | 82,733 | 30,236 |

자료: 권영우, 2004(자료는 2003. 12.31 기준)

(3) 기회요인(Opportunity)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으로 유동인구의 증가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수도권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유동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며, 연기군이 유동인구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가 중요한 발전의 열쇠이다.

□ 전국 및 서해안과 접근성 향상으로 내륙을 연결하는 내륙항의 역할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다양한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될 것이며, 동서축의 교통이 강화되면, 중국 환황해경제권 연결된 서해안 항구와 청주공항의 물류를 내륙으로 중개할 내륙항의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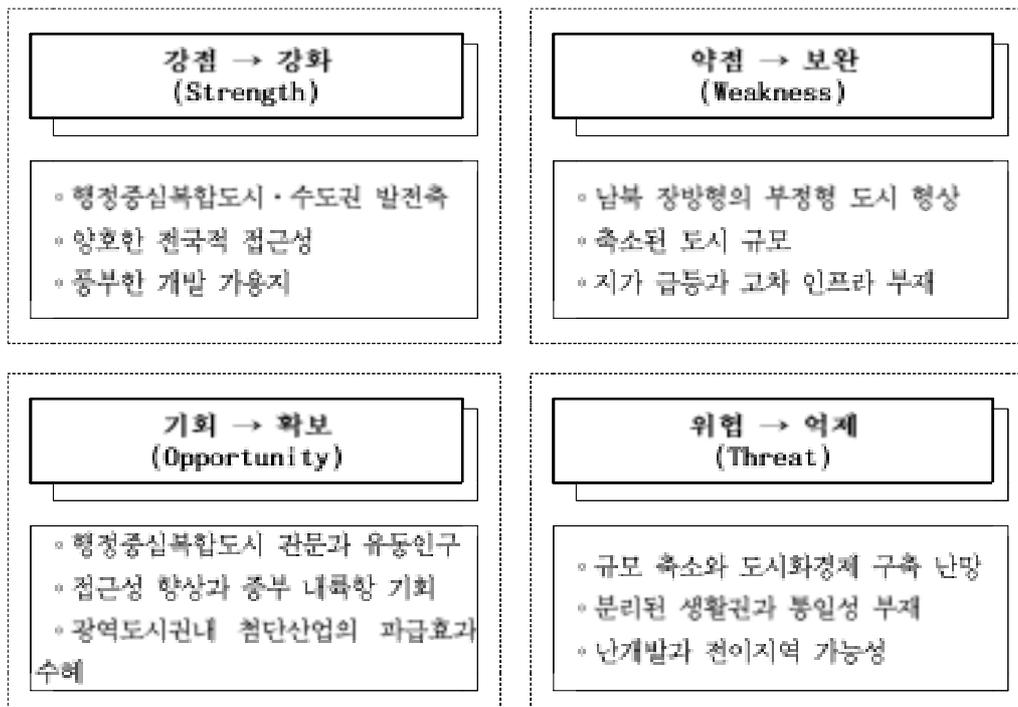
□ 광역권내 도시의 특화된 첨단산업 긍정적 파급효과 수혜 가능성

- 대덕연구단지의 지역기반화에 따른 풍부한 전문기술인력과 인근에 오송,

오창, 충주 첨단산업단지 등 지식기반 및 기술집적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지식기반산업의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잠재력이 있다.

(4) 위협요인(Threat)

- 연기군의 면적과 인구 축소로 단일도시화경제권 형성에 어려움
 -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되면서, 면적이 급격히 축소되어, 도시 경쟁력의 골간인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y)를 계획·추구하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다.
- 천안·청주·대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리된 생활권
 - 연기군의 생활권이 천안, 청주, 대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어, 통일된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축되기 보다는 주변도시에 흡수·연계·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 특화지역에 둘러쌓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전이지역이 될 가능성
 - 수도권 이전수요 증대, 주변지역의 도시개발확산에 대한 체계적 대응 부재로 난개발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이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광역권내 도시의 부적격 기능이 밀집·개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4> SWOT 분석

Ⅲ. 도시계획 기본방향

1. 계획 개념

1) 생활권 특화와 경쟁력 강화

(1) 차별화와 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연기군 차별화 전략

- 약점과 위협요인에 한계를 두고 강점과 기회요인을 다른 도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 광역권내 도시의 특성이 상충되지 않는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생활권별 Theme를 통한 특화 전략

- 천안생활권, 청주생활권,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전 생활권별 Theme를 부여하여 차별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 연기군은 면적 개발보다는 인접 광역도시와 연계·발전시키는 생활권별 Theme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2) 다양성과 선택성 부여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기능 種(Type) 다양성 확보

- 생활권 별 Theme의 포지셔닝(Positioning)을 통한 기능 種(Type)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기능 種(Type)의 다양성은 소비자에게 재미와 선택의 폭을 증가시켜, 유동인구의 집객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 기능 質(Quality) 다양성 확보

- 생활권별로 포지셔닝(Positioning)된 다양한 기능 種(Type)을 질적으로 다양화시켜 선택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능 種(Type)의 질적인 다양성은 경제적인 면에서 선택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사회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시장의 원리 존중과 시장의 실패 조절

(1) 지역구조변화의 수용

□ 생활권별 연계 강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권 도시과 연기군의 각 생활권을 연계·보완발전시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는 연기군의 도시 규모가 작아 형성시키기 어려운 도시화경제이(Urbanization Economy)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통로형(Corridor) 개발 압력의 수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수도권을 잇는 국도 1호선 주변에 발생될 통로형 개발 압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 통로형 개발압력의 수용은 남북 장방형의 도시형태가 갖는 약점과 위험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이다.

(2) 시장의 실패 조절 전략

□ 난개발의 조절과 도시의 질 확보

-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광역권 도시의 부적격 기능이 밀집·개발되어 난개발 가능성이 크다. 난개발은 도시의 인프라 부족과 도시의 질 저하를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도시의 질 확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 만약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도시의 인구나 세정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성장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난개발의 조절과 도시의 질을 조절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전략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한 개발과 잠재력 강화를 위한 도시 전략

- 연기군은 다양한 기회와 개발 압력의 중심에 있다. 연기군은 기회 요인이 있을 뿐 도시로서의 물적·사회적 인프라가 미약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을 강화시킬 전략이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 압력의 적절한 조절과 스크리닝(Screening)이 필요하다. 재정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개발 유보지를 설정하여 토지 절약적 개발과 기능설정이 필요하다.

2. 주요 도입 기능 선정

1) 주요 도입 기능 검토

(1) 도입 기능 가능군

□ 관련계획 검토

-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중부내륙물류기지건설, 보령-조치원 충청선 철도 신설, 경부선 복선전철화 및 중부선전철화 사업이 제시되었다.
- 대전광역도시계획에 의하면, 친환경전원주거, 식음료단지, 지식·정보서비스지원기능, 경전철(대전-청주/조치원) 개발 구상이 포함되었다.
- 충청권 공동발전계획에서는 연기첨단산업단지, 중부권 내륙물류기지, 금강내륙운하 148.5km 건설계획이 검토 되었다.
- 3차 도 종합개발계획은 첨단·벤처산업 집적지 및 산·학 공동벤처산업체제 구축, 도시근교형 첨단·친환경 농업 육성과 지식기반화 유도, 보령-조치원 철도 건설 및 중부권내륙화물기지조성, 대도시 배후 전원형 연구학원 도시를 주요 내용으로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7> 연기군 발전 관련계획 검토

| 관련계획 | 사업개요 |
|----------------|--|
| 4차국토종합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내륙물류기지, 보령-조치원 충청선 철도 신설 ◦ 경부선, 충북선 전철화 |
| 대전광역도시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전원주거, 식음료단지, 지식·정보서비스지원기능 ◦ 경전철(대전-청주/조치원) 구상포함 |
| 충청권 공동발전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첨단산업단지, 중부권 내륙물류기지(진입도로) ◦ 금강내륙운하 148.5km |
| 3차 도 종합개발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벤처산업 집적지 및 산·학 공동벤처산업체제 구축 ◦ 도시근교형 첨단·친환경 농업 육성과 지식기반화 유도 ◦ 보령-조치원 철도 건설 및 중부권내륙화물기지조성 ◦ 대도시 배후 전원형 연구학원도시 |

□ 국내외 행정도시 주변의 개발 사례

- 국내외 행정도시 주변의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지원비즈니스산업, 교육·연구 및 벤처산업, 방위산업, 물류산업, 의료·생명·관광·웰빙 산업 등이 입지해 있다.
- 캐나다 오타와(Ottawa)는 정보통신산업(광섬유, 컴퓨터네트워크, 유무선시스템, 위성방송장비), 소프트웨어·미디어·방송클러스터(Software Communications), 생명공학·의료·에너지·환경산업·방위산업등의 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 오타와의 위성도시 캐나다(Kanata)는 레크레이션·스포츠·여가활동의 중심지로 개발되어, 쇼핑몰, 박물관, 극장, 도소매 및 각종 레크레이션시설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다.
- 호주의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에서는 정보통신산업, 생명과학, 방위산업, 환경산업, 교육 및 관광산업 등이 연계·발전하여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 미국의 수도와 연방수도 주변의 개발은 건축 및 엔지니어링등의 서비스와 통신 및 자료의 취득·가공 등의 산업, 경영과학기술컨설팅산업,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소프트웨어 판매 산업등의 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되었다.
-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로·강남은 통신, 금융, 정보처리,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위성신도시는 부동산, 기계장비, 소비용품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 일산·여의도·강남은 영화, 방송, 공연, 예술; 서울남부지역은 오락, 골프, 놀이공원; 서울중심부는 오락, 문화, 운동관련산업; 과천·종로는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 충청권은 지식기반 산업중에서 연구 및 R&D개발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업이 특화되었다.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한다면, 잠재적으로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는 대기업정보집약형(정보통신서비스, 관광); 중소기업정보집약형(소프트웨어, 컴퓨터및정보처리, R&D, 문화); 대기업-중소기업수용 대응형(물류, 과학기술서비스); 중소기업과학기반형(전자정보기기); 대기업-전문공급자형(금융보험 관련서비스) 등이다.

<표 8> 국내외 수도 주변의 주요 기능

| 국가 | 주요 기능 |
|-----------------|---|
| 캐나다 오타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산업(광설유,컴퓨터네트워크, 유무선시스템, 위성방송장비) ◦ 소프트웨어·미디어·방송클러스터(Software Communications) ◦ 생명공학·의료·에너지·환경산업·방위산업 ◦ 캐나다위성도시: 휴양·레크레이션·스포츠·여가활동의 중심지 |
| 호주 AC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산업(Software, 컴퓨터프로그램, IT Incubator-Epicorp) ◦ 생명공학(호주국립대학, 캔버라대학, 호주국립과학 연구소) ◦ 방위산업(군납업체, 호주군사사관학교, 국방부) ◦ 환경산업(에너지재활용산업, 폐기물및수질처리, 저공해 재생기술) ◦ 교육산업 및 관광산업 |
| 미국 주도 및 연방수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Architectural, Engineering Services) ◦ 통신 데이터처리 및 호스팅(Telecommunication Data Services) ◦ 경영과학기술컨설팅(Management Scientific Technical Consulting) ◦ 컴퓨터 시스템설계(Computer System Design Services) ◦ Software 판매 서비스(Software Publishers) |
| 수도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강남: 통신, 금융, 정보처리,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위성신도시:부동산, 기계장비, 소비용품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 ◦ 일산·여의도·강남: 영화, 방송, 공연, 예술 ◦ 서울남부: 오락, 골프, 놀이공원 ◦ 서울중심부: 오락, 문화, 운동관련산업 ◦ 파천·종로: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클러스터 |
| 충청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R&D개발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업, 잠재 가능형 ◦ 대기업정보집약형: 정보통신서비스, 관광 ◦ 중소기업정보집약형: 소프트웨어, 컴퓨터및정보처리, R&D, 문화 ◦ 대기업-중소기업수용 대응형: 불류, 과학기술서비스 ◦ 중소기업과학기술반형: 전자 정보기기 ◦ 대기업-전문공급자형: 금융보험 관련서비스 |

2) 주요 도입기능 선정: Key Anchor Attraction

□ SWOT 분석의 수용

-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도시로서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원 기능 중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주변 대도시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능을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차별화이다.
-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으로, 다양한 유동인구를 유발할 것이며; 행정업무 비즈니스 보조 지원 기능을 건강 기능과 연계한 골프장, 전원 레저, 웰빙 등을 주제로 한 저밀형 개발과 주변 도시의 IT·BT·CT기술을 활용한 복합형 과일렛 실험단지 개발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 또한 전국 단위의 이벤트에 참가한 유동 인구 등을 수용하기 위한 중·저가 숙박, 지역과 시대를 대표하는 식음료 서비스 그리고 한국적 놀이 (Entertainment) 기능이 수용될 필요가 있다.

□ 시장경제 원리의 수용

-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수의 확대”와 “시장경제의 원리상 자연발생적으로 유입될 가능성 있는 기능”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 저비용·고효율의 경쟁력있는 기능을 도입해야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수도권-천안·아산-청주·연기-행정중심복합도시-대전·공주로 이어지는 통로형(Corridor Development) 개발 압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산업 입지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 천안·아산의 LCD 디스플레이, 오송·오창의 바이오메카 및 IT산업, 대덕 R&D특구로부터 파생되는 산업물류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주변 대도시의 농산물 및 음식 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 또한 고속철도와 보령(신항)~조치원으로 이어지는 충청선을 신설하여 충북선과 연계하면, 연기군은 철도거점지역으로 중부내륙물류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구예측

1) 정주 인구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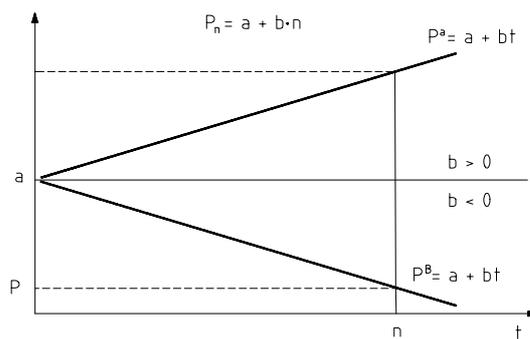
(1) 성장모형에 의한 정주 인구예측

□ 성장모형 설정(1): 선형모형

- 인구가 일정 비율로 증감할 때 사용하는 모형이다.
- 선형모형식

$$P_t = P_0 + r \cdot n$$

P_t : t 년도인구
 P_0 : 기준년도인구
 r : 인구증가율
 n : $(t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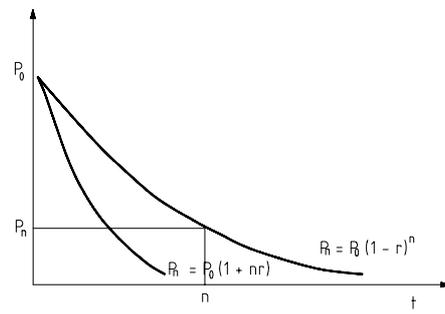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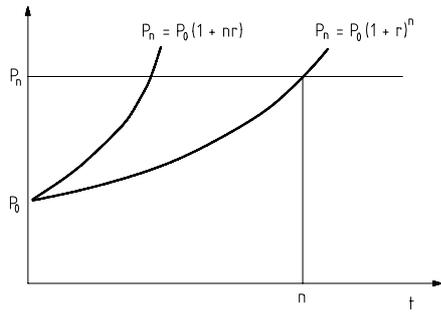


□ 성장모형 설정(2): 등차급수 성장모형

- 인구가 등차급수적으로 증감할 때 사용하는 모형이다.
- 등차급수모형식

$$P_t = P_0 (1 + rn)$$

P_t : t 년도 인구
 P_0 : 기준년도 인구
 r : 인구증가율
 n : $(t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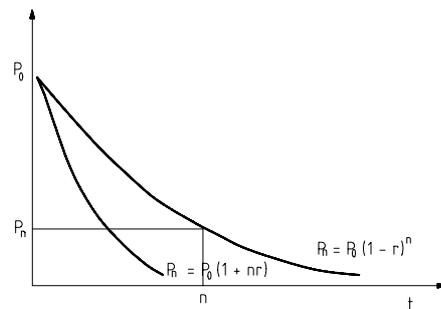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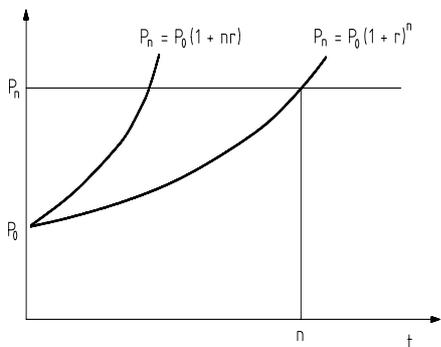


□ 성장모형 설정(3): 등비급수 성장모형

- 인구가 등비급수적으로 증감할 때 사용하는 모형이다.
- 등비급수모형식

$$P_t = P_0(1 + r)^n$$

- P_t : t 년도 인구
- P_0 : 기준년도 인구
- r : 인구 증가율
- n : (0 -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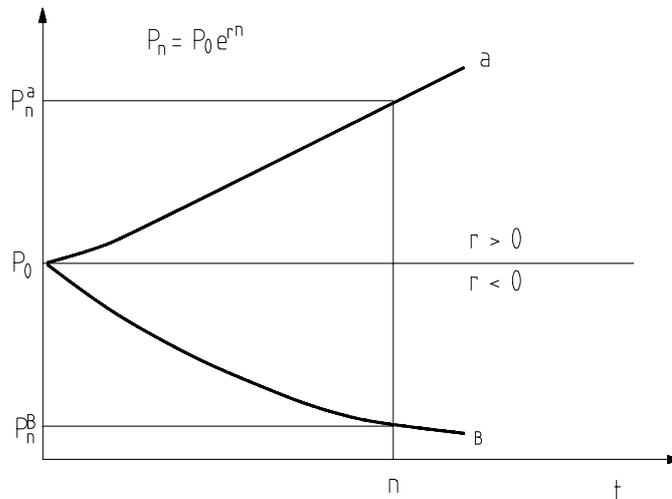


□ 성장모형 설정(4): 지수 성장모형

- 인구가 지수함수형으로 증감할 때 사용하는 모형이다.
- 지수함수 모형식

$$P_t = P_0 e^{rt}$$

- P_t : t 년도 인구
- P_0 : 기준년도 인구
- r : 인구 증가율
- n : (0 - t)



□ 성장모형에 의한 정주 인구 예측 결과

- 성장모형에 의하면, 2020년 연기군의 정주 인구는 98,677명~102,434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이러한 예측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포함되는 인구가 연기군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최대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9> 성장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

| 모형 구분 | 모형식 | 2020년 추정인구 |
|--------|-------------------------|------------|
| 선형모형 | $P_t = P_0 + r \cdot n$ | 98,677 |
| 등차급수모형 | $P_t = P_0 (1 + rn)$ | 102,434 |
| 등비급수모형 | $P_t = P_0 (1 + r)^n$ | 101,113 |
| 지수함수모형 | $P_t = P_0 e^{rn}$ | 101,967 |

(2) 성장한계모형에 의한 정주 인구 예측

□ 연기군 지형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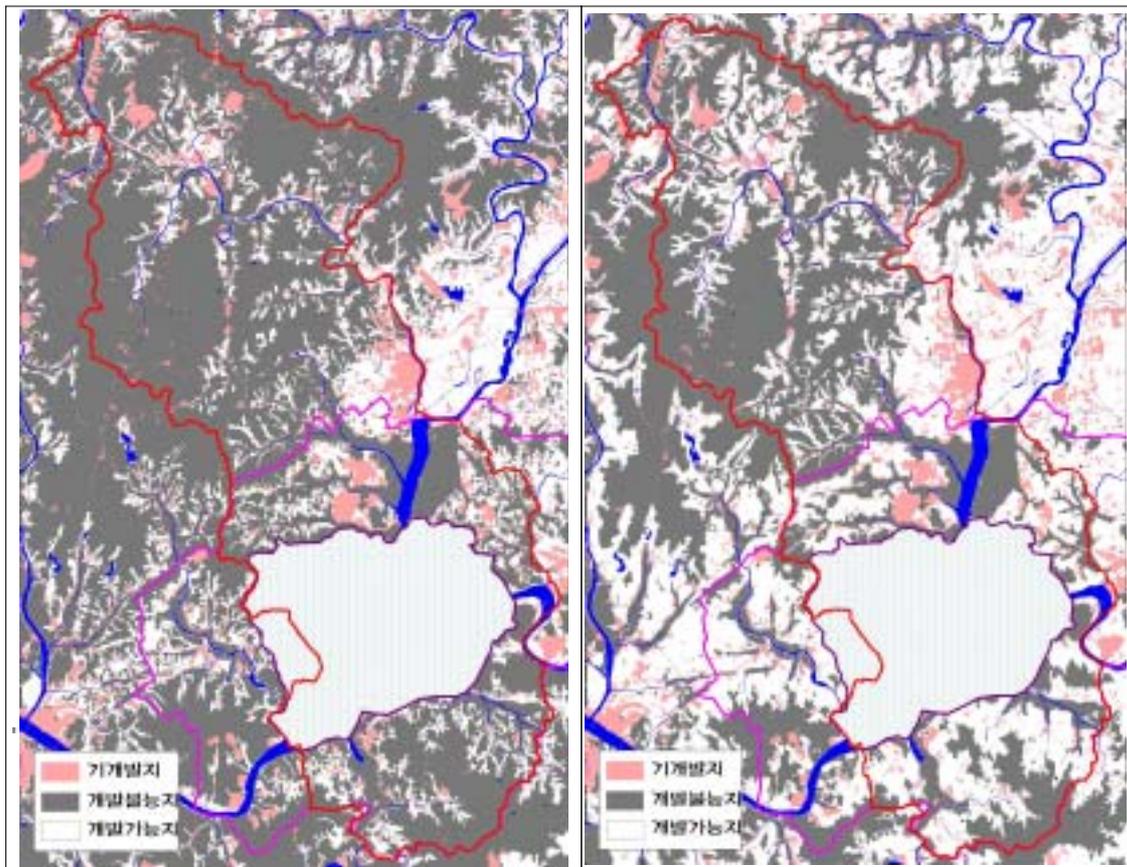
- 연기군은 북쪽의 일부 구릉지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북고남저의 지형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평야나 구릉지가 많아 타 지역에 비해 개발가능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 표고는 대부분 100m이하의 구릉성 평야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금강 및 미호천 주변에는 발달된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 표고분석 결과 연기군 지역 전체면적 대비 약 48.7%가 개발이 용이한 중저지대(해발 100m이하)이며, 이들은 주로 연기군 남부지역에 해당 한다.
-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준농림지역은 133.96km² 로 전체의 3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남면, 전의면, 전동면, 서면, 동면에 위치하고 있다.
- 농림지역은 42.4%인 153.42km² 로 전체 용도지역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7개 면지역이 153.1km²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개발 가능지 분석

- 개발 가능지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은 국토이용계획의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은 제외; 토지이용 중 기개발지와 수계는 제외; 농업진흥구역 제외; 임상 3등급 이상을 제외시켰다.
- 이러한 전제 조건하에 생태자연도와 표고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A형과 B형으로 분류하여 개발가능지를 예측하였다. A형은 생태자연도 1, 2등급을 제외하고, 표고 100m이하로 적용 분석되었다. B형은 생태자연도 1등급을 제외하고, 표고 130m이하로 적용 분석되었다.
- 분석결과, A형의 개발 가능지는 14,162,590평(4,681ha) B형의 개발 가능지는 22,243,270 평(7353ha)로 예측되었다.

<표 10> 개발가능지 유형 분석 기준

| 구분 | A형 | B형 |
|--------|---------------|---------------|
| 행정도시 | 예정지역, 주변지역 제외 | 예정지역, 주변지역 제외 |
| 토지이용 | 기개발지, 수계 제외 | 기개발지, 수계 제외 |
| 농업진흥지역 | 진흥구역 제외 | 진흥구역 제외 |
| 임상 | 3영급 이상 제외 | 3영급 이상 제외 |
| 생태자연도 | 1,2등급 제외 | 1등급 제외 |
| 표고 | 100M이하 | 130M이하 |



<그림 5> 개발가능지(A형)

<그림 6> 개발가능지(B형)

□ 개발 밀도 및 성장한계 예측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총 밀도는 68인/ha이다. 연기군이 공업용지와 웰빙 위락, 그리고 물류단지의 기능을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총 밀도보다 낮은 100인/ha 정도로 건설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 A형의 개발가능지에 의한 성장한계를 적용할 때 연기군의 한계 인구는 468,185명이며, B형의 개발가능지에 의한 성장한계를 적용할 때 연기군의 한계 인구는 735,315명이다

<표 11> 행정수도 및 국내외 도시의 개발 밀도

| 구분 | 계획면적(ha) | 계획인구(인) | 총밀도(인/ha) | 순밀도(인/ha) |
|--------------------|----------|---------|------------|-----------|
| 한국 행정중심복합도시 | 7,306 | 30만-50만 | 68 | 300 |
| 브라질 Brazilia | 15,000 | 50만 | 33 | - |
| 호주 ACT | 235,900 | 30만 | - | - |
| 파키스탄 Islamabad | 22,015 | 40만 | 18(시가지) | - |
| 말레이시아 Putrajaya | 5,000 | | 66 | - |
| 인도 Chandigar | 15,000 | | 33 | - |
| 일본 다마 | 3,196 | 309,000 | 97 | 357 |
| 일본 지바 | 1,933 | 314,000 | 162 | 402 |
| 일본 쓰쿠바 | 2,696 | 100,000 | 37 | 150 |
| 싱가폴 Bedok | 937 | 227,500 | 243 | 573 |
| 싱가폴 Jurong West | 956 | 248,500 | 260 | 434 |
| 프랑스 Marne-la-Valee | 15,000 | 218,000 | 15 | - |
| 영국 Milton Keynes | 8,800 | 250,000 | 28 | 53 |
| 한국 분당 | 1,964 | 390,000 | 199 | 615 |
| 한국 일산 | 1,574 | 276,000 | 175 | 525 |
| 한국 과천 | 230 | 54,000 | 235 | 575 |
| 한국 판교 | 929 | 89,000 | 96 | 347 |
| 한국 화성동탄 | 904 | 120,000 | 133 | 404 |
| 한국 남악 | 891 | 83,000 | 93 | 377 |

□ 성장한계모형 설정(1): 콤펌르츠 곡선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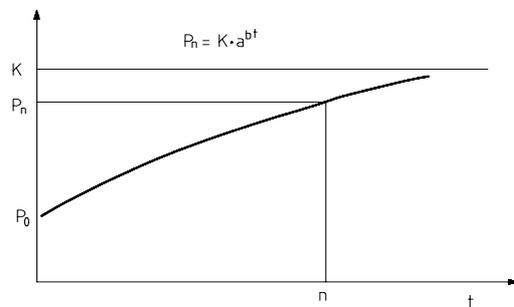
- 콤펌르츠 곡선모형의 개념: 인구가 콤펌르츠 곡선형으로 증감
- 콤펌르츠 곡선모형식

$$P_t = K a^{bt}$$

$$\ln P_t = \ln K + \ln a \cdot bt$$

$$P_t' = K + a' \cdot bt'$$

P_t : t 년도 인구
 K : 인구성장 상한치
 a, b : 상수
 n : $(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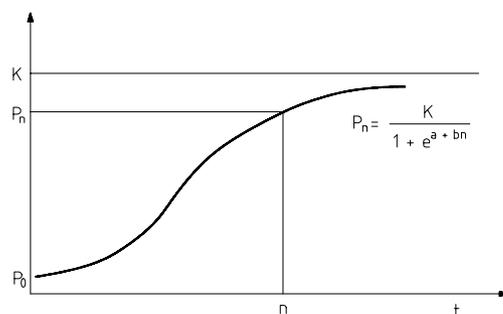
□ 성장한계모형 설정(2): 로지스틱 곡선모형

- 로지스틱곡선모형의 개념: 인구가 로지스틱 함수형으로 증감
- 로지스틱 함수 모형식

$$P_t = \frac{k}{(1 + e^{a+bt})}$$

$$\ln\left(\frac{K}{P_t} - 1\right) = a + bt$$

P_t : t 년도 인구
 P_0 : 기준년도 인구
 r : 인구 증가율



□ 성장한계모형 설정(3): 수정지수 성장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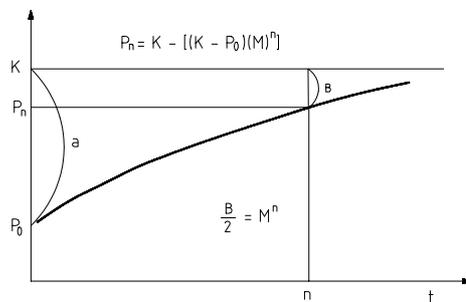
- 수정지수 성장모형의 개념: 인구가 수정지수 함수형으로 증감
- 수정지수 함수 모형식

$$P_n = K - [(K - P_0)(M)^n]$$

$$M = \frac{1}{n} \sum_{i=1}^n M_i$$

P_n : n 년도 인구
 P_0 : 기준년도 인구
 K : 인구성장한계

M : 매개변수
 n : 인구자료수 - 1
 $M_i = \sqrt[n]{\frac{(K - P_i)}{(K - P_0)}}$



□ 성장한계모형에 의한 제주 인구 예측 결과

- 성장한계모형에 의하면, 2020년 연기군의 인구는 98,677명~101,133명의 인구가 추정되었다.

<표 12> 성장한계 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

| 모형 구분 | 모형식 | 2020년 추정인구 | |
|--------|----------------------------------|------------|---------|
| | | A형 | B형 |
| 콤포르츠모형 | $P_t = K a^t$ | 98,895 | 98,677 |
| 로지스틱모형 | $P_t = \frac{k}{(1 + e^{a+bt})}$ | 100,964 | 101,133 |
| 수정지수모형 | $P_n = K - [(K - P_0)(M)^n]$ | 99,315 | 99,222 |

(3) 회귀모형에 의한 정주 인구 예측

□ 회귀모형의 개념

- 성장모형과 성장한계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구의 추세를 외삽한 것으로, 급격한 토지이용이나 기능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
- 따라서 기능이나 토지이용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하고 인구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추정이 적절하다.

- 회귀모형식

$$P_t = \alpha + \beta_t \text{Landuse}$$

- 회귀모형식 추정 결과

$$P_t = \underset{(9.30)}{49832} + \underset{(6.11)}{13.4\text{Landuse}}$$

$$F_{1,7} = 37.5 \quad R^2 = 0.83$$

□ 회귀모형에 의한 정주인구 예측 결과

- 2020년에 A형의 가용지일 경우에 81,251명, B형의 가용지일 경우에 99,177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13> 성장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

| 모형 구분 | 모형식 | 2020년 추정인구 | |
|-------|--|------------|----------|
| | | A형 | B형 |
| 회귀모형 | $P_t = \underset{(9.30)}{49832} + \underset{(6.11)}{13.4\text{Landuse}}$ $F_{1,7} = 37.5 \quad R^2 = 0.83$ | 112,670 | 148,5237 |

2) 유동 인구 예측

(1)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권역간 통행량

□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권역간 통행 발생량 및 도착량

- 2020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통행 발생량은 36만통행/일, 도착 통행량은 37만통행/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2020년 권역간 통행량 변화 (단위:천통행/일)

| 구분 | 권역 | 발생통행량 | 도착통행량 |
|------|--------|--------|--------|
| 미시행시 | 수도권 | 21,475 | 21,728 |
| | 대전·충청권 | 3,560 | 3,429 |
| | 기타 권역 | 12,209 | 12,085 |
| | 계 | 37,244 | 37,244 |
| 시행시 | 수도권 | 21,165 | 21,395 |
| | 대전·충청권 | 3,921 | 3,808 |
| | 기타 권역 | 12,207 | 12,085 |
| | 계 | 37,293 | 37,293 |
| 변화량 | 수도권 | -310 | -333 |
| | 대전·충청권 | 361 | 374 |
| | 기타 권역 | -2 | -2 |
| | 계 | 49 | 49 |

자료: 김성수 외(2004), 신행정수도 건설이 교통 및 물류체계에 미치는 영향

주: 246개 권의 내부통행량은 제외됨.

□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권역간 통행량 변화

- 2020년 수도권에서 대전충청권으로 이동하는 통행량은 56만통행/일, 대전충청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통행량은 65만통행/일 이다.
- 수도권에서 대전·충청권으로 88천통행/일 증가하고, 대전·충청권에서 수도권으로 68천통행/일이 증가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대전·충청권에는 156천통행/일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1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2020년 권역간 통행량 변화 (단위:천통행/일)

| 구 분 | | 수도권 | 대전·충청권 | 기타 권역 | 합 계 |
|------|--------|--------|--------|--------|--------|
| 미시행시 | 수도권 | 20,410 | 471 | 594 | 21,475 |
| | 대전·충청권 | 577 | 2,556 | 428 | 3,560 |
| | 기타 권역 | 741 | 402 | 11,065 | 12,209 |
| | 계 | 21,728 | 3,429 | 12,087 | 37,244 |
| 시행시 | 수도권 | 20,023 | 559 | 584 | 21,165 |
| | 대전·충청권 | 645 | 2,829 | 448 | 3,921 |
| | 기타 권역 | 728 | 421 | 11,058 | 12,207 |
| | 계 | 21,395 | 3,808 | 12,090 | 37,293 |
| 변화량 | 수도권 | -387 | 88 | -10 | -310 |
| | 대전·충청권 | 68 | 268 | 15 | 361 |
| | 기타 권역 | -14 | 18 | -7 | -2 |
| | 계 | -333 | 374 | -2 | 49 |

자료: 김성수 외(2004), 신행정수도 건설이 교통 및 물류체계에 미치는 영향

주 : 246개 존의 내부통행량은 제외됨.

(2)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유동인구 예측

□ 1인당 통행량 예측

- 1인당 목적통행은 2021년 2.6통행/일인이며, 1인당 수단통행은 2.74통행이다. 목적통행 원단위를 토대로 1일 유동인구를 추산하였다.

<표 16> 인구 1인당 시외통행 발생 원단위

| 구분 | 2006 | 2011 | 2016 | 2021 |
|------|------|------|-------------|------|
| 목적통행 | 2.38 | 2.48 | 2.52 | 2.60 |
| 수단통행 | 2.58 | 2.59 | 2.69 | 2.74 |

자료: 대전광역시(2002), 도로정비기본계획

□ 유동인구 예측

- 수도권에서 대전충청권으로 33,846명/일 증가하고, 대전충청권에서 수도권으로 26,153명/일이 증가한다. 총 60,000명/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유동인구가 증가한다.
- 2020년 대전·충청권 총인구 중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광역시, 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36%이다. 이 중에서 연기군을 거치지 않고 대전과 공주로 진입하는 비율을 50%에 가정하였다.
- 이러한 비율을 총 유동인구에 적용하면 연기군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동인구는 10,659명/일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17> 연기군 유동인구 예측

| 년도 | 충청권 통행량변화 | 충청권 유동인구 변화 | 연기군 유동인구 예측 |
|-------|------------|-------------|-------------|
| 2020년 | 156000통행/일 | 60,000명/일 | 10,659명/일 |

제2주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연기군의 변화 전망과 과제: 경제·산업 분야

강 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연기군의 변화 전망과 과제: 경제 산업 분야

강 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목 차]

-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 II. 연기군 산업 입지적 특성과 입지 현황
 1. 연기군의 산업 입지적 특성
 2. 연기군 산업 구조 및 제조업 입지 현황
 3. 연기군 주변 지역 제조업 현황
- III.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충청권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청권 파급 효과 예측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3. 충청권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대응 방향
- IV.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대응 방향과 발전 전략 모색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기군 산업 경제 변화
 2. 연기군 산업 경제의 문제점과 기회요인 분석 - SWOT 분석
 3. 행복도시 건설에 대응한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 전략 모색
- V.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시책과 사업 모색
 1. 특화된 주력산업 선정 및 전략적 육성 시책 및 사업
 2. 기존 산업 구조 고도화 시책 및 사업
 3. 계획적 산업 단지의 적극적 공급 시책 및 사업
 4. 대학의 적극적 역할 유도 시책 및 사업
- VI. 결론과 제언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연기군에 엄청난 큰 영향과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범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수도권 일극 중심인 우리나라 국토 공간구조전반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가 예정된 연기공주 지역 및 인근 충청권 지역일 것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 점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점차 가시화, 구체화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 지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미치는 파급효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 해당 지역이자, 군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편입된 연기군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 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를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 연기군 경제 산업 분야의 변화 전망과 대응 방안 모색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엄청난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기군 차원의 철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경제 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연기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기군 산업 입지적 특성과 입지 현황 파악.

- 우선 먼저 연기군 산업 입지적 특성 및 현재 입지하고 있는 제조업체 현황을 살펴본다. 동시에 연기군과 인접한 시군의 산업 경제 현황을 연기군 현황과 비교 분석한다.

□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충청권 파급 효과 예측 및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충청권 대응 방향 모색.

- 다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범충청권에 미칠 영향을 산업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충청권 차원에서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 셋째, 본 연구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응하여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대응 방향 모색.

- 여기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연기군 산업 경제 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본다. 이를 위해 SWOT 분석을 통해 연기군의 강점과 약점, 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과 위협 요

인을 규명하고 연기군의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본다.

- 넷째,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핵심 시책과 사업을 모색.
 - 여기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대응 방향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세부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 이 때 연기군의 새로운 산업 경제 변화 흐름에 대응하는 특화된 주력산업 육성 시책 및 기존 산업 구조 고도화 시책을 제시하는데, 연기군의 특화된 주력산업으로 건강산업과 물류산업을 제안한다.
 - 이외 계획적 산업 단지의 적극적 공급 시책 및 대학의 적극적 역할 유도 시책도 함께 제안한다.

- 다섯째,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한 결론 및 제안.
 -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으며, 이 중 몇 가지 강조되어야 할 제안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한다.

II. 연기군 산업 입지적 특성과 입지 현황

1. 연기군의 산업 입지적 특성

- 연기군의 입지적 특성
 - 연기군은 북으로는 천안시, 동으로는 충북의 청주와 청원, 남으로는 대전광역시, 서로는 공주시와 접하고 있으며, 충북과 충남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의 남북을 국도 1호선과 경부선철도, 경부고속철도 등이 통과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청주공항과도 인접하고 있어서, 교통의 요지이자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다.

- 대전, 청주, 천안 등 대도시와 인접하여 배후지 역할
 -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 이전에도, 연기군은 인근에 충청권의 대표적 도시인 대전, 청주, 천안과 인접해 있어서, 이들 도시의 영향권에 속해 있으며, 이들 도시의 배후 지역 역할을 해왔다.
 - 그로 인해 연기군 자체의 생활권은 대전 생활권, 청주 생활권, 천안 생활권 등으로 나누어지며, 연기군 내부의 지역 통합성은 약화되는 현상이 계속되어 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가 연기공주지역으로 확정
 - 그런데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가 연기공주지역으로 확정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군 행정구역의 남쪽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포함하고 있는 연기군의 산업 입지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그림 1> 연기군의 입지와 주변지역 현황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해 산업 입지 측면에서 큰 변화 예상
 - 이제 인구 50만 정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게 되면,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영향권 및 생활권에 포함되게 되어 산업 입지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2. 연기군 산업 구조 및 제조업 입지 현황

1) 연기군의 산업 구조 전반

□ 충남 지역에서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

- 연기군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이 17.9%, 광공업 34.2%, 서비스업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지역 평균에 비해 광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지역별로는 동면(79.0%), 전동면(59.8%), 서면(40.8%), 남면(36.1%) 순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금남면(17.7%)과 조치원읍(10.2%)은 제조업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 금남면은 농림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조치원읍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연기군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조치원읍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연기군 제조업 현황

□ 연기군 제조업 현황 개관

- 2003년 현재 연기군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수는 271개소에 종사자 10,443인이다.
- 충청남도에서 광업 및 제조업에서 연기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7.42%), 월평균종사자수(7.28%), 생산액(4.16%), 부가가치(4.79%)이고 전국 대비로는 사업체수(0.24%), 월평균 종사자수(0.38%), 생산액(0.33%), 부가가치(0.37%)수준이다.

<표 1> 연기군 제조업 현황

| 구분 | 사업체수 | 종사자수 (월평균) | 생산액 (출하액) | 부가가치 |
|-------------------|---------|---------------|--------------|-------------|
| (단위) | (개) | (명) | (백만원) | (백만원) |
| 전국 | 112,662 | 2,735,493 | 672,591,036 | 255,812,925 |
| 충남 | 3,651 | 143,375 | 53,866,402 | 19,726,454 |
| 연기 | 271 | 10,443 | 2,241,102 | 945,187 |
| 전국대비 연기 점유율(%) | 0.24% | 0.38% | 0.33% | 0.37% |
| 충남대비 연기 점유율(%) | 7.42% | 7.28% | 4.16% | 4.79% |

자료 : 통계청지.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2003)

* 여기서 사업체는 5인 이상 사업체

□ 연기군 제조업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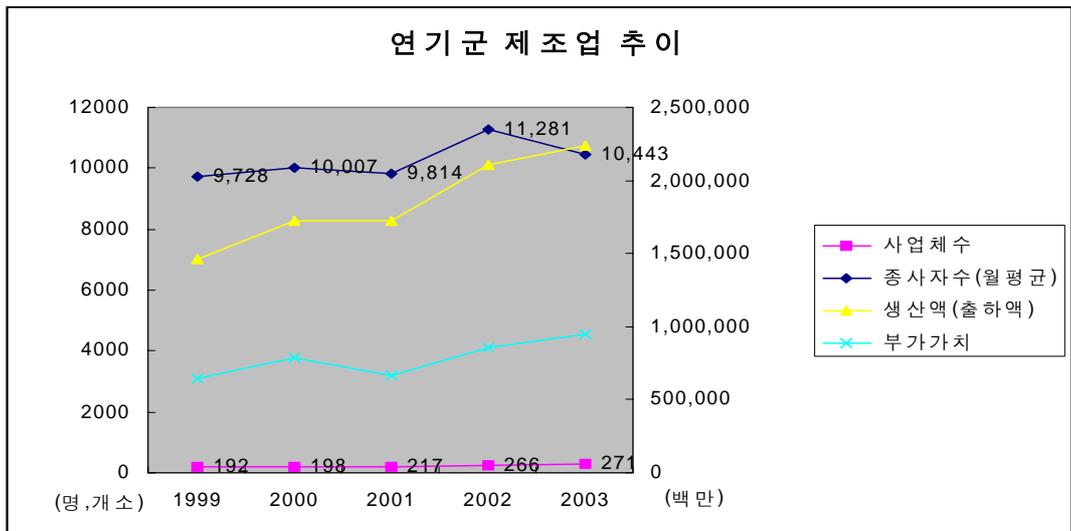
- 연기군 제조업은 1999년 이후 상당한 발전 추세에 있다.
- 연기군 제조업은 1999년 기준으로 사업체수는 41%이상 증가하였으며, 생산액, 부가가치 등도 증가추세에 있다.
- 그렇지만 연기군 제조업 월평균 종사자수는 최근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연기군 제조업체가 최근 약간 소규모화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연기군 제조업 연도별 현황

| 연 도 | 사업체수 | 종사자수 (월평균) | 생산액 (출하액) | 부가가치 |
|----------------|---------|---------------|--------------|---------|
| (단위) | (개) | (명) | (백만원) | (백만원) |
| 1999년 | 192 | 9,728 | 1,461,637 | 644,132 |
| 2000년 | 198 | 10,007 | 1,721,640 | 788,576 |
| 2001년 | 217 | 9,814 | 1,720,743 | 663,722 |
| 2002년 | 266 | 11,281 | 2,109,252 | 860,735 |
| 2003년 | 271 | 10,443 | 2,241,102 | 945,187 |
| 1999년 대비증가율 | 141.15% | 107.35% | 153.33% | 146.74% |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2003)

(5인 이상 사업체)



<그림 2> 연기군 제조업 연도별 추이

□ 연기군내 읍면별 제조업 현황과 변화

- 연기군 지역중 조치원읍에 제조업 사업체가 가장 많으며, 조치원읍, 전동면, 남면, 서면, 전의면, 금남면, 동면, 소정면 순으로 분포한다.

<표 3> 연기군내 읍면별 제조업 현황과 변화

| 구분 | 사업체수 | | 종사자수(월평균) | |
|-------|------|------|-----------|--------|
| | 2002 | 2003 | 2002 | 2003 |
| 조치원읍 | 162 | 158 | 1,253 | 1,218 |
| 전 동 면 | 89 | 92 | 1,767 | 1,806 |
| 남 면 | 94 | 89 | 1,617 | 1,306 |
| 서 면 | 80 | 77 | 1,406 | 1,437 |
| 전 의 면 | 78 | 75 | 1,906 | 1,892 |
| 금 남 면 | 72 | 72 | 509 | 497 |
| 동 면 | 49 | 55 | 3,911 | 5,167 |
| 소 정 면 | 36 | 38 | 364 | 417 |
| 계 | 660 | 656 | 12,733 | 13,740 |

자료 : 연기군청 홈페이지.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2002,2003. (1인이상 사업체대상)

-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동면이 가장 많으며, 동면, 전의면, 전동면, 서면, 남면, 조치원읍, 금남면, 소정면 순으로 분포한다.
-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남면, 서면, 전의면을 제외한 5 개 지역에서 제조업체가 증가추세에 있다.

□ 연기군 제조업 업종별 현황과 변화

- 연기군 제조업은 특별한 특화 산업이 없이 업종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음식료 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연기군 제조업 업종별 현황과 변화

| 구분 | 사업체수 | | 종사자수(월평균) | | 생산액 | | 부가가치 | |
|------------------|------|------|-----------|-------|-----------|-----------|---------|---------|
| | 2002 | 2003 | 2002 | 2003 | 2002 | 2003 | 2002 | 2003 |
| 음식료품제조업 | 38 | 4 | 1,160 | 38 | 123,000 | 2,758 | 36,900 | 1,472 |
| 섬유제품제조업 | 9 | ? | 409 | ? | 62,824 | ? | 25,526 | ? |
|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 0 | 0 | 0 | 0 | 0 | 0 | 0 | 0 |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2 | 40 | 113 | 1,242 | 24,211 | 146,217 | 9,606 | 56,520 |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2 | 9 | 25 | 409 | 3,268 | 62,824 | 1,853 | 25,526 |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16 | 2 | 623 | 113 | 145,442 | 24,309 | 58,231 | 13,011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5 | 2 | 247 | 25 | 90,014 | 2,268 | 48,697 | 753 |
| 코르크스, 석유, 핵연료제조업 | 1 | 14 | 12 | 608 | 2,975 | 1,455,042 | 788 | 41,732 |
| 화학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 31 | 6 | 993 | 261 | 179,437 | 90,414 | 93,047 | 48,873 |
|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 26 | 1 | 640 | 12 | 107,880 | 2,975 | 38,428 | 788 |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27 | 29 | 1,336 | “ | 282,723 | 157,634 | 119,367 | 73,463 |
| 제1차업금속 | 11 | 25 | 160 | 598 | 37,566 | 101,962 | 11,730 | 36,707 |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19 | 27 | 544 | 1,294 | 116,994 | 280,572 | 39,847 | 113,675 |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21 | 10 | 273 | 195 | 25,225 | 44,875 | 13,514 | 15,567 |
|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제조업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 | 14 | 20 | 492 | 564 | 116,839 | 103,970 | 33,109 | 38,367 |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18 | 22 | 3,231 | 311 | 678,048 | 26,936 | 281,494 | 14,524 |
| 의료, 광학, 광학기기및시계 | 5 | 16 | 374 | 746 | 43,308 | 159,934 | 21,808 | 42,583 |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 12 | 16 | 529 | 2,950 | 90,909 | 620,079 | 42,766 | 267,444 |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1 | 5 | 38 | 374 | 1,711 | 43,308 | 1,010 | 21,808 |
| 가구및기타제조업 | 6 | 13 | 97 | 571 | 12,816 | 97,827 | 3,568 | 45,487 |
| 재생재료가공처리업 | 2 | 9 | 16 | 126 | 3,997 | 12,920 | 1,341 | 3,967 |
| 계 | 266 | ? | 11,312 | ? | 2,149,187 | ? | 882,630 | ? |

자료 : 연기군청 홈페이지,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2002,2003), (5인이상 사업체대상)

3) 연기군 산업단지 현황

□ 연기군에는 7개의 산업단지가 있음.

- 현재 연기군에는 지방산업단지 4개소와 농공단지 3개소 등 7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 이중 월산지방산업단지가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최근에 완성되었다. 월산지방산업단은 1994년 9월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고, 1997년에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되어 2003년 12월 부지조성공사가 완공되었다. 그 후 일부 업체가 입주 후 가동 상태에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하여 존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표 5> 연기군 산업단지 현황

| 단 지 명 | 유형 | 위치(소재지) | 조성면적 (㎡) | 입주업체수 (개) | 가동업체수 (개) | 가동율 | 종업원수 (명) |
|-----------|--------|------------------------|-----------|-----------|-----------|-------|----------|
| 소정지방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 | 연기군 전희면 소정, 유천리 일원 | 269,989 | 2 | 2 | 100% | 317 |
| 월산지방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 | 연기군 남면 월산리 일원 | 1,394,847 | 38 | 21 | 55.3% | 414 |
| 전희지방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 | 연기군 전희면 신정, 관정, 노곡리 일대 | 492,123 | 9 | 9 | 100% | 712 |
| 조치원지방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 | 연기군 남면 연기리, 능왕리 일대 | 949,687 | 13 | 12 | 92.3% | 1,008 |
| 노장농공단지 | 농공단지 |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일원 | 161,984 | 18 | 17 | 94.4% | 816 |
| 용암농공단지 | 농공단지 | 연기군 동면 용암리 일원 | 116,793 | 8 | 8 | 100% | 479 |
| 청송농공단지 | 농공단지 |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 일원 | 76,033 | 3 | 2 | 66.7% | 114 |

자료 : 산학연동합정보망 e-cluster,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5년 1분기)
연기군청 홈페이지, 지방산업단지현황

□ 연기군 내 산업단지 분양 순조 및 가동율 높음

- 연기군의 산업 입지가 양호한 관계로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가동율도 높다. 연기군의 산업입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하여 더욱 더 증가가 예상된다.

□ 연기군 내 산업단지 구체적 현황

- 연기군 내 산업단지의 구체적 현황 및 입주 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아래 표에서 알수 있듯이 연기군내 산업단지의 입주 업체는 대체로 중소기업체들이며, 특화된 산업보다는 다양한 산업이 혼합되어 입주해 있는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3> 연기군 산업단지 위치도

<표 6> 산업단지별 입주업체 현황

자료 : 산학연통합정보망 e-cluster,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5년 1분기)
연기군청 홈페이지, 지방산업단지현황

3. 연기군 주변 지역 산업 현황

1) 연기군 주변 도시 현황

- 이 절에서는 연기군과 인접한 주변도시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연기군과 주변 도시들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 연기군 주변도시들의 도시 지표 분석

- 연기군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도시들은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 북쪽으로는 천안시, 동쪽으로는 청주시와 청원군, 서쪽으로는 공주시이다. 이들 도시들의 주요 도시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7> 연기군 주변도시 주요 도시지표

(2003년 12월 기준)

| 산업단지 | 업주업체명 | 업종(주생산품) |
|------------|-------------------|------------------------|
| 소정 지방산업단지 | (주)금강고려화학 | 유리장섬유 |
| | 금강종합건설㈜ | 철강제품 |
| 원산 지방산업단지 | (주)고려소재연구소 | 보호테이프 |
| | (주)리얼바이오텍 | 레반 |
| | (주)봉덕 | 구리선 |
| | (주)에스앤디 | 요구르트파우더 등 |
| | (주)코리아 에이.씨.에프 | 정수기 필터 |
| | (주)코스모텍 | 접착제 |
| | 대산산업 | 의류부자제품 |
|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김치및절임식품 |
| | 와이엔티과워텍(주) | 실린더라이너 |
| | 용마산업(주) | 레미콘,아스콘 |
| 권의 지방산업단지 | 일진소재산업㈜ | Cu박, Al박 |
| | (주)씨텍 | 자동차부품 |
| | 월드웨이㈜ | 실크아미노산 |
| 조치원 지방산업단지 | 크리스탈솔루션㈜ | 초전도체료 |
| | (주)국일방직 | 면사 |
| | (주)대화 | 콘크리트혼화제 |
| | (주)발레오테크 | 자동차부품 |
| | (주)세아침 | 만두의 냉동식품 |
| | (주)세창 | 부직포 |
| | (주)영광산업 | 지오컴포지트 |
| | (주)케프스 | 자동차연료필름 |
| | (주)효성 | 철탑,철구조물,용접기 |
| | 대림산업(주)조치원공장 | PE파이프(수도,가스,하수등),SHEET |
| | 대림콘크리트공업(주) | 인조대리석(MIRATON) |
| | 신한일전기㈜ | 선풍기,온풍기 |
| | 종림산업㈜ | 철구조물 |
| | 한국슈레다산업㈜ | 고철가공품 |
| 한국지씨씨㈜ | 연마지,비금속광물분쇄처리 | |
| 노장농공단지 | (주)금 강 | 혁 화 |
| | 주 한 산 업 | 병 과 류 |
| | 이 디 엠 풍 전 | 절 연 전 선 |
| | 세 립 테 크 | 플 로 그 |
| | (주)유 아 이 디 | LCD |
| | 화 성 전 선 | 전 선 |
| | 영 신 정 공 | 오 일 필름 |
| | 한 양 사 료 | 사 료 |
| | 한 국 클 마 | 화 장 품 |
| | 삼 아 통 상 | 프 레 스 보 드 |
| | (주)삼 화 전 착 | 부 품 도 장 |
| | 하 원 정 밀 화 학 | 화 학 약 품 |
| | 한 국 유 나 이 티 드 제 약 | 의 약 품 |
| | 한 일 정 공 | 철 골 조 |
| | 신 한 정 밀 공 업(주) | 샤 푸 트 |
| | 한 우 리 포 리 97 - | 케 이 블 판 |
| | 지 남 전 자 | 선 풍 기 |
| | 중 국 통 상 | 전 극 선 |

| 구분 | 대전광역시 | 청주시 | 천안시 | 공주시 | 청원군 |
|-----------------------|-----------|---------|-------------------------|---------|------------------|
| 면적 (km ²) | 539.64 | 153.32 | 636.45 | 940.90 | 814.4 |
| 인구 (인) | 1,438,778 | 606,305 | 445,485 | 133,012 | 121,235 |
| 가구 | 479,916 | 201,444 | 151,536 | 45,146 | 43,159 |
| 대학 | 16 | 4 | 11 | 3 | 4 |
| 종합병원 | 8 | 5 | 4 | 1 | - |
| 국가공단 | 대덕밸리 | - | 천안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 | - | 오송생명과학단지 |
| 국보·보물 | 4 | 10 | 14 | 35 | 4 |
| 유동단지 | 2 | - | 1 | - | 중부내륙화물기지 추진 중 |
| 호텔(특급) | 3 | - | - | - | - |

자료 : 각 도시의 통계연보 참조

□ 연기군 주변도시들의 산업 구조 현황

- 다음으로 연기군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도시들의 산업구조 현황을 아래 표와 같이 각 업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기군 주변 지역은 잘 발달된 제조업 및 과학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연기군 바로 인근에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충청권의 오송, 오창, 충주 첨단산업단지 등 지식기반 및 기술집적 산업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 연기군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즉 대덕연구단지의 전문기술인력과, 천안의 전자산업, 청주의 생명산업 등의 발전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8> 연기군 주변 지역 사업체 및 종사자수(2002)

| 구분 | 청주 | | 천안 | | 대전 | | 공주 | | 청원 | |
|------------------|--------|---------|--------|---------|--------|---------|-------|--------|-------|--------|
|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 계 | 38,903 | 176,256 | 29,227 | 152,656 | 91,850 | 403,620 | 8,127 | 31,867 | 5,654 | 35,860 |
| 농업 및 임업 | 5 | 192 | 18 | 329 | 7 | 176 | 16 | 128 | 11 | 55 |
| 어업 | - | - | - | - | - | - | - | - | 1 | 3 |
| 광업 | 2 | 9 | 1 | 17 | 8 | 53 | 5 | 104 | 13 | 177 |
| 제조업 | 2,308 | 32,203 | 2,902 | 54,633 | 6,391 | 48,843 | 801 | 6,172 | 1,036 | 19,104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8 | 575 | 11 | 282 | 34 | 1,991 | 5 | 61 | 2 | 124 |
| 건설업 | 1,077 | 11,912 | 995 | 5,105 | 2,182 | 19,151 | 219 | 1,840 | 153 | 1,210 |
| 도매 및 소매업 | 11,345 | 33,307 | 7,984 | 21,662 | 26,990 | 77,553 | 2,296 | 4,864 | 1,205 | 3,137 |
| 숙박 및 음식점업 | 8,752 | 22,384 | 6,245 | 16,323 | 18,776 | 52,484 | 1,875 | 4,267 | 1,248 | 3,187 |
| 운수업 | 3,875 | 10,001 | 2,429 | 7,629 | 9,432 | 25,786 | 572 | 1,264 | 530 | 986 |
| 통신업 | 86 | 1,494 | 60 | 1,137 | 239 | 5,071 | 22 | 283 | 20 | 108 |
| 금융 및 보험업 | 514 | 7,847 | 365 | 5,022 | 1,103 | 17,748 | 99 | 1,238 | 52 | 451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153 | 4,502 | 916 | 3,052 | 3,122 | 12,383 | 157 | 381 | 109 | 343 |
| 사업 서비스업 | 1,037 | 8,802 | 745 | 5,676 | 2,680 | 36,168 | 129 | 483 | 48 | 554 |
| 공공행정 및 사회 보장행정 | 111 | 6,594 | 89 | 3,015 | 252 | 18,961 | 62 | 2,300 | 34 | 626 |
| 교육 서비스업 | 1,794 | 15,797 | 1,188 | 12,244 | 3,531 | 35,941 | 351 | 3,952 | 203 | 3,041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17 | 7,074 | 625 | 5,906 | 2,265 | 17,850 | 179 | 1,419 | 118 | 775 |
|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 | 1,565 | 3,851 | 1,196 | 3,046 | 3,582 | 9,517 | 240 | 678 | 157 | 364 |
|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 4,454 | 9,712 | 3,458 | 7,578 | 10,716 | 23,944 | 1,099 | 2,433 | 714 | 1,615 |

2) 연기군 주변 지역 제조업 발전 현황

- 이 절에서는 연기군과 인접한 주변 지역들의 제조업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연기군 제조업의 상대적 발전 수준 파악 및 연기군과 주변 지역들의 협력 및 보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 연기군 인근지역 제조업 업종별 현황과 변화

- 연기군과 인접한 천안, 아산, 청원 지역은 충청권 지역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대표적 지역들이다. 연기군 제조업의 발달 정도를 상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이러한 제조업 발달 지역과 연기군의 지표를 비교해 보았다.
- 아래 <표 9> 와 <그림 >에서 잘 나타나듯이 연기군은 인접한 천안,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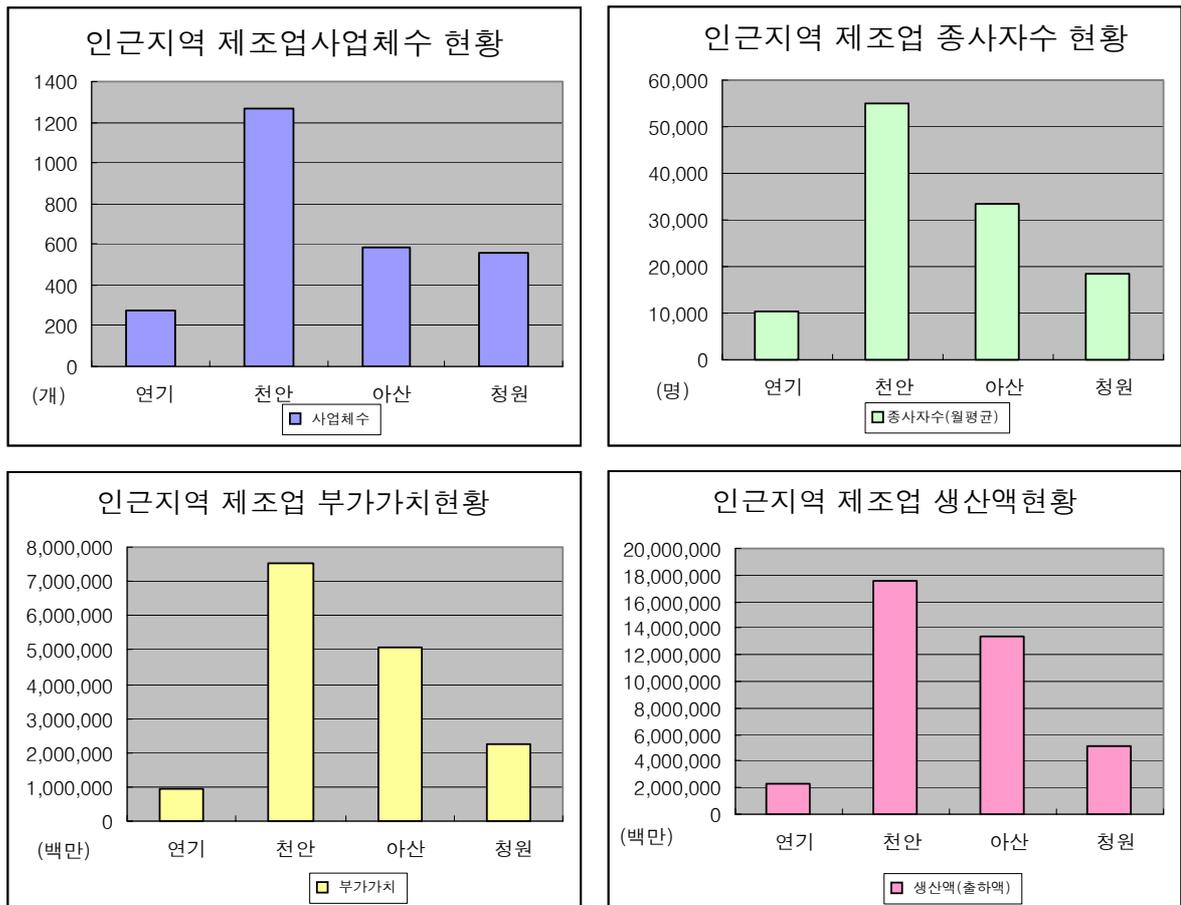
산 및 청원과 같은 제조업 발달 지역에 비해 제조업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표 9> 연기군 인근 지역 제조업 현황

| 구분 | 사업체수 | 종사자수 (월평균) | 생산액 (출하액) | 부가가치 |
|------|-------|---------------|--------------|-----------|
| (단위) | (개) | (명) | (백만원) | (백만원) |
| 연기 | 271 | 10,443 | 2,241,102 | 945,187 |
| 천안 | 1,269 | 55,172 | 17,612,492 | 7,510,114 |
| 아산 | 583 | 33,607 | 13,365,225 | 5,066,233 |
| 청원 | 560 | 18,334 | 5,077,470 | 2,270,167 |

자료 : 통계청,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2003)

* 여기서 사업체는 5인이상 사업체



<그림 3> 연기군 인근 지역 제조업 현황 및 연기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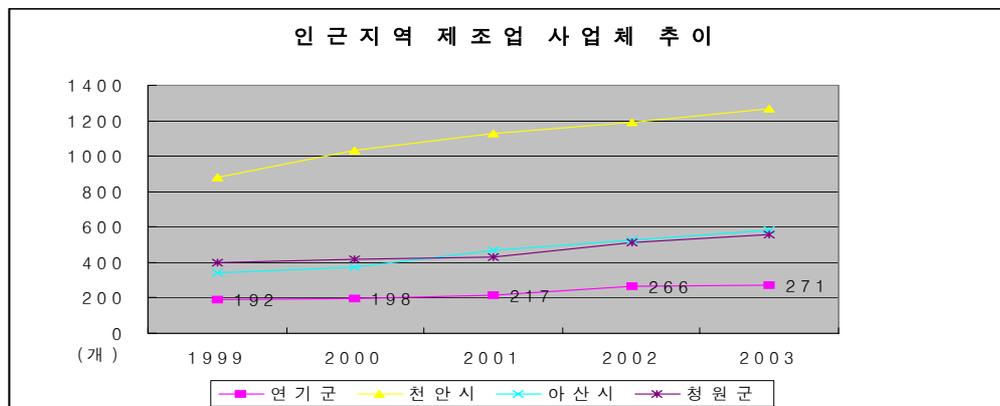
□ 연기군 인근지역 제조업 사업체수 연도별 현황

- 아래 표는 연기군 및 연기군 인근 지역 제조업 사업체수의 증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기군은 사업체수가 적지만, 사업체수 증가비율은 인근 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이로 미루어, 향후 연기군에도 인근 제조업 발전 지역 수준으로 제조업 발전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된다.
- 특히 현재 천안, 아산 지역은 수도권의 기능적 확장에 기인하여 사업체수가 늘고 있는데, 향후 수도권이 남쪽으로 더욱 확장되고, 여기에 덧붙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북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연기군의 제조업체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표 10> 연기군 및 인근 지역 제조업 사업체수 연도별 현황(사업체수)

| 연 도 | 연기군 | 천안시 | 아산시 | 청원군 |
|-----------------|--------|--------|--------|--------|
| 1999 | 192 | 883 | 344 | 400 |
| 2000 | 198 | 1,030 | 373 | 420 |
| 2001 | 217 | 1,130 | 466 | 433 |
| 2002 | 266 | 1,190 | 525 | 515 |
| 2003 | 271 | 1,269 | 583 | 560 |
| 1999년 대비 증가율 | 141.2% | 143.7% | 169.5% | 140.0% |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2003) (5인이상 사업체)



<그림 4> 연기군 및 인근 지역 제조업 사업체수 변화 추이

III.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충청권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청권 파급 효과 예측

□ 충청권 인구나 고용 증가, 그리고 경제 산업의 효율성 증대 예측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계획된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관련 연관 산업 등이 이전하게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한 충청권 및 인근 지역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인구나 고용이 크게 늘 것이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시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가 약 65만명, 고용은 약 11만 6천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연구 있음)⁷⁾ 관련서비스업의 발달,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따른 경제 산업 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 또한 정부기관과 관련 있는 단체, 연구기관 등 이전에 따른 정보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각종 국제기능이 일부 입지함으로써 국제적 자본유치 및 정보교류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앙 행정기구와의 접촉편의 증대로 재정, 금융, 공공사업 인허가와 관련정보 획득에 유리함에 따라 일부대기업의 본·지사 이전도 기대된다.

□ 지역 총생산 증가 효과

- 한편 얼마전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수행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30조원의 건설부문 투자로 약 2조원의 생산유발과 2만5천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김의준은 37조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투자가 약15조원(추가적 생산유발 약 3.5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전망한 바 있다. 즉, 인구 50만명의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대략적으로 중부권(강원권을 포함)의 지역총생산은 2007~2010년은 2조원, 2011~2020년 47조원, 2021~2030년은 103조원으로 2007~2030

7) 신행정수도연구단,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 2003, pp.15~21.

년의 전체기간으로는 153조원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지역생산액 성장률로 환산하면 2007~2030년의 전 기간에 걸쳐 5.52% 늘어나는 것에 해당한다. 한편으로 행복도시 건설로 충청권의 토지가격은 8.5%, 주택 가격은 5.7% 상승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11>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연구자 | 건설비용 | 경제적 파급효과 | | 비 고 |
|-------------------|-------------|--|--|----------------------|
| | | 전국차원 | 충청권 | |
| 김의준 (2003. 7) | 37조원 투 입 | 생산유발: 47~48조 (수도권 15조원, 영·호남 17조원) GRDP 성장률 : 연평균 0.41~0.42% | 생산유발: 15조 (순유발은 3.4조원) GRDP 성장률 : 연평균0.82~0.86% | 2007~ 2020 기간중 |
| 전명진 (2003. 7) | | 수도권 고용감소 : 6.4~20.5만명 | 고용유발: 8.3~26.8만명 | |
| 한국은행 (2003. 5) | 30조원 투 입 | | 생산유발: 2조원 고용유발: 2.5만명 | |

<표 12>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중부권의 지역총생산 변화 추정

| 지역 | 년도 | 2007-2010 | 2011-2020 | 2021-2030 | 2007-2030 |
|--------|-----------|-----------|-----------|-----------|-----------|
| | 지역생산액(조원) | | 2.11 | 47.41 | 103.275 |
| 성장률(%) | | 0.66 | 4.69 | 7.18 | 5.52 |

자료: 행복도시연구단,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2003.

□ 인프라 확대 등 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접근을 위한 연계 교통망 확충 등 원활한 교통 편의를 위한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도시의 건설은 주변지역과의 인프라시설의 확대구축을 통해 충청권 도시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며, 인프라시설의 확대구축은 산업의 생산성 증대와 비용구조의 개선을 통해 충청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 또한 수도권과 기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으로 다양한 노동인력의 확보가 보다 용이해지고, 다양한 기능의 집적으로 집적의 이익(Agglomeration Economy)이 발생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 주변 도시들의 정주 환경 수준 상승

-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토의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주변도시들의 기능 변화도 예상된다. 인근의 대전, 청주, 천안 등 주변 도시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상호기능분담 및 긴밀한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수준 높은 도시생활환경이 창출되고,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복지후생시설 등이 건설되면, 이 곳에 새로 이주할 주민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 역시 편리한 이용을 보장받게 됨으로서, 주변 지역 정주 환경 수준이 대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긍정적 효과 기대와 부정적 효과 우려

- 종합적으로 충청권은 행복도시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어 국내외적으로 이미지 홍보를 통한 “장소 편축”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그렇지만 이러한 효과는 행복도시에 인접한 대도시에서 기대되는 효과이며, 행복도시 주변의 중소도시들은 각종 인력과 자본, 기능의 유출가능성이 커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 행복도시는 충청권 발전의 촉매 작용을 하도록 하여야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본래 목적은 행복도시 건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수도권 분산,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등 보다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행복도시가 인접 충청권, 그리고 다른 지방 대도시권의 발전 잠재력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 지역과 함께 동반 발전 하는 것, 즉 함께 상생하도록 계획되어야 함. 다시 말해 행복도시가 또 하나의 새로운 불균형의 원인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행복도시는 혼자만 발전하기 위한 폐쇄적 자족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충청권 주변 도시들과 적절한 기능 분담 및 네트워크를 통하여, 특성화된 도시들간의 연계 발전의 촉매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행복도시에 유치되어야 할 기능들
 - 이런 측면에서 행복도시에 유치되어야 할 기능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 충청권내 주변 도시와 가능한 한 경합이 되지 않는 기능
 - 시너지효과를 유발하여 주변도시의 성장에 기여하는 기능
 - 특히 산업경제 측면에서, 행복도시에 유치될 산업경제 부문은 인접 충청권 지역의 산업경제 부문과 경쟁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채워 주어, 충청권 광역 경제권의 지역혁신체계를 한단계 up-grade 시키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행복도시의 자체 필요성 및 충청권 동반 발전을 위해서는 행복도시에는 충청권 인근 지역에 특화된 제조업보다는, 국가 행정에 필요한 지원기능, 국제 교류 기능, 교육·연구기능, 문화관광기능, 국방안보기능 등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충청권 통합 대도시권 형성 발전

- 이를 통해 행복도시는 인접 대전, 청주 등과 분리, 폐쇄된 도시가 아니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통합 대도시권으로 발전하도록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을 계기로 새롭게 통합된 충청권 대도시권은, 전 국토 차원에서 수도권과 그리고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등 다른 대도시권들과 적절한 기능 분담과 특화 발전을 통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3. 충청권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대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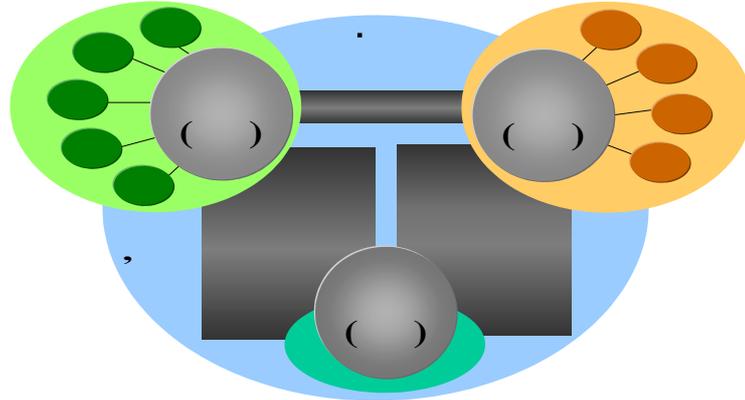
□ 행복도시와 주변 도시들간의 기능분담과 네트워크 형성 필요성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충청권 산업 발전 촉진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새로운 경제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충청권의 기존 도시들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즉 행복도시 주변의 도시 및 지역들 간에 기능분담을 통한 도시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개별도시의 기능 전문화를 추진하고, 행복도시와 주변 도시간의 기능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산업적 특성과 미래 전략산업을 고려하여 도시들 간에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주변도시들 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충청권 첨단기술 삼각벨트 구상은 여전히 유효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 이전에도 충청권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 충남 천안 중심의 전자산업, 충북청원 중심의 생명산업을 서로 연계하는 첨단기술삼각벨트 계획이 구상된 바 있다. (국토연구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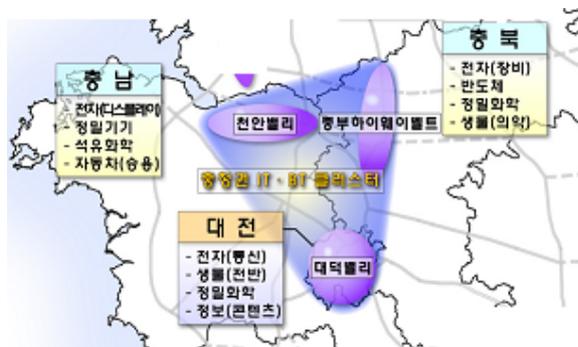
- 이 구상에 따르면 충청권내 3대 전략산업 거점지역간에 간선도로망을 활용하여 충청권 첨단삼각기술벨트를 조성하고 벨트상 관련기업의 입지 및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서, 행복도시 건설이 추진되어도 이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충청권 첨단기술삼각벨트(Technology Triangle) 개념도

□ 충청권 각 지역들의 기능분담

- 충청권 주변 도시와 지역들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자 나름대로 기능을 분담하여 특화한 후, 통합적인 산업 네트워크 형성 및 광역도시 경제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 행복도시 주변 충청권 지역의 전략산업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이러한 전략산업을 활용하여, 이들이 함께 통합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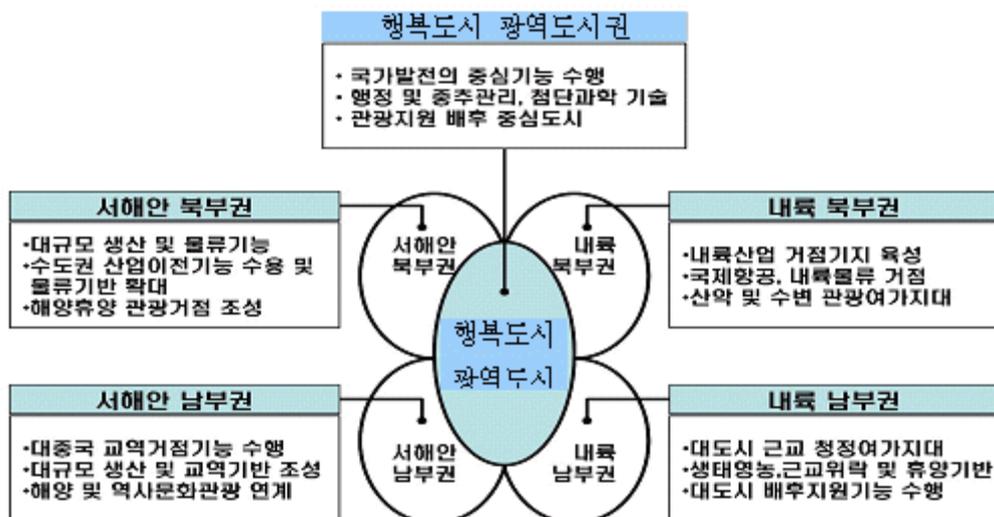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그림 5> 충청권 3개 시도의 전략산업 발전방향

- 충청권 3개 시도의 전략산업
 - 대전 전략산업 : 전자(통신) 생물(전반) 정밀화학, 정보(컨텐츠)
 - 충북 전략산업 : 전자 (장비), 반도체, 정밀화학, 생물 (의학)
 - 충남 전략산업 : 전자(디스플레이), 정밀기기, 석유화학, 자동차(승용차)
- 충청권 3개 시도의 향후 발전 방안
 - 대전 : 대덕단지 R&D역량의 산업화를 통한 기술주도형 벤처기업의 산실
 - 충북 : 오송·오창단지 등 양대축을 활용한 IT·BT의 생산·연구 중심지 도약
 - 충남 : 천안·아산벨리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의 집적지로 개발



<그림 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충청권 산업의 네트워크화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그림 7> 충청권 개발의 구도

IV.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대응 방향과 발전 전략 모색

1. 행복도시 건설과 연기군 산업 경제 변화

- 행복도시 건설은 연기군 산업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행복도시 건설로 중앙행정기능 및 다양한 복합기능을 갖춘, 그리고 그 속에서 고급 기술과 상당한 구매력을 갖춘 30만에서 5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새로운 도시가 연기군의 남쪽 지역에 출현하게 된다.
 - 연기군 지역은 그 절반은 행복도시의 예정지역이고, 나머지 절반은 행복도시의 직접영향권에 포함되므로, 행복도시 건설이 연기군의 산업 경제 측면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행복도시 광역교통망 건설로 연기군 산업 입지 경쟁력 향상.
 - 우선 행복도시와 수도권 및 천안 지역, 청주 지역 등을 연계 하는 광역 교통망이 연기군 지역을 통과할 예정이다. 이처럼 새로 형성될 행정 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 구조 속에 연기군 지역이 포함된다면, 연기군의 접근성은 매우 향상되어 산업 입지적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 행복도시 광역교통망 건설로 연기군 산업 입지 경쟁력 향상.
 - 우선 행복도시와 수도권 및 천안 지역, 청주 지역 등을 연계 하는 광역 교통망이 연기군 지역을 통과할 예정이다. 이처럼 새로 형성될 행정 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 구조 속에 연기군 지역이 포함된다면, 연기군의 접근성은 매우 향상되어 산업 입지적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 소비시장 확대, 관련 산업 집적 등으로 연기군 산업 입지 경쟁력 향상.
 - 그런데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게 되면, 이 주변에 교통체계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인구 증가와 산업 물동량 증가, 고소득 소비자를 가진 소비시장 확대, 관련 산업 집적 등의 효과도 예상되므로 제조업 및 물류 산업의 입지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입지 경쟁력 향상을 지역 산업 경제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함.
 - 이렇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연기군의 입지 경쟁력 향상을 지역 산업 경제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연기군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발빠른 노력이 요청된다.
 - 행복도시에는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복합도시적 특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산업이 유치될 예정이다. 연기군의 산업은 행복도시에 유치될 새로운 산업과 상호보완 및 연계될 필요가 있다.
 - 이때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크게 개선되는 연기군의 산업 입지적 환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 저부가가치 위주의 연기군 산업 구조를 보다 지식 집약적, 기술 집약적으로 전환시키고, 새로운 첨단 제조업을 유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연기군의 특화 발전된 산업이 주변 지역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즉, 다시 말해 연기군에서는 산업 입지 경쟁력 향상이라는 외부 조건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신규산업의 유치,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연기군 나름대로 특화된 산업 경쟁력을 갖추어 기존 인접 지역인 천안, 청주, 대전 지역의 산업 및 행복도시에 유치될 새로운 산업과 조화롭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2. 연기군 산업 경제의 문제점과 기회요인 분석 - SWOT 분석

- 연기군 산업 경제의 SWOT 분석
 - SWOT 분석은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기회 요인 (Opportunities), 위협 요인(Threats)을 고려하여, 지역이 처한 여건을 분

석하는 기법이다. 이를 이용하여 연기군 산업 경제가 현재 처해있는 여건과 현황을 고려하면서 향후 비전과 지역 발전 목표를 정립할 수 있다.

□ 연기군의 강점

- 연기군 지역이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잘 발달된 교통망이다. 연기군은 국토 중심부에 입지해 있고 간선교통망의 통과·교차지점으로서 국내 주요거점지역과의 접근성이 아주 양호한 편이다.
- 또 하나의 강점은 주변 지역에 잘 발달된 제조업 및 과학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연기군 바로 인근에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충북권의 오송, 오창, 충주 첨단산업단지 등 지식기반 및 기술집적 산업기반이 구축되어 있어 연기군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즉 대덕연구단지의 전문기술인력과, 천안의 전자산업, 청주의 생명산업 등의 발전이 미치는 과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 금강수계 인접으로 인한 풍부한 용수, 풍부한 가용토지, 자연재해가 거의 없다는 점등도 산업 입지적 측면에서 연기군의 강점이다.

□ 연기군의 약점

- 연기군의 약점은, 주변 대도시권의 세력확장으로 인한 생활권의 지속적 잠식이다. 연기군의 인구가 10만이 안되는 상태에서 주변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대전, 청주, 천안 등 이미 세 개나 있다. 교통망의 발달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 읍·면간의 시간거리 단축으로 인하여 이미 남부는 대전광역권에, 북부는 천안권에 잠식당하고 있다. 더구나 바로 아래 행복도시가 건설된다면, 연기군은 독자적인 지역경제권이나 생활권을 구성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 산업입지 측면에서는 내륙에 위치한 관계로 특정산업입지에 제약이 있다는 약점이 있다.

□ 연기군의 기회요인

- 연기군의 기회 요인과 위협요인은 둘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연기는 행복도시 예정지에 입지해 있어 지역인프라 구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대규모 국가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지역 내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교통망이 확대되면 연기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지역 상호작용에서 차지하는 결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 또한 기존의 연기군 산업기반과, 행복도시에 새로 유입할 신산업이 서로 연계된다면,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도시 건설로 30만에서 50만 명의 인구가 바로 옆에 유입되고, 유동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주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 연기군의 위협요인

-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또한 연기군의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군의 절반 정도 면적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되어 독자적인 생존 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주변 기존도시인 청주나 천안 및 새로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비교할 때, 인구규모나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자체 발전이 가능한 자립경제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 바로 독자적 생존 방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한다.
- 또한 행복도시의 건설 과정에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책이 실시될 경우에는 연기군 발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 즉 산업입지 측면에서 연기 지역은 행복도시 건설로 인하여 광역교통망과 기반시설이 확충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산업입지 규제가 심해진다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표 13> 연기군 산업 경제의 문제점과 향후 기회요인 분석 - SWOT 분석

| 강 점(S) | 약 점(W) |
|--|---|
| <input type="checkbox"/> 양호한 교통여건 <input type="checkbox"/> 주변 지역의 잘 발달된 제조업 및 과학기술 기반 <input type="checkbox"/>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 금강 수계 인접하였고, 가용토지가 풍부, 자연재해가 거의 없음. | <input type="checkbox"/> 주변 대도시권의 세력확장으로 인한 생활권의 지속적 잠식 <input type="checkbox"/> 내륙에 위치한 관계로 특정산업입지에 제약 |
| 기 회(O) | 위 험(T) |
| <input type="checkbox"/> 행복도시 건설로 인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기대 <input type="checkbox"/> 행복도시 건설로 인한 주변 인구 증가, 관련 산업 집적 효과 | <input type="checkbox"/> 연기군의 상당 면적이 행복도시에 편입되어 독자적 생존을 위협함 <input type="checkbox"/> 행복도시 주변 난개발 규제에 의한 발전 제약 우려 |

연기군 산업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이처럼 연기군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행복도시 건설이 가져올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고려할 때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가? 어떠한 방안을 통하여 행복도시 건설이 연기에 미치는 긍정적 과급효과를 최대화하면서 독자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연기의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부터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3. 행복도시 건설에 대응한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 전략 모색

1)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 전략의 기본 원칙

- 행복도시와 연기군, 주변 도시들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 정립
 - 행복도시 건설은 주변의 충청권 전체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한 연기군에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 행복도시와 연기군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가 바로 향후 연기군 산업경제 분야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 앞서 행복도시의 파급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 충청권의 연계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행복도시와 연기군, 나아가 인근 대전, 청주, 천안 등 인근 도시들이 광역 대도시권을 형성하면서 서로 기능을 분담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건강과 관련된 연기군의 특화 산업 발전이 필요
 -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구성된 연기군은 새롭게 형성될 행복도시 중심의 광역 대도시권 속에서 어떠한 독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연기군이 광역 대도시권에서 독자적 생활권과 경제권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기군 나름대로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 이때 연기군의 특화 산업 발전은 연기군이 지향하는 미래상인 건강도시와 긴밀한 관련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의 주요 핵심 시책

-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해 네 가지 주요 전략 방향 제안
 - 연기군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산업 경제 발전의 주요 핵심 시책으로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시책을 제안할 수 있다.

□ 변화에 대응한 특화된 주력산업 선정 및 전략적 육성 시책

- 첫째, 연기군은 행복도시 건설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신규 산업 육성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 이때 집중적으로 육성할 연기군의 새로운 주력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현재 연기군이 지닌 잠재적 조건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면서, 주변 지역과 상호 보완 관계를 지닐 수 있고, 또 향후 미래 발전 전망이 뛰어난 산업이어야 한다. 특히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연기군의 미래상과 부합하는 산업일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조건을 고려한다면, 연기군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신규 주력산업으로

1) 건강산업 - 그중에서도 식품산업과 의료산업

2) 물류산업 - 산업물류와 식품물류

3) 문화산업 - 영상애니메이션

을 제시할 수 있다.

□ 기존 산업 구조 고도화 시책

- 둘째, 연기군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 현재 연기군 주민들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 산업은 계속적으로 구조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점차 쇠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지 주민들의 고용 및 소득 상실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첨단화를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계획적 산업 단지의 적극적 공급 시책

- 셋째, 계획적 산업 단지의 적극적 공급 시책이다.
- 계획적 산업단지의 공급을 통하여 우선 행복도시 건설을 계기로 인근 지역의 새로운 산업단지 수요 폭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행복

도시나 인근 대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싼 연기군 지역에서 계획적 산업단지를 적극 공급하는 것이 이 지역의 산업 수요에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일 것이다.

- 또한 계획적 산업단지 공급을 통하여, 개별 입지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 이때 새로운 계획적 산업단지 공급과 연기군의 미래 산업 경제 발전 전략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산업단지에는 연기군이 집중 육성코자 하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입지시켜야 한다.

□ 대학의 적극적 역할 유도 시책

- 넷째, 현재 이 곳에 소재되어 있는 대학 혹은 앞으로 새로 입주할 대학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 지역에는 새로운 대학이 입주할 것이다. 또한 행복도시 주변 지역도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되는데, 바로 이미 이 곳에 있는 기존 대학들의 경쟁력강화와 선호도 증대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이 예상된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을 계기로 연기군 지역에 국내외 우수 대학의 신규 유치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계기를 활용하여 연기를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의 거점을 만들어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V.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시책과 사업 모색

1. 특화된 주력산업 선정 및 전략적 육성 시책과 사업

1) 연기군의 조건에 맞는 특화된 주력산업 선정

□ 특화된 주력산업 선정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연기군이 보유한 잠재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산업
- 향후 21세기를 주도할 성장산업
- 건강도시라는 연기군의 미래상과 부합하는 산업
- 행복도시 및 주변 도시의 주력 산업과 경합하지 않고,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는 산업

□ 특화된 주력산업으로 유망한 산업은 다음과 같음.

- 이러한 조건을 고려한다면, 연기군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유망한 산업으로

1) 건강산업 - 그중에서도 식품산업과 의료산업

2) 물류산업 - 산업물류와 식품물류

3) 문화산업 - 영상애니메이션

을 제시할 수 있다.

2) 건강산업 육성

□ 건강산업 육성의 타당성

- 건강산업은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건강 및 웰

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수요가 높아지는 산업으로 향후 미래에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손 꼽을 수 있다.

- 또한 연기군은 미래상으로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건강산업 육성은 연기군 미래상과 아주 잘 부합한다.
- 건강산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식품산업, 스포츠 및 여가산업, 생명의료산업 등으로 구분가능하다.
- 이 중에서도 연기군의 뛰어난 청정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의 기술력 및 청원의 식품의약품관리청 이전, 의료과학단지 조성 등과 연계된 의료산업이 연기군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 식품산업 육성의 타당성과 발굴 가능한 사업

- 우리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식품산업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항상 필요한 핵심 산업이다. 그런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식품공학의 발전 등으로 식품산업의 첨단화,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다.
- 연기군은 관내 농촌 지역이 많고, 따라서 기존 농업과 연계된 첨단제조 산업이 필요한데, 식품 산업은 농업과 가장 연계 가능한 산업이다. 또한 현재 연기군 관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료 산업체이다.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인근에 고급 수요를 가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품질 식품산업의 경우 주요 소비처 현지에서 가까울 수록 유리하므로, 연기군의 식품산업 입지 경쟁력도 유리하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기군에서 미래 주력 산업으로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연기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 음식료 업체를 발전 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 식품관련 대기업체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식품관련 첨단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다. 이때 기존 음식료 업체의 규모가 대체로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기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기존 식품관

련 대기업체 유치 및 식품관련 벤처기업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또한 식품산업 발전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매우 중요하므로, 연기군 차원에서 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청정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

□ 의료산업 육성의 타당성과 발굴 가능한 사업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의료산업의 수요와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 연기군 인근의 청원 지역에는 현재 중앙정부의 식품의약 관련 공공기관이 밀집하고, 또 의료과학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 또한 대덕 연구단지의 기술력,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고급 수요 등을 고려한다면, 연기군에서는 인접 지역 의료산업 발전 잠재력을 적극 끌어 들여 연기군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

3) 물류산업 육성

□ 물류산업 육성의 타당성

- 연기군의 가장 큰 강점 중의 하나가 철도와 고속도로 등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라는 점이다. 이러한 교통의 요지라는 점에서 연기군의 물류산업 육성은 높은 타당성을 가진다.

□ 산업 물류 육성 - 중부권 내륙컨테이너기지 (ICD) 건설

- 연기군은 발달된 교통망으로 물류 산업의 적지이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연기군 일원에 중부권 내륙컨테이너기지 (ICD) 이 수립된 바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그렇지만 이제 곧 행복도시가 건설되고 이 지역의 인구나 산업체가 증가하게 되면, 이지역의 확대된 물동량을 처리하는 물류중계 거점지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게 된다.

-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이 지역에 내륙컨테이너 기지를 건설하여 유통 화물의 복합 일관 수송 능력을 제고하고, 이 지역의 전통적인 입지적 경쟁력을 심분 발휘할 필요가 있다.

□ 식품 물류 산업의 육성

- 물류 산업 중에서도 식품 물류 산업은 식품의 신선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냉동 보관 기술과 신속한 이동이 요구 되는 등 산업 물류와는 차별적인 고부가가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연기군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만약 식품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고 한다면, 연기군이 생산한 청정 농산물, 연기군에서 가공한 식품 산업, 인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도시의 높은 수요, 연기군의 발달된 고속교통망 등의 조건들을 적극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인 식품 물류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식품 물류는 산업 물류와 구별되어 전문화되고, 대기업 식품회사가 식품 물류 유통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기군 차원에서 이들 식품 물류 업체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4) 문화산업 육성

□ 문화산업 육성의 타당성

- 문화산업은 무공해 산업일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1세기 유망한 미래형 산업이다.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서, 이 행복도시 내에서는 행정기능 외에 문화기능이 유치되어 적극 육성될 예정이다. 또한 행복도시에 거주할 상당히 높은 소득 수준의 문화 소비자도 연기군 문화산업 발전에 좋은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연기는 기존 충남발전계획에서 문화 산업 중 영상애니메이션 분야의 육성이 계획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관내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영상애니메이션 밸리를 추진하는 등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이를 적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홍익대학교 및 행복도시 행정 홍보 수요와 연계된 영상애니메이션 분야 특화 발전
 - 향후 연기군에서는 문화산업 중 기존에 어느정도 기반을 조성한 바 있는 영상애니메이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때 영상애니메이션 분야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관내 홍익대학교와 더욱 적극적인 연계 발전을 꾀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앙행정관서의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영상물 제작 수요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기존 산업 구조 고도화 시책과 사업

- 기존 산업 구조 고도화 시책의 타당성
 - 연기군 내의 각 부문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규 산업 못지 않게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 시책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기존 중소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 연기군내 기존 사업체는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새로운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자금과 인력의 부족으로 자체적 기술 개발 여력이 없다.
 - 그러나 이들 기존 중소기업의 혁신과 기술 개발 없이는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도 불가능하므로, 이들의 혁신과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 이 때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초점을 이들 간의 네트워크 촉진에 맞출 필요가 있다. 즉 핵심 기반기술의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사업, 시장·기술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이용 등 관련 업종 중소기업의 협력체계구축에 정책적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야 함.
- 특히 지역혁신력의 강화에 중요한 것은 기업간 상호학습이므로 기업간 교류협력의 강화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간, 기술자간, 숙련자간 단체, 교류회, 연수회 등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를 지원·육성 등이 있다.

□ 인근 주변지역과 연계된 융합형 산업 집적지 구축.

- 연기군을 둘러싸고 있는 천안, 청원, 대전 등 주변 지역은 각기 특화된 주력 산업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연기군은 이들 지역과 인접하여 있다.
- 따라서 연기군에서는 각각의 상이한 산업들이 서로 융합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이업종간 노하우의 보완성과 응용분야에서 상호교류의 장소로서 아주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연기군이 특정 업종 하나로 특화하기 보다는, 여러 이업종을 동시에 육성하여 이업종간 상호 교류를 통해 융합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전략의 필요성을 낳게 해 준다.
- 이러한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연기군은 지역내 분산된 동종 및 이업종간의 협력과 제휴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집적지대로서의 경쟁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이업종간 융합화의 촉진 및 상호연관된 기능 및 시설의 근접입지를 통하여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3. 계획적 산업 단지의 적극적 공급 시책과 사업

□ 연기군 핵심 육성 사업을 위한 계획적 산업단지 공급

- 연기군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기존 산업을 구조고도화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물리적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계획적 산업단지를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
- 지금까지 연기군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것은 고속도로와 철도의 요충지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지가가 저렴한 것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입지요인들 덕분이다. 또한 주변 대도시 교외지역으로서의 장점과 금강과 미호천의 용수가 풍부한 점 등도 연기의 제조업 입지적 우위요소였다.
- 이러한 입지적 우위를 바탕으로 연기군은 지금까지의 산업단지 분양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행복도시 건설을 계기로 인근 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대적으로 입지가 싼 연기군 지역에서 계획적 산업단지를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때 새로운 계획적 산업단지에는 연기군이 집중 육성코자 하는 전략산업을 전략적으로 입지시켜야 한다.
- 이때 이러한 산업단지의 입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개발의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고, 토지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향후 지역 발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연기군 중북부 지역이 적합하다고 보인다.

□ 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도 필요

- 또한 연기군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개별적으로 입지한 소규모 영세 공장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 연기군에는 90년대 초반부터 인근 대전지역 등에서 압출된 영세공장의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영세공장들은 도시지역내 공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간선도로변 준농림지역에 무분별하게 입지해 왔다. 이로 인해 자연 및 주거환경 피해도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이들을 가능

한 집단화 할 필요가 있다.

- 건강도시 연기군의 이미지에 걸맞게 곳곳에 산재한 영세공장들을 한 곳에 집결시키는 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함으로써 개별업지의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대학의 적극적 역할 유도 시책과 사업

□ 지역발전의 선도자로서 대학의 역할

- 대학은 연구를 통한 이론과 지식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능 등의 전통적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식과 신기술혁신의 생산자로서, 물적 자본과 하부생산구조의 창출자로서 지식기반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즉, 대학은 교육 기능 뿐 아니라 경제적 기능면에서도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기군이 천안, 오송, 대덕단지 등의 첨단산업벨트에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곳의 대학과 산업 연계는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 새로운 신규 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 고도화에 대학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연기군의 새로운 산업 육성 및 기존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현재 연기군 관내에 있는 홍익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그리고 인접한 충남, 충북 지역의 주요 대학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과 업체와 공동으로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 지역에는 새로운 대학이 입주할 것이고, 주변 기존 대학들도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을 계기로 연기군 지역에 국내외 우수 대학의 신규 유치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기를 활용하여 연기를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의 거점을 만든다면 연기군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다.

VI. 결론과 제언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연기에는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 요인
 - 행복도시 건설은 기존의 공간구조와 산업 입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행복도시 건설은 연기군의 향후 발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새로운 기회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연기군의 토지가 행복도시에 편입되고, 인구 유출 및 독자적 생활권 기능 상실 우려가 제기되는 등 위협 요소이기도 하다. 이때 행복도시가 연기군의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연기군 자체의 적극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 연기군의 산업 입지 환경의 획기적 개선 기대
 - 지금도 연기군은 잘 발달된 교통망, 주변 도시들의 제조업 기반,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 등으로 제조업 및 물류 산업에 적합한 산업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그런데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게 되면, 이 주변에 교통체계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인구 증가와 산업 물동량 증가, 고소득 소비자를 가진 소비 시장 확대, 관련 산업 집적 등의 효과도 예상되므로 제조업 및 물류 산업의 입지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천안, 아산 지역은 수도권의 기능적 확장에 기인하여 사업체수가 늘고 있는데, 향후 수도권이 남쪽으로 더욱 확장되고, 여기에 덧붙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북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연기군의 제조업 및 물류 산업 입지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 연기군의 특화된 주력 산업 육성 시책 필요
 - 특히 향후 행복도시 및 주변 대전, 천안, 청주 대도시권에 둘러싸이게 될 연기군은 이들 대도시들과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기군의 특화된 부분을 적극 개발시켜 나가야 한다.

- 이때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크게 개선되는 연기군의 산업 입지적 환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 저부가가치 위주의 연기군 산업 구조를 보다 지식 집약적, 기술 집약적으로 전환시키고, 새로운 첨단 제조업을 유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특히 건강도시라는 연기군의 미래상에 맞는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신규산업 유치와 기존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추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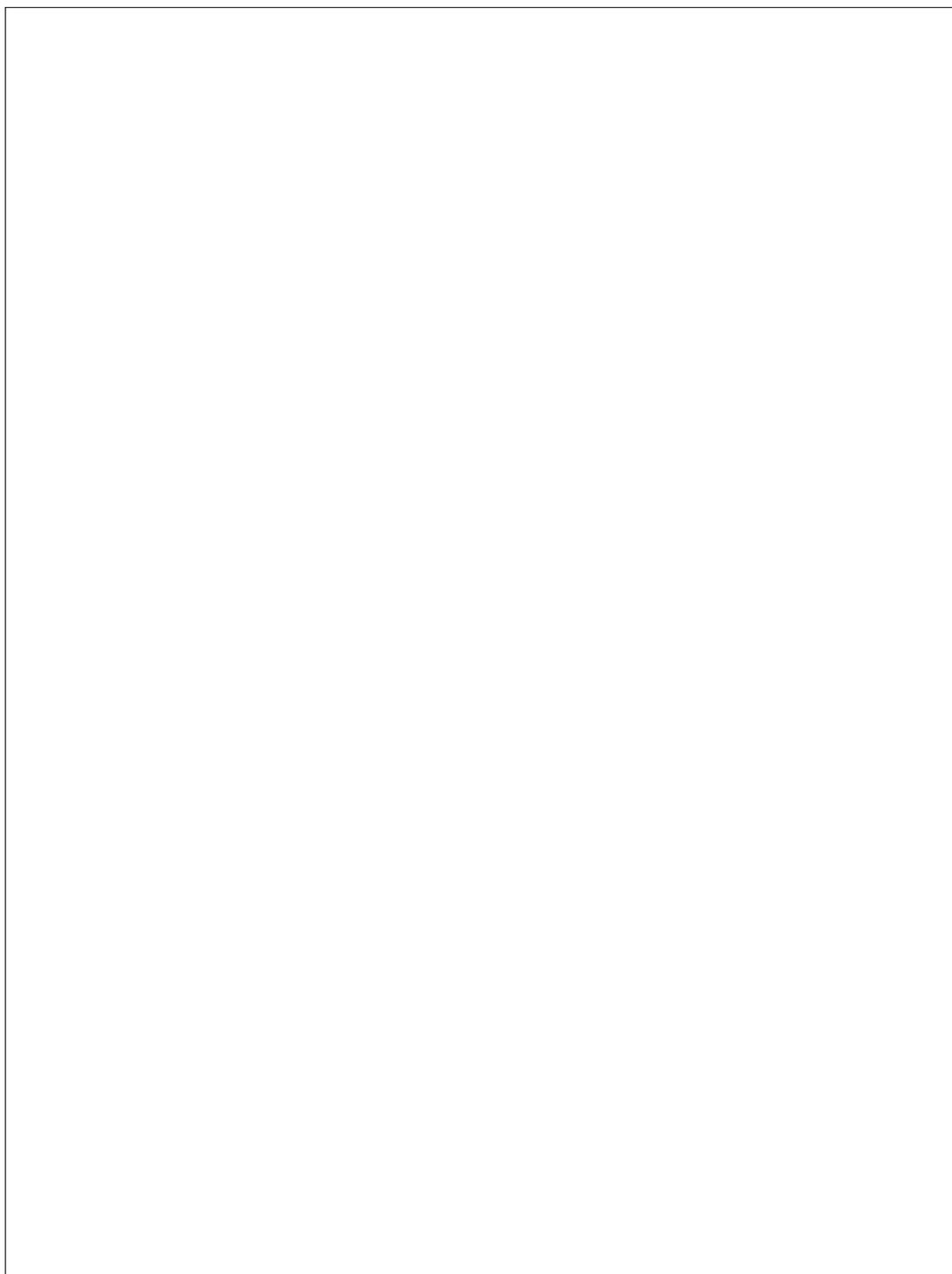
- 연기군에서는 산업 입지 경쟁력 향상이라는 외부 조건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신규산업의 유치,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산업단지의 적극적 개발과 대학을 활용한 산학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이를 통해 연기군 나름대로 특화된 산업 경쟁력을 갖추어 기존 인접 지역인 천안, 청주, 대전 지역의 산업 및 행복도시에 유치될 새로운 산업과 조화롭게 상호 상승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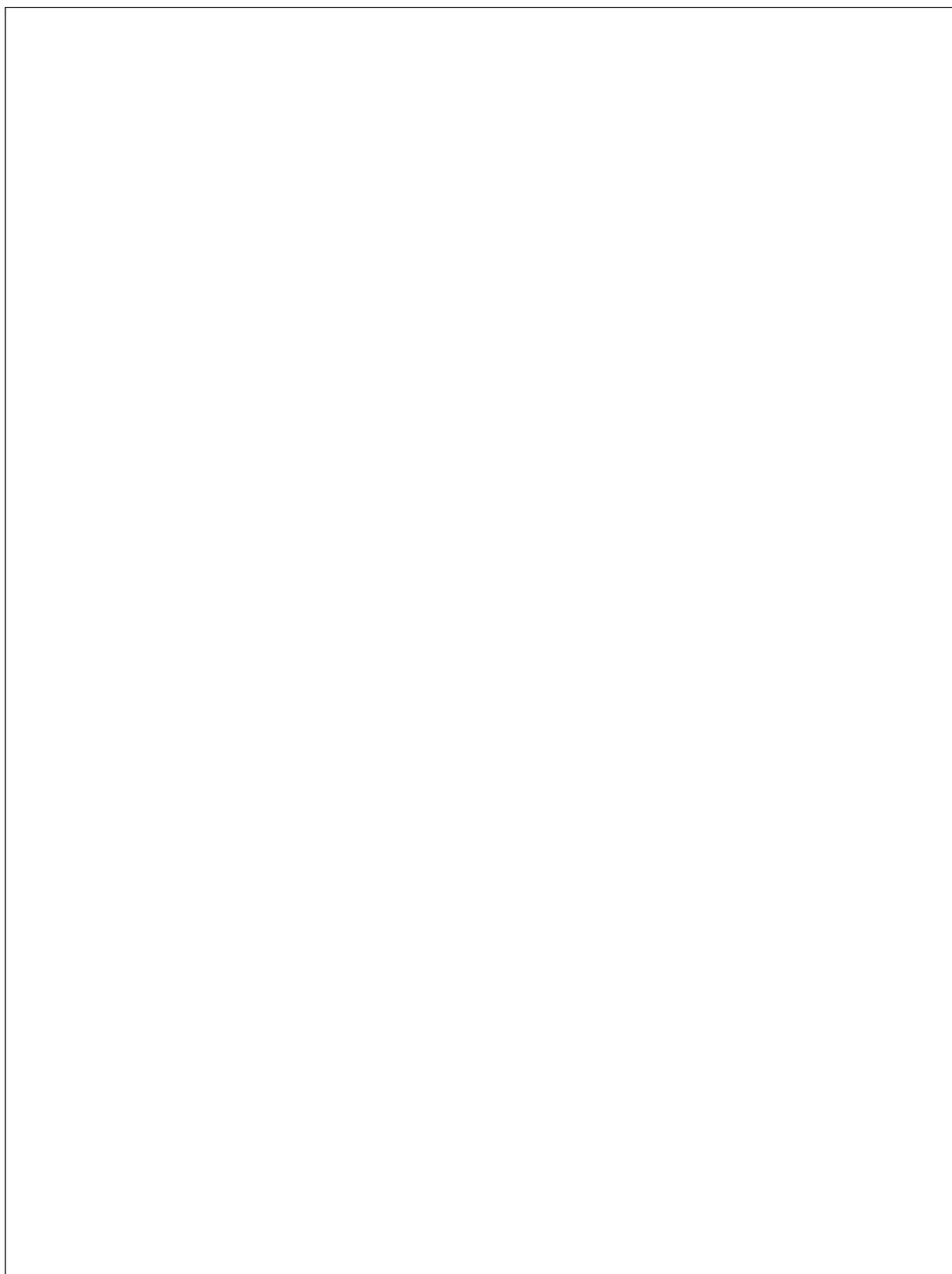
- 노근호, 2003 “충청권 광역산업클러스터 구축전략”, 21세기 충청지역의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한국지역경제학회 세미나 자료집
- 이경기, 2005, “주변도시 발전구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의 대응전략 세미나 발표자료
- 고병호 2005 “국토균형화 관점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화 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충청권 발전 전략, 한국토지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자료집,
- 송두범·조봉운, 2004, “신행정수도 입지에 따른 공주시의 발전전략 II”, 「신행정수도 입지 기념 학술심포지움」,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연기군, 1997, ICD 배후지원도시 개발 구도 연구

- 연기군, 2002, 연기군 중단기 군정발전계획
- 연기군, 2005,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2005. 1. 5. 보고자료
- 연기군,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관련 발전과제 발굴 보고, 2005.3.31. 보고자료
- 이경기, 권일, 2004,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주변도시 기능분담 방안”, 충북발전연구원
- 이원섭,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충청권 균형발전 전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충청권 발전 전략, 한국토지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자료집,
- 최재현, 2004, 신행정수도 입지에 따른 공주시의 발전전략
- 충남발전연구원, 2001,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2020),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2001, 충남 2010 정책비전,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2004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연계발전전략 수립,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2004, 충청남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충청남도
- 충남전략산업기획단, 2004, 충남 소지역 산업클러스터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연구군-
- 충청남도 200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충청남도 내부자료

MENO



MENO



MENO

